

본 연구결과는 「'08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08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

2008. 11. 30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08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1. 30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기성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목 차>

I.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1
1. 조사의 개요	1
2. 노동시장 동향	3
3.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의 변화	12
4. 임금 고용성과의 부진과 비정규 고용	15
5. 비정규직 구성 변화와 고용형태의 전환	23
6. 근로조건	29
7. 요약과 시사점	41
II.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42
1. 분석의 개요	42
2.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44
3. 고용형태별 규모 및 구성의 변화	46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전환	53
5.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변화	57
6. 요약과 시사점	66

<표 목 차>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전년 동기 대비)	3
<표 2> 주요 고용 지표 추이(3월 기준)	5
<표 3> 고용탄력성 추이(전년 동기 대비)	7
<표 4> 취업 유출·유입 규모의 변화(월평균)	8
<표 5>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변동(월평균)	11
<표 6>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14
<표 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15
<표 8>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18
<표 9> 사업체규모별·근속년수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추이	20
<표 10> 근속년수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22
<표 11>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24
<표 12>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기간제 고용 변화	25
<표 13> 근속계층별 임금근로자의 기간제 고용 변화	26
<표 14> 사업체 규모별 1년 미만 근속 임금근로자의 기간제 여부별 구성	26
<표 15>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형태	27
<표 16>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1년 전 고용형태	28
<표 1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29
<표 18>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 (3월 기준, 정규직=100)	30
<표 19>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1~3월 평균)	31
<표 20>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수준 추이 (3월 기준, 정규직=100)	32
<표 21>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기업복지 수혜율(3월 기준)	33
<표 22>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추이(3월 기준)	34

<표 23>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3월 기준)	35
<표 24> 근로형태별 교육훈련 참여율	36
<표 25> 고용형태별 일자리 선택 동기(2008년 3월)	38
<표 26>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자발적 선택 동기의 비중(3월 기준)	38
<표 27> 근로형태별 주5일제 실시 부중 추이	39
<표 28>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	40
<표 2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45
<표 30>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47
<표 31> 근속계층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49
<표 32> 사업체규모별 1년 미만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51
<표 33> 사업체규모별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52
<표 34> 기간제 근로자의 1년 후 고용형태 구성비	55
<표 35> 계약 반복갱신자의 1년 후 고용형태 구성비	56
<표 36>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57
<표 37> 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 = 100)	58
<표 38>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59
<표 39>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	60
<표 40> 근로형태별 교육훈련 참여율	61
<표 41> 고용형태별 일자리 선택 동기(2008년 8월)	63
<표 42> 근로형태별 주5일제 실시 비중 추이	64
<표 43>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	65

<부표 목차>

<부표 1> 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1
<부표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2
<부표 3>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3
<부표 4> 기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4
<부표 5> 계약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5
<부표 6>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6
<부표 7> 시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7
<부표 8> 비전형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8
<부표 9> 파견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79
<부표 10> 용역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80
<부표 11>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81
<부표 12> 가정내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82
<부표 13> 일일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83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87
<부표 15>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88
<부표 16>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89
<부표 17> 기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0
<부표 18> 계약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1
<부표 19>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2
<부표 20> 시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3
<부표 21> 비전형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4
<부표 22> 파견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5
<부표 23> 용역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6

<부표 24> 특수근로형태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7
<부표 25> 가정내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8
<부표 26> 일일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99

<그림 목차>

[그림 1] 기업규모별 생산 증가율 추이(제조업, 전년 동기 대비)	4
[그림 2] 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이	6
[그림 3] 취업자의 증감 추이(전년 동월 대비)	9
[그림 4] 임금근로자의 증감 추이(전년 동월 대비)	9
[그림 5] 사업체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증감 추이	10
[그림 6]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대비 비중	13
[그림 7] 기간제 근로자의 추이	25

I.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 2008년 3월에 조사된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는 3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임.
 - 2007년 8월 조사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직후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반응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조사는 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임.
 - 한편 8월 기준의 부가조사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고용형태별 변동을 2007년 3월 부가조사 결과와 비교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 및 사용기간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법의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할 것임.
 - 비정규직 법은 2007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한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차별 시정제도는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2007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고, 100~299인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반응을 근속년수별로,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할 것임.
 - 사용기간의 제한 때문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로 나누어 고용변동을 살펴 봄. 즉, 비정규직법이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용변동이 주로 신규 채용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함.

- 차별시정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체 규모별(100인 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로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의 변화를 분석함.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이미 시행된 대기업과 시행이 예정된 중규모 기업에서 비정규직 변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기존의 비정규직에서 고용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7년 3월의 부가조사 자료와 2008년의 부가조사 자료를 개인별로 결합함으로써 근로자가 경험하는 1년간 노동이동을 추적하여 분석함. 특히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기존의 비정규직이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전환하였는지, 아니면 더 나은 고용형태로 상향 이동하였는지를 분석함.

- 통계청에서는 가구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년월 및 인적 특성 정보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함.
- 2007년 3월에 조사된 69,826명 가운데 25.8%인 18,022명만을 추적할 수 있었음. 따라서 노동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 2008년 3월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설문지 특징

- 교육훈련 관련 설문지 2007년 8월 변경되어 2007년 3월 자료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
 - ‘지난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지난 1년간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로 수정
 - 교육훈련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문을 없애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총 시간으로 변경됨
-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 관련 문항에서 지난 주의 일자리가 아니라 지난 주의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문 내용을 추가함.

2. 노동시장 동향

□ 경제동향

○ 대외 여건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반면 내수 둔화

- 08년 1/4분기 실질 GDP(잠정치)는 전년 동기대비 5.8% 성장하여 3분기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제조업 생산의 견실한 증가세, 수출의 호조세 지속에 기인함. 그러나 계절조정 전기 대비 증가율로는 전분기에 비해 크게 하락함으로써 경기 둔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 및 설비투자의 부진, 민간 소비 증가세의 둔화로 인하여 내수 부문에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실질 국민총소득은 2008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만 증가하여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 위축이 두드러짐.
- 제조업은 반도체, 휴대용 전화기 등 전기전자기기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전년 동기 대비)

(단위: %)

	2006 1/4	2006 2/4	2006 3/4	2006 4/4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8 1/4(p)
경제성장률(원계열 실질)	6.3	5.2	5.0	4.2	4.0	4.9	5.1	5.7	5.8
제조업	10.1	9.6	9.0	5.6	3.8	6.1	6.3	9.5	9.3
서비스업	4.5	4.1	3.9	4.2	4.1	4.7	5.5	4.8	4.1
국민총소득(원계열 실질)	1.5	1.9	3.1	3.8	3.6	4.6	5.2	2.6	1.3
최종소비지출	5.4	4.6	4.7	4.6	4.5	4.9	4.7	4.8	3.5
민간	5.3	4.4	4.4	3.9	4.1	4.4	4.8	4.6	3.4
총고정자본형성	4.2	0.2	5.1	4.9	7.2	5.5	1.3	2.9	0.5
건설투자	1.1	-5.3	0.2	3.6	3.7	1.6	-0.1	0.4	-1.1
설비투자	7.1	7.5	11.4	5.4	10.9	11.0	2.3	6.5	1.4
재화수출(F.O.B 기준)	11.2	16.2	12.7	9.9	10.5	10.3	9.0	17.7	12.0
재화수입(F.O.B 기준)	11.6	14.1	11.2	8.1	9.6	10.9	5.1	17.6	11.1
내수	5.0	3.2	4.8	4.7	5.3	5.1	3.6	4.1	2.7
총저축률	28.1	31.6	31.5	33.6	26.9	31.1	31.0	32.9	26.9
총투자율	27.7	31.1	29.9	30.8	26.8	30.9	28.5	31.2	27.8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3	2.5	2.2	2.1	2.4	2.3	3.3	3.8

주: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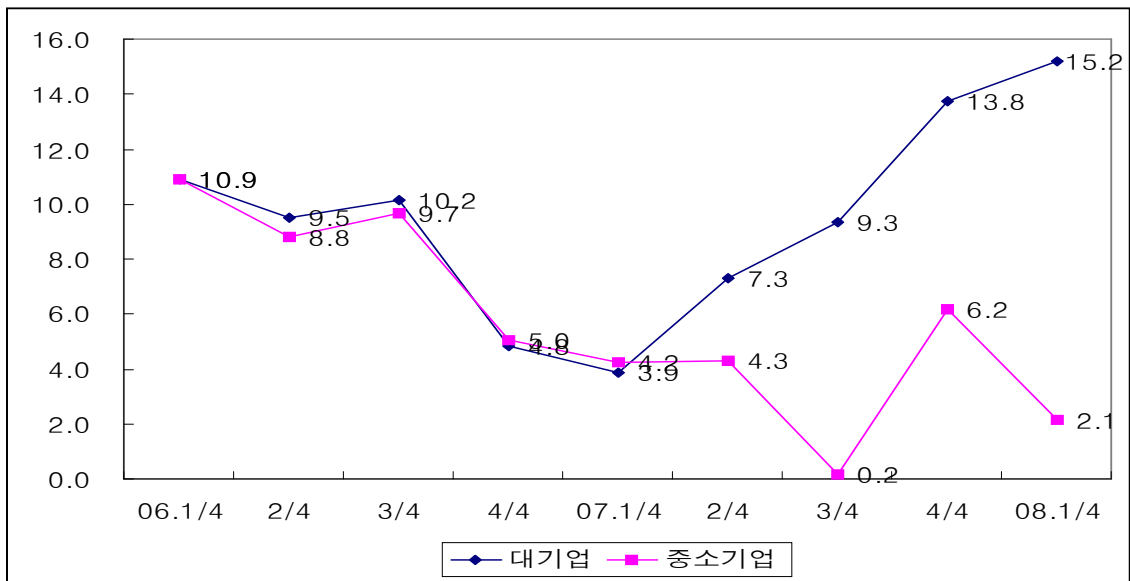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 격차 확대

○ 2008년 1/4분기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1%p나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2.0%p 증가에 그쳐, 생산 증가율 격차가 13.1%p를 기록함. 이는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격차는 내수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2006년 0.2%p(대기업 108.7, 중소기업 108.5) 차이였으나, 내수경기가 둔화된 2007년 2/4분기 부터 격차가 확대됨.
- 대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기업규모별 생산 증가율 추이(제조업,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제조업동태조사, 각년도

□ 주요 고용동향

○ 취업자 증가세의 대폭 둔화

-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2007년 6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184천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평균으로는 205천명에 그침
- 고용률 또한 0.1%p 감소한 58.9%를 기록

○ 실업률 하락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동시적 전개

- 2008년 3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 동월대비 0.3%p 하락
- 고용 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0.1%p 감소한 3.4%를 기록함.
-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2> 주요 고용 지표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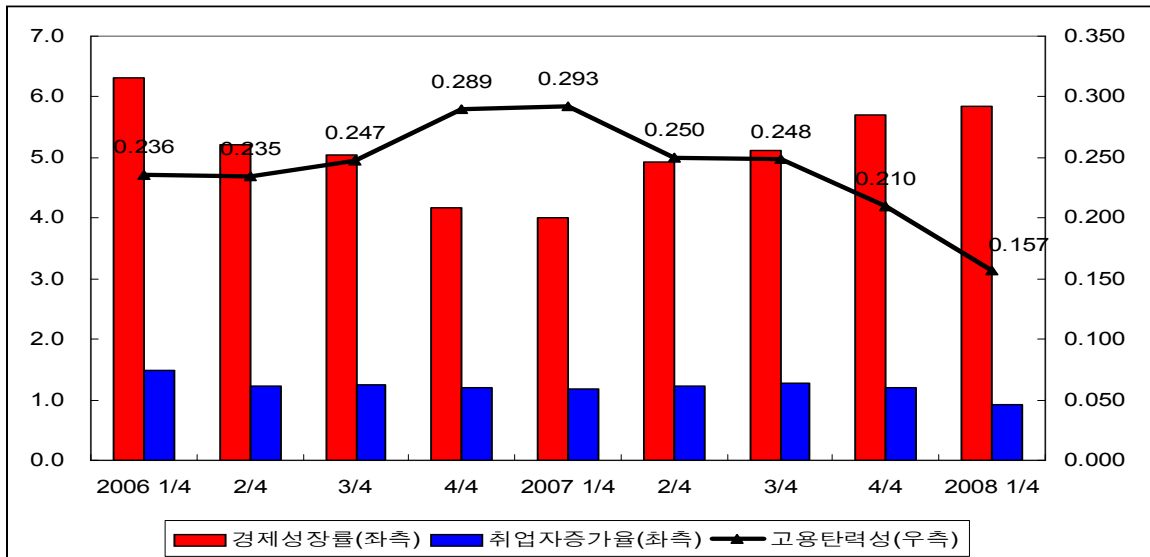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15세 이상 인구	37,608	38,097	38,640	39,044	38,464
(증가율)	(1.0)	(1.3)	(1.4)	(1.0)	(1.1)
경제활동인구	23,308	23,531	23,769	23,960	24,114
(증가율)	(2.7)	(1.0)	(1.0)	(0.8)	(0.6)
취업자	22,371	22,576	22,848	23,121	23,305
(증가율)	(2.4)	(0.9)	(1.2)	(1.2)	(0.8)
실업자	932	956	921	840	810
(증가율)	(9.6)	(2.5)	-(3.7)	-(9.7)	-(3.6)
비경제활동인구	14,306	14,566	14,871	15,084	15,350
(증가율)	-(1.7)	(1.8)	(2.1)	(1.4)	(1.8)
경제활동참가율	62.0	61.8	61.5	61.4	61.1
실업률	4.0	4.1	3.9	3.5	3.4
고용률	59.5	59.3	59.1	59.2	59.1

□ 고용탄력성의 급락

○ 2008년 1/4분기 성장률은 5.8%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9%에 그쳐, 성장과 고용간 괴리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1% 성장하였을 때의 취업자 증가율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 지표로도 확인됨.
- 고용탄력성은 2000~2007년 평균 0.313, 2003~2007년 0.301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1/4분기에는 절반 수준인 0.157로 급락함.

[그림 2] 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이



□ 내수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

-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지속적으로 음을 기록하여, 제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 다만, 제조업의 성장과 고용간 괴리는 최근 들어 다소 축소되고 있음.
-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성장에 따른 고용탄력성 또한 다소 감소하고 있음.
-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점업, 통신업 등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감소하여, 고용탄력성이 음을 기록함.

<표 3> 고용탄력성 추이(전년 동기 대비)

	2006 1/4	2/4	3/4	4/4	2007 1/4	2/4	3/4	4/4	2008 1/4(p)
전체	0.236	0.235	0.247	0.289	0.293	0.250	0.248	0.210	0.157
농림어업	-0.79	1.46	0.35	-0.23	-0.49	-2.37	-1.07	5.76	-2.18
광업	-0.68	0.85	4.63	44.30	5.53	-2.37	-2.78	-5.44	-0.55
제조업	-0.17	-0.19	-0.15	-0.26	-0.32	-0.22	-0.19	-0.09	-0.0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15	0.05	3.04	-44.92	10.78	12.17	0.49	0.94	0.21
건설업	-4.38	-0.08	0.34	0.46	0.67	0.59	-4.78	-0.35	-2.25
서비스업	0.61	0.68	0.60	0.46	0.48	0.49	0.50	0.52	0.49
도매 및 소매업	-0.23	-0.17	-0.25	-0.25	-0.23	-0.43	-0.22	-0.13	-0.15
숙박 및 음식점업	0.00	0.18	-0.24	3.05	-0.49	-0.06	0.51	0.06	-0.21
운수업	0.07	-0.04	0.25	0.52	0.67	1.22	0.80	0.38	0.01
통신업	3.09	4.67	1.87	2.61	-0.56	-1.73	-2.28	-1.85	-1.28
금융 및 보험업	1.08	1.30	1.42	0.36	0.05	0.18	0.21	0.64	0.79
부동산 및 임대업	4.20	2.27	-2.63	-1.84	-0.99	1.19	1.60	1.35	-1.16
사업서비스업	1.27	1.58	1.26	1.39	1.66	2.02	2.07	1.39	1.37
공공행정	0.95	0.44	1.29	-1.15	-1.06	-0.83	-0.39	1.63	3.62
교육서비스업	3.06	2.60	2.04	1.43	2.27	0.90	1.03	0.21	0.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85	0.61	0.95	0.89	0.59	1.11	1.31	1.30	2.04
기타서비스업	0.27	0.47	0.63	0.71	1.38	1.03	0.81	1.16	0.68

주: 기타서비스업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됨.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

○ 고용성과의 부진을 취업 유출·유입의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할 수 있는 가구식별번호를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유입·유출 규모의 추이를 분석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직월이 조사전월과 일치하는 경우를 ‘취업에서 실업으로 유출’,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출’로 인식
- 취업자의 순변화 규모에서 취업 유출자 규모를 뺀 것이 취업 유입자 규모에 해당.

○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은 취업으로의 유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실직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취업 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함. 이는 내수 부진 및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기업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4> 취업 유출·유입 규모의 변화 (월평균)

(단위 : 천명)

	2006. 1~4	2007. 1~4	2008. 1~4월
취업자 순변화	324.8	267.8	204.8
취업유출	750.9	716.2	712.9
취업유입	1,075.7	983.9	917.7

□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동

○ 자영업 종사자의 감소 지속

- 내수 부진에 따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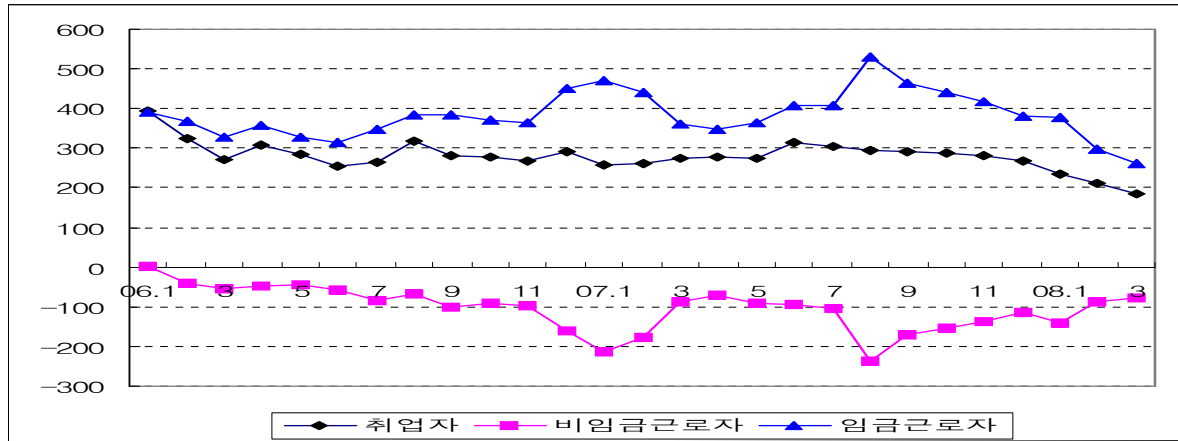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증가폭의 둔화

- 견실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 일용직의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2007년 하반기부터 임시직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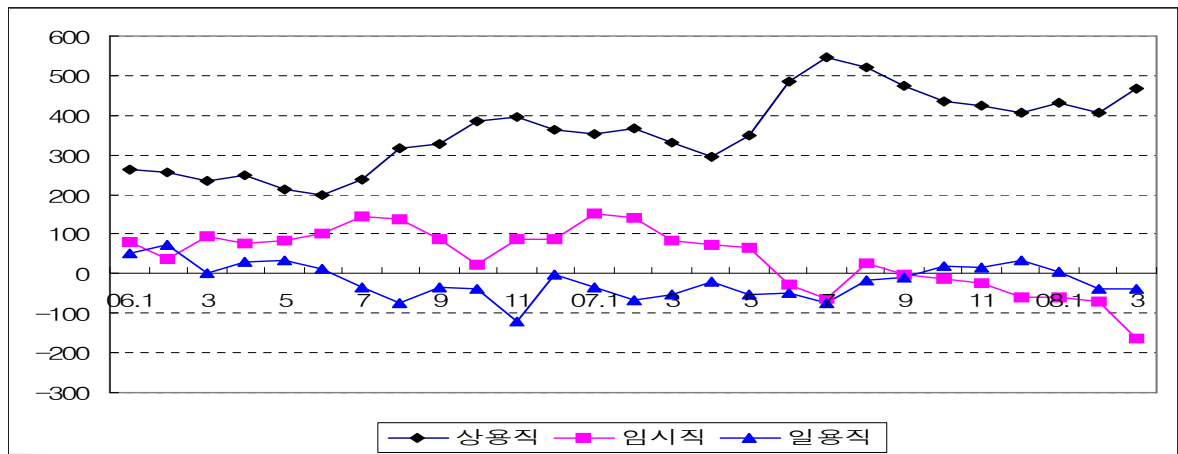
[그림 3] 취업자의 증감 추이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천명)



[그림 4] 임금근로자의 증감 추이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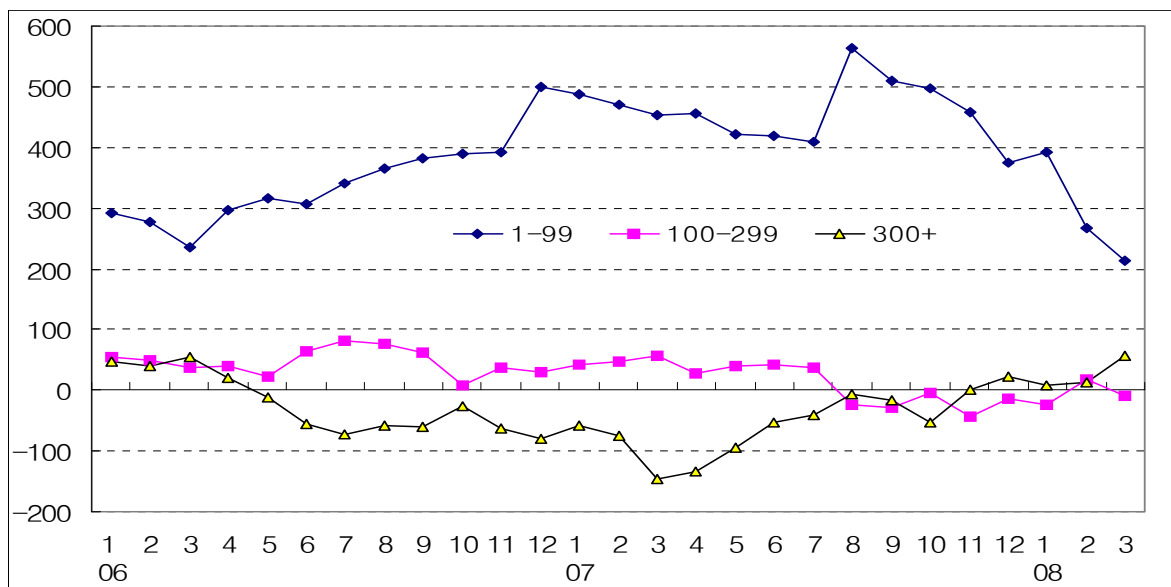
□ 소규모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증가세 크게 둔화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임금근로자 증가세의 둔화는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함. 2007년 1/4분기 470.1천 명에서 2008년 1/4분기 290.6천 명으로 크게 감소함.
- 특히 1~4인, 10~29인 사업장이 '07년 중반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함.
- 100~299인 사업장 또한 '07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임
- 감소 추세를 보이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007년 말부터 증가

[그림 5] 사업체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의 취업 유출입을 통해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 분석

- 이전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직월이 조사 전월인 경우를 '취업에서 유출'로 판별
- 임금근로자의 순변화 규모에서 취업 유출자 규모를 뺀 것을 취업으로의 유입 규모로 판별

○ 임금근로자 증가 규모가 감소한 것은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 때문임.

-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취업 유입이 증가하여 임금근로자가 순증가함.
-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근로자가 소폭 감소한 이면에는 실직 규모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취업으로의 유입이 크게 둔화하여 임금근로자가 소폭 감소함. 이는 중규모 사업체의 고용 감소가 신규 채용의 감소 때문임을 보여 줌.
-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실직 규모는 소폭 줄어든 반면 신규 채용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듦.

<표 5>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변동 (월평균)

(단위 : 천명)

		2003 1/4	2004 1/4	2005 1/4	2006 1/4	2007 1/4	2008 1/4
전체	임금근로자 순변화	304.1	446.3	241.6	362.2	424.0	311.7
	취업유출	654.1	619.5	642.6	624.6	591.5	592.1
	취업유입	958.2	1065.8	884.3	986.8	1,015.5	903.8
1-99	임금근로자 순변화	71.6	329.1	161.9	267.7	470.1	290.6
	취업유출	597.0	556.0	583.2	566.1	538.7	541.3
	취업유입	668.6	885.1	745.2	833.9	1,008.8	831.9
100-299	임금근로자 순변화	74.2	89.3	-2.2	47.3	47.8	-5.1
	취업유출	30.3	31.4	34.9	31.2	31.2	28.7
	취업유입	104.5	120.7	32.6	78.5	78.9	23.6
300+	임금근로자 순변화	158.7	27.9	81.9	47.2	-93.9	26.2
	취업유출	26.7	32.1	24.5	27.3	21.6	22.1
	취업유입	185.4	60.0	106.4	74.5	-72.3	48.3

3.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의 변화

가. 총괄

○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

- '08.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천명 감소함.
- 전체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62천명 증가에 그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임금근로자의 증가폭 둔화 추세가 확대됨
-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p 하락한 35.2%를 기록함.

○ 비정규직 고용 구성이 크게 변화

- 한시적 근로자는 3,249천명으로 전년 3월 대비 393천명(-5.5%p) 감소
- 기간제 근로자는 2,293천명으로 전년 3월 대비 321천명 감소
-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조건을 보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자'는 318천명이 감소하여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229천명을 기록
-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근로조건이 낮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는 246천명 증가하여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727천명을 기록
-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파트타임의 증가로 69천명 증가한 1,301천명을 기록
- 비전형 근로자는 2,330천명으로 전년 3월보다 86천명 증가
- 용역(33천명) 및 일일근로(26천명)는 증가한 반면, 특수고용(42천명), 파견(3천명), 가정내(3천명)근로는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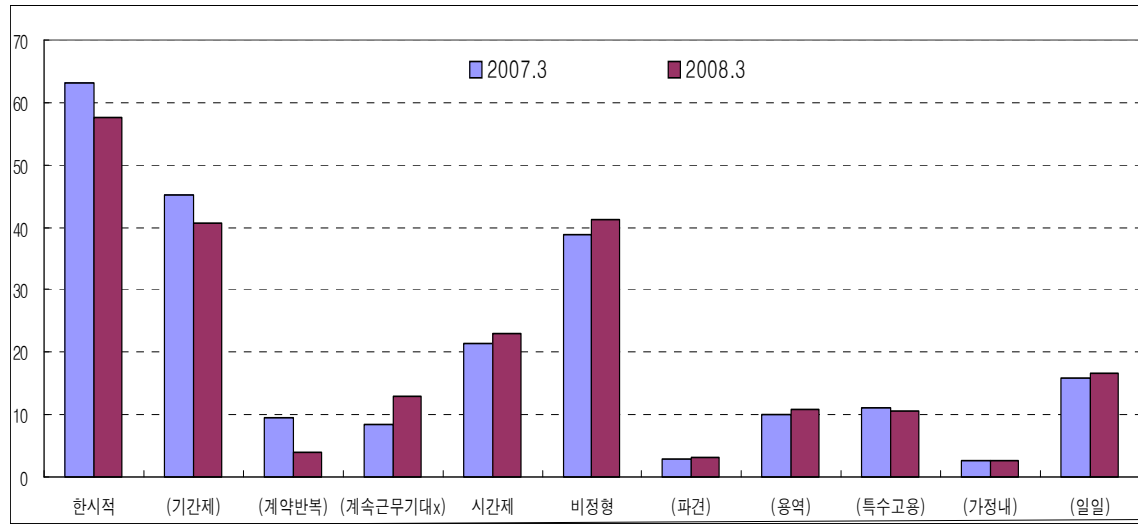
○ 비정규직은 줄었으나 상대적 근로조건은 평균적으로 하락

- 기간제·비전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평

균적인 근로조건은 오히려 다소 하락함.

[그림 6]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대비 비중

(단위 : 천명)



<표 6>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천 명,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7. 3 (A)	2008. 3 (B)	증감 (B-A)
임금근로자	14,149 [100.0]	14,584 [100.0]	14,968 [100.0]	15,351 [100.0]	15,882 [100.0]	15,731 [100.0]	15,993 [100.0]	262
정규직	9,542 [67.4]	9,190 [63.0]	9,486 [63.4]	9,894 [64.5]	10,180 [64.1]	9,958 [63.3]	10,356 [64.8]	398 [1.4p]
정규 상용직	6,184 [43.7]	6,088 [41.7]	6,413 [42.8]	6,639 [43.3]	6,931 [43.6]	6,627 [42.1]	7,302 [45.7]	675 [3.5p]
정규 임시직	3,100 [21.9]	2,844 [19.5]	2,803 [18.7]	2,926 [19.1]	2,936 [18.5]	3,080 [19.6]	2,748 [17.2]	-332 [-2.4p]
정규 일용직	259 [1.8]	258 [1.8]	269 [1.8]	329 [2.1]	313 [2.0]	252 [1.6]	306 [1.9]	54 [0.3p]
비정규직	4,606 [32.6]	5,394 [37.0]	5,483 [36.6]	5,457 [35.5]	5,703 [35.9]	5,773 [36.7]	5,638 [35.2]	-135 [-1.5p]
한시적 근로	3,013 (65.4)	3,597 (66.7)	3,615 (65.9)	3,626 (66.5)	3,546 (62.2)	3,642 (63.1)	3,249 (57.6)	-393 (-5.5p)
기간제	2,403 (52.2)	2,491 (46.2)	2,728 (49.8)	2,722 (49.9)	2,531 (44.4)	2,614 (45.3)	2,293 (40.7)	-321 (-4.6p)
계약 반복갱신	248 (5.4)	580 (10.8)	302 (5.5)	465 (8.5)	555 (9.7)	547 (9.5)	229 (4.1)	-318 (-5.4p)
계속근무 기대불가	362 (7.9)	526 (9.7)	585 (10.7)	439 (8.1)	460 (8.1)	481 (8.3)	727 (12.9)	246 (4.6p)
시간제 근로	929 (20.2)	1,072 (19.9)	1,044 (19.0)	1,135 (20.8)	1,201 (21.1)	1,232 (21.3)	1,301 (23.1)	69 (1.7p)
비전형근로	1,678 (36.4)	1,948 (36.1)	1,907 (34.8)	1,933 (35.4)	2,208 (38.7)	2,244 (38.9)	2,330 (41.3)	86 (2.5p)
파견	98 (2.1)	117 (2.2)	118 (2.1)	131 (2.4)	174 (3.1)	175 (3.0)	172 (3.1)	-3 (0.0p)
용역	346 (7.5)	413 (7.7)	431 (7.9)	499 (9.1)	593 (10.4)	584 (10.1)	617 (10.9)	33 (0.8p)
특수근로형태	600 (13.0)	711 (13.2)	633 (11.5)	617 (11.3)	635 (11.1)	643 (11.1)	601 (10.7)	-42 (-0.5p)
가정내	166 (3.6)	171 (3.2)	141 (2.6)	175 (3.2)	125 (2.2)	155 (2.7)	151 (2.7)	-4 (0.0p)
일일	589 (12.8)	666 (12.3)	718 (13.1)	667 (12.2)	845 (14.8)	915 (15.8)	940 (16.7)	26 (0.8p)

주 : 1)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안은 비정규직 대비 비중임.

2) 근로형태의 분류 기준으로 ① 근로계약기간과 고용의 지속성 ② 근로시간 ③ 근로제공방식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근로자가 복수의 비정규 근로형태에 속할 수 있음.

4. 임금 고용성과의 부진과 비정규 고용

가. 임시직 근로의 감소와 비정규직 법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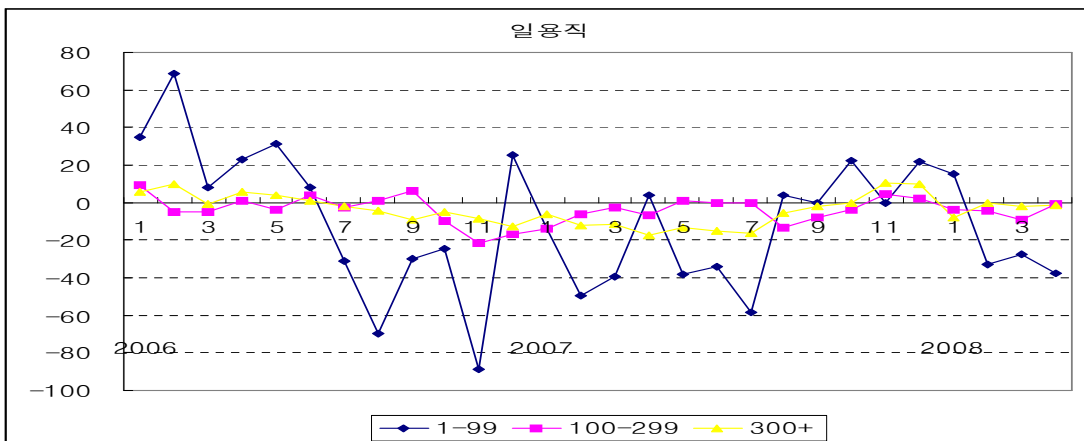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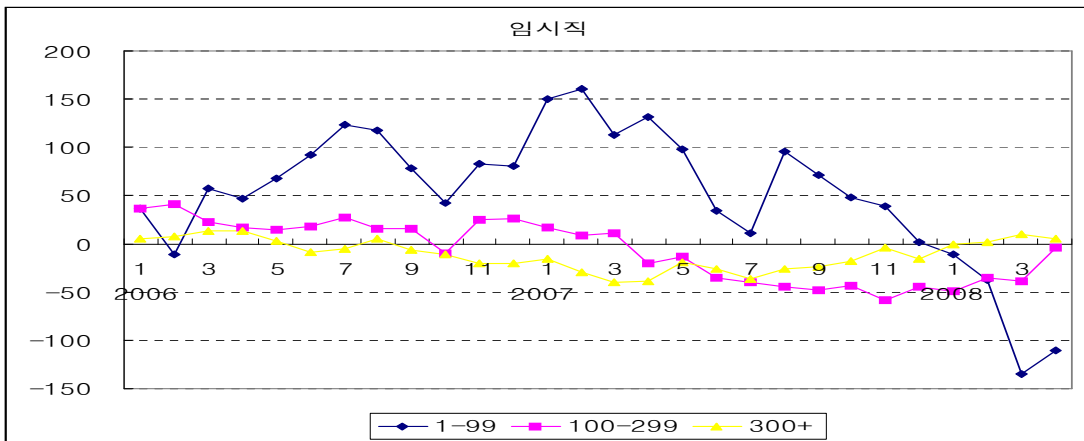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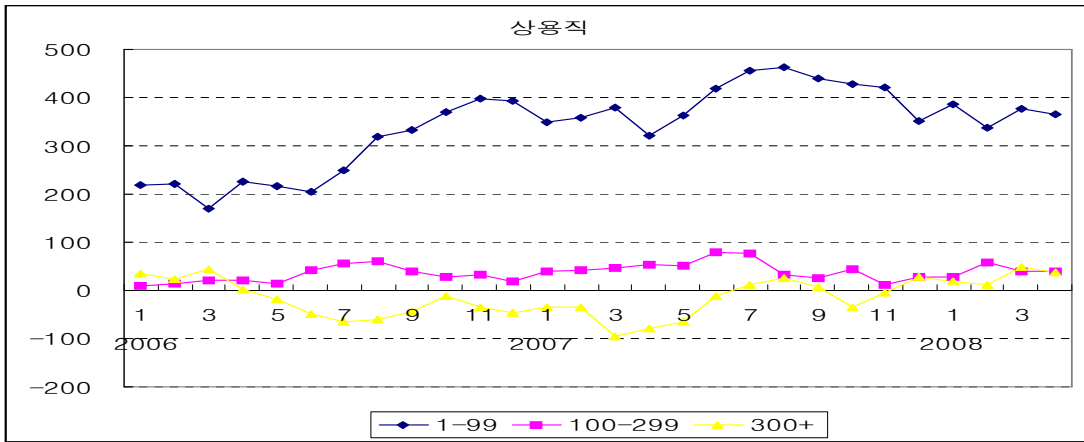
- 임시직의 감소 현상을 비정규직 법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대두
 - 비정규직 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등의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임시직이 감소하였다면, 비정규 임시직이 주로 감소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반대로 정규 임시직은 332천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 임시직이 167천명 증가함.
 - 따라서 임시직 감소는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경기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아야 할 것임.

<표 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2007.3			2008.3			증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	8,431.7	5,187.8	2,111.6	8,897.6	5,023.3	2,072.5	465.9	-164.5	-39.0
정규직	6,626.7	3,079.6	251.9	7,301.8	2,747.9	306.2	675.1	-331.7	54.3
비정규직	1,804.9	2,108.2	1,859.6	1,595.8	2,275.4	1,766.4	-209.1	167.2	-93.2
-한시적 근로	1,657.3	1,235.7	748.6	1,375.4	1,290.2	583.2	-281.9	54.5	-165.4
기간제	1,277.2	721.8	615.1	1,201.3	698.0	394.0	-75.9	-23.8	-221.1
계약 반복갱신	379.5	150.7	16.7	159.6	63.5	5.7	-220.0	-87.3	-11.0
계속근무기대불가	0.5	363.2	116.8	14.5	528.7	183.5	14.0	165.5	66.7
-시간제 근로	15.9	563.2	652.5	35.0	585.0	680.7	19.2	21.8	28.2
-비전형근로	348.7	821.4	1,074.3	436.8	877.9	1,015.7	88.2	56.4	-58.6
과건	78.7	64.3	32.4	101.7	59.1	11.4	23.0	-5.2	-21.1
용역	248.0	243.2	92.9	278.1	257.2	81.5	30.1	14.1	-11.4
특수근로형태	19.5	481.9	141.1	19.6	496.6	84.6	0.1	14.8	-56.5
가정내	2.4	39.3	112.8	32.0	39.7	79.3	29.6	0.3	-33.5
일일	0.5	0.9	913.3	5.6	36.4	898.3	5.1	35.6	-15.1

○ 임시직의 감소는 주로 1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짐



나.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변화

□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의 변화

○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형태별 규모 및 구성은 다른 변화를 보임

- 차별시정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임금 일자리가 57천명 증가함.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95천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38천명 감소함.
 - 파견·용역 등의 간접 고용 증가 현상은 통계로 나타나지 않음.
- 차별시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100~299인의 중규모 기업에서는 임금 일자리가 9천명 감소함.
 - 정규직은 76천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86천명 감소함
 - 정규직 증가는 주로 정규 상용직의 증가에 기인함
 - 비정규직의 내부 구성을 보면, 가정내 근로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 고용형태에서 일자리가 감소함. 특히 기간제의 감소(-21천명)뿐만 아니라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60천명 감소한 것이 두드러짐.
-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임금 일자리는 215천명 증가함
 - 정규직은 226천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2천명 감소하였으나, 내부 구성은 크게 변화함.
 - 정규직은 정규 상용직이 483천명 증가한 반면 정규 임시직이 310천명 감소함
 - 비정규직은 기간제가 276천명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221천명 감소하였으며,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가 237천명 증가함. 또한 용역·일일 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자가 95천명 증가함

○ 비정규직 구성의 변화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과 100~299인의 중규모 기업에서 두드러짐

- 정규 상용직 중심으로 정규직이 증가함으로써 정규 고용의 질이 개선된 반면

- 비정규직 내부에서는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보임.

<표 8>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7.3			2008.3			증감		
	-99	100-299	300-	-99	100-299	300-	-99	100-299	300-
임금근로자	12,366.8 (100.0)	1,563.8 (100.0)	1,800.4 (100.0)	12,581.3 (100.0)	1,554.5 (100.0)	1,857.6 (100.0)	214.5	-9.3	57.2
정규직	7,455.1 (60.3)	1,081.9 (69.2)	1,421.2 (78.9)	7,681.4 (61.1)	1,158.2 (74.5)	1,516.3 (81.6)	226.3	76.3	95.0
(정규 상용직)	4,280.6 (34.6)	976.4 (62.4)	1,369.7 (76.1)	4,763.7 (37.9)	1,066.2 (68.6)	1,471.9 (79.2)	483.1	89.8	102.2
(정규 임시직)	2,931.8 (23.7)	100.5 (6.4)	47.2 (2.6)	2,621.4 (20.8)	83.9 (5.4)	42.5 (2.3)	-310.4	-16.6	-4.7
(정규 일용직)	242.7 (2.0)	4.9 (0.3)	4.3 (0.2)	296.3 (2.4)	8.1 (0.5)	1.8 (0.1)	53.6	3.2	-2.5
비정규직	4,911.7 (39.7)	481.9 (30.8)	379.1 (21.1)	4,899.9 (38.9)	396.3 (25.5)	341.3 (18.4)	-11.8	-85.6	-37.8
한시적	2,884.5 (23.3)	404.0 (25.8)	353.1 (19.6)	2,623.2 (20.9)	320.5 (20.6)	305.1 (16.4)	-261.3	-83.5	-48.1
(기간제)	2,043.2 (16.5)	296.3 (18.9)	274.6 (15.3)	1,766.8 (14.0)	275.6 (17.7)	250.8 (13.5)	-276.4	-20.7	-23.8
(계약 반복 갱신)	391.1 (3.2)	82.0 (5.2)	73.8 (4.1)	169.7 (1.3)	21.9 (1.4)	37.2 (2.0)	-221.4	-60.2	-36.6
(계속 근무 기대불가)	450.2 (3.6)	25.6 (1.6)	4.7 (0.3)	686.7 (5.5)	23.0 (1.5)	17.0 (0.9)	236.5	-2.6	12.3
시간제	1,155.6 (9.3)	47.7 (3.0)	28.2 (1.6)	1,220.4 (9.7)	45.1 (2.9)	35.2 (1.9)	64.8	-2.5	7.0
비전형	2,103.3 (17.0)	109.1 (7.0)	31.9 (1.8)	2,198.5 (17.5)	89.9 (5.8)	42.0 (2.3)	95.2	-19.3	10.1
(파견)	148.0 (1.2)	19.7 (1.3)	7.7 (0.4)	148.3 (1.2)	16.1 (1.0)	7.8 (0.4)	0.3	-3.6	0.1
(용역)	530.3 (4.3)	42.4 (2.7)	11.4 (0.6)	566.7 (4.5)	40.2 (2.6)	9.9 (0.5)	36.4	-2.2	-1.4
(특수형태근로)	594.2 (4.8)	37.5 (2.4)	10.8 (0.6)	565.0 (4.5)	21.9 (1.4)	14.0 (0.8)	-29.3	-15.5	3.1
(가정내)	151.3 (1.2)	1.6 (0.1)	1.6 (0.1)	135.1 (1.1)	5.3 (0.3)	10.5 (0.6)	-16.2	3.7	8.9
(일일)	902.3 (7.3)	12.0 (0.8)	0.4 (0.0)	931.2 (7.4)	7.4 (0.5)	1.7 (0.1)	29.0	-4.7	1.3

□ 사업체규모별·근속년수별 고용형태의 변화

- 지난 1년간 신규 채용의 감소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219천명)과 100~299인의 중기업(-45천명)에서 발생
- 정규 상용직의 증가는 주로 근속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서 이루어진 반면, 정규 임시직의 감소는 신규 채용 및 기존 근로자 모두에서 발생함.
 -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 신규 채용(-198천명) 및 기존 고용(-112천명) 모두에서 정규 임시직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 기간제의 감소는 신규 채용에서 나타나며, 기존 근로자의 계약 해지와 같은 형태의 기간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
 - 기간제 감소는 주로 100인 미만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288천명), 100~299인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27천명) 형태로 발생
-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의 감소는 신규 채용보다 근속 1년 이상인 기존 근로자에서 주로 발생함.
 - 모든 기업 규모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짐(-155천명)
-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의 증가는 주로 100인 미만 기업에서 나타나며, 신규 채용(135천명)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102천명)에서도 발생함
- 파견·용역 등의 간접 고용은 신규 채용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기존 근로자에서 증가함.

<표 9> 사업체규모별·근속년수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추이

(단위 : 천명)

	07.3			08.3			증감		
	1-99	100-299	300-	1-99	100-299	300-	1-99	100-299	300-
<1년 미만>									
임금근로자	5,450.0	378.7	224.7	5,231.4	333.4	232.6	-218.7	-45.3	7.9
정규직	2,449.3	190.1	129.6	2,326.6	188.1	132.9	-122.8	-2.0	3.3
(정규 상용직)	823.2	129.3	100.8	847.0	135.0	110.1	23.8	5.7	9.2
(정규 임시직)	1,445.3	58.7	24.5	1,247.3	46.9	21.6	-198.0	-11.8	-2.9
(정규 일용직)	180.8	2.2	4.3	232.3	6.3	1.3	51.5	4.1	-3.0
비정규직	3,000.7	188.6	95.1	2,904.8	145.3	99.7	-95.9	-43.3	4.6
한시직	1,564.4	152.3	87.6	1,345.0	105.4	87.3	-219.4	-46.9	-0.3
(기간제)	1,165.4	116.9	72.7	877.9	89.7	76.5	-287.6	-27.2	3.9
(계약 반복 갱신)	103.3	16.0	11.8	36.5	0.6	2.2	-66.8	-15.4	-9.7
(계속 근무 기대불가)	295.7	19.4	3.1	430.7	15.1	8.6	135.0	-4.3	5.5
시간제	880.8	30.0	15.9	896.2	30.1	22.3	15.4	0.1	6.4
비전형	1,419.9	51.1	9.9	1,387.3	35.3	10.2	-32.6	-15.8	0.3
(과건)	77.3	8.2	1.6	57.7	4.1	0.4	-19.6	-4.1	-1.1
(용역)	275.0	20.0	5.6	273.4	12.8	2.8	-1.6	-7.2	-2.8
(특수형태근로)	291.2	14.7	2.4	210.5	9.9	5.3	-80.7	-4.8	2.9
(가정내)	108.0	1.1	0.0	93.7	2.3	0.9	-14.3	1.3	0.9
(일일)	875.6	11.2	0.4	890.1	6.7	1.7	14.5	-4.4	1.3
<1년 이상>									
임금근로자	6,916.7	1,185.1	1,575.7	7,349.9	1,221.1	1,625.0	433.2	36.0	49.4
정규직	5,005.7	891.7	1,291.6	5,354.9	970.1	1,383.4	349.2	78.3	91.7
(정규 상용직)	3,457.3	847.2	1,268.9	3,916.7	931.2	1,361.9	459.4	84.1	93.0
(정규 임시직)	1,486.5	41.9	22.7	1,374.2	37.1	21.0	-112.3	-4.8	-1.8
(정규 일용직)	61.9	2.7	0.0	64.0	1.7	0.5	2.1	-0.9	0.5
비정규직	1,911.0	293.4	284.0	1,995.0	251.1	241.7	84.0	-42.3	-42.4
한시직	1,320.1	251.7	265.6	1,278.2	215.1	217.8	-41.9	-36.6	-47.8
(기간제)	877.8	179.4	201.9	888.9	185.9	174.3	11.2	6.5	-27.6
(계약 반복 갱신)	287.8	66.0	62.0	133.3	21.3	35.0	-154.6	-44.8	-27.0
(계속 근무 기대불가)	154.5	6.2	1.6	256.0	7.9	8.5	101.5	1.7	6.8
시간제	274.9	17.6	12.3	324.2	15.0	12.9	49.4	-2.6	0.6
비전형	683.5	58.0	22.0	811.2	54.5	31.8	127.7	-3.5	9.9
(과건)	70.7	11.5	6.1	90.6	12.0	7.3	19.9	0.5	1.2
(용역)	255.3	22.4	5.8	293.4	27.4	7.2	38.1	5.0	1.4
(특수형태근로)	303.1	22.8	8.5	354.5	12.1	8.7	51.5	-10.7	0.2
(가정내)	43.3	0.5	1.6	41.4	3.0	9.6	-1.9	2.5	8.0
(일일)	26.7	0.8	0.0	41.2	0.6	0.0	14.5	-0.2	0.0

다. 근속년수별 비정규직의 변화

- 1년 미만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구성을 통해 신규 채용시 고용형태별 활용도를 살펴보고,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구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변화를 추론하고자 함.
- 1년 이내에 신규로 취업한 임금근로자는 256천명 감소한 반면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518천명 증가하여, 최근 임금일자리 증가의 부진은 신규 채용의 감소에 기인함을 알 수 있음.
- 근속 1년 미만 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정규직(-121천명)과 비정규직(-135천명) 모두에서 발생함
 - 특히 정규 임시직(-213천명), 기간제(-310천명),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92천명)의 신규 채용 감소가 두드러짐
-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 상용직이 636천명 증가하였으며,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226천명), 정규 임시직(-119천명) 감소가 두드러짐

<표 10> 근속년수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7.3		2008.3		증감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임금근로자	6,053.4 (100.0)	9,677.7 (100.0)	5,797.4 (100.0)	10,195.9 (100.0)	-256.0	518.3
정규직	2,769.0 (45.7)	7,189.3 (74.3)	2,647.6 (45.7)	7,708.2 (75.6)	-121.4	519.0
(정규 상용직)	1,053.3 (17.4)	5,573.5 (57.6)	1,092.0 (18.8)	6,209.8 (60.9)	38.7	636.3
(정규 임시직)	1,528.4 (25.2)	1,551.2 (16.0)	1,315.7 (22.7)	1,432.2 (14.0)	-212.7	-119.0
(정규 일용직)	187.3 (3.1)	64.6 (0.7)	239.9 (4.1)	66.2 (0.6)	52.6	1.7
비정규직	3,284.4 (54.3)	2,488.4 (25.7)	3,149.8 (54.3)	2,487.7 (24.4)	-134.6	-0.7
한시직	1,804.3 (29.8)	1,837.3 (19.0)	1,537.6 (26.5)	1,711.1 (16.8)	-266.7	-126.2
(기간제)	1,355.0 (22.4)	1,259.1 (13.0)	1,044.1 (18.0)	1,249.1 (12.3)	-310.9	-10.0
(계약 반복 갱신)	131.1 (2.2)	415.9 (4.3)	39.2 (0.7)	189.6 (1.9)	-91.9	-226.3
(계속 근무 기대불가)	318.2 (5.3)	162.3 (1.7)	454.4 (7.8)	272.4 (2.7)	136.2	110.0
시간제	926.7 (15.3)	304.8 (3.1)	948.5 (16.4)	352.2 (3.5)	21.8	47.4
비전형	1,481.0 (24.5)	763.4 (7.9)	1,432.9 (24.7)	897.5 (8.8)	-48.1	134.1
(파견)	87.1 (1.4)	88.3 (0.9)	62.2 (1.1)	110.0 (1.1)	-24.8	21.7
(용역)	300.6 (5.0)	283.5 (2.9)	289.0 (5.0)	327.9 (3.2)	-11.6	44.4
(특수형태근로)	308.2 (5.1)	334.4 (3.5)	225.6 (3.9)	375.3 (3.7)	-82.6	40.9
(가정내)	109.0 (1.8)	45.5 (0.5)	96.9 (1.7)	54.1 (0.5)	-12.1	8.6
(일일)	887.170 (14.7)	27.5 (0.3)	898.5 (15.5)	41.8 (0.4)	11.3	14.3

5. 비정규직 구성 변화와 고용형태의 전환

가. 한시적 근로

- 비정규직 구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기간제의 대폭 감소(-321천명),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급감(-318천명),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의 급증(246천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정규 고용의 구성이 변화는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함

- 특히 비정규 고용 구성의 악화가 비정규직 법 시행에 따라 근로조건이 열악한 고용형태로 전환 또는 대체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감소는 주로 고학력(-165천명), 상용직(-220천명)에서 발생한 반면,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주로 고졸 이하(196천명), 임시·일용직(232천명), 100인 미만 기업(237천명)에서 발생함.
 - 상이한 인적 특성에 비추어 고용형태간 대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표 11>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2007.3			2008.3			증감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전체		2,614.1	547.0	480.5	2,293.2	228.8	726.7	-320.9	-318.2	246.2
성	남	1,460.5	329.6	171.4	1,278.1	138.4	290.2	-182.4	-191.2	118.8
	여	1,153.6	217.4	309.1	1,015.1	90.4	436.6	-138.5	-127.0	127.5
연령	15-29	735.4	135.9	80.1	617.5	60.5	158.0	-118.0	-75.4	77.9
	30-39	665.0	192.8	101.3	562.1	65.2	148.2	-102.9	-127.6	47.0
	40-49	556.5	129.6	159.9	490.7	61.5	208.3	-65.9	-68.1	48.4
	50-59	358.5	67.6	88.1	358.1	30.0	129.4	-0.4	-37.6	41.4
	60세 이상	298.7	21.0	51.2	264.9	11.5	82.8	-33.7	-9.5	31.7
학력	초졸이하	334.6	23.5	80.0	252.6	8.3	119.1	-82.0	-15.2	39.1
	중졸	274.5	31.9	87.9	232.3	14.6	118.3	-42.2	-17.3	30.4
	고졸	994.2	199.2	240.6	883.6	78.7	367.3	-110.6	-120.5	126.7
	전문대졸	352.0	106.0	33.1	306.1	51.5	54.2	-45.9	-54.5	21.1
	대졸	538.1	174.1	36.1	501.2	67.6	59.9	-36.9	-106.5	23.8
	대학원 이상	120.8	12.4	2.8	117.4	8.2	7.9	-3.3	-4.2	5.1
규모	1-4인	459.5	66.9	189.9	337.0	31.1	296.5	-122.6	-35.8	106.6
	5-9인	429.8	78.4	114.2	361.2	35.5	174.1	-68.6	-42.9	59.9
	10-29인	610.3	111.1	102.5	570.3	49.0	138.7	-40.0	-62.1	36.1
	30-99인	543.6	134.8	43.5	498.3	54.1	77.4	-45.3	-80.6	33.9
	100-299인	296.3	82.0	25.6	275.6	21.9	23.0	-20.7	-60.2	-2.6
	300인 이상	274.6	73.8	4.7	250.8	37.2	17.0	-23.8	-36.6	12.3
지위	상용직	1,277.2	379.5	0.5	1,201.3	159.6	14.5	-75.9	-220.0	14.0
	임시직	721.8	150.7	363.2	698.0	63.5	528.7	-23.8	-87.3	165.5
	일용직	615.1	16.7	116.8	394.0	5.7	183.5	-221.1	-11.0	66.7
근속	1년 미만	1,355.0	131.1	318.2	1,044.1	39.2	454.4	-310.9	-91.9	136.2
	1-2년 미만	395.3	98.4	83.4	395.0	37.2	140.7	-0.3	-61.2	57.3
	2-3년 미만	210.0	75.4	40.8	226.0	36.4	45.3	16.1	-39.0	4.5
	3년 이상	653.9	242.1	38.2	628.1	116.0	86.4	-25.8	-126.1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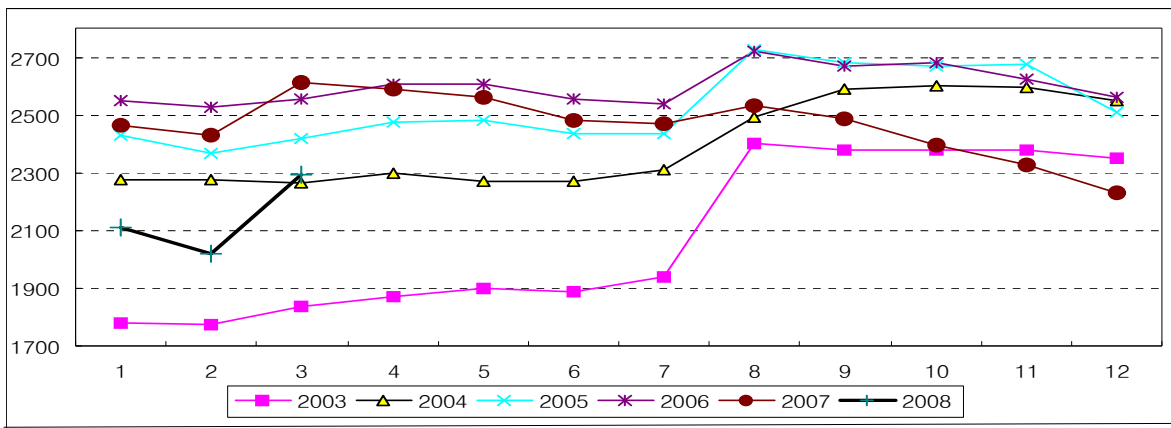
나. 기간제 고용

○ 기간제 근로자는 2008년 3월 2,293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2,614천명에 비해 321천명 감소함.

- 3월 기준으로는 2003년 1,838천명에 비해 2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7년 3월 16.6%에서 2008년 3월 14.3%로 감소

[그림 7] 기간제 근로자의 추이

(단위 : 천명)



○ 2007년 들어 시작된 기간제 근로자의 감소 경향이 2008년 들어 현저하게 나타남

- 기간제 근로의 감소는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함.
- 300인 이상 대기업과 100~299인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는 소폭 감소함

<표 12>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기간제 고용 변화

(단위 : 천명)

		2003.1/4	2004.1/4	2005.1/4	2006.1/4	2007.1/4	2008.1/4
임금 근로자	1-99	11,016	11,345 (329)	11,507 (162)	11,774 (268)	12,244 (470)	12,535 (291)
	100-299	1,376	1,465 (89)	1,463 -(2)	1,511 (47)	1,558 (48)	1,553 -(5)
	300+	1,776	1,804 (28)	1,886 (82)	1,933 (47)	1,839 -(94)	1,865 (26)
기간제	1-99	1,569	1,892 (323)	1,935 (43)	2,044 (109)	1,979 -(65)	1,680 -(300)
	100-299	113	199 (86)	237 (39)	257 (20)	262 (4)	240 -(22)
	300+	115	182 (68)	233 (51)	242 (9)	260 (18)	221 -(39)

○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는 소폭 감소함.

-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제가 크게 감소하여, 기간제 신규 채용의 감소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3> 근속계층별 임금근로자의 기간제 고용 변화

(단위 : 천명)

		2003.1/4	2004.1/4	2005.1/4	2006.1/4	2007.1/4	2008.1/4
임금 근로자	1년미만	5,151	5,533 (382)	5,392 -(141)	5,595 (203)	5,704 (110)	5,448 -(257)
	1-2년미만	2,001	2,331 (330)	2,346 (15)	2,255 -(90)	2,386 (131)	2,474 (87)
	2년이상	7,015	6,751 -(265)	7,119 (368)	7,368 (250)	7,552 (184)	8,032 (481)
기간제	1년미만	1,288	1,367 (80)	1,332 -(36)	1,426 (94)	1,313 -(113)	970 -(343)
	1-2년미만	207	378 (172)	381 (3)	377 -(4)	385 (8)	381 -(3)
	2년이상	302	527 (225)	693 (165)	740 (47)	804 (64)	790 -(14)

○ 1년 이내에 신규로 취업한 임금근로자는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하여, 채용 둔화 경향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기간제의 신규 채용 또한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하며, 신규 채용 임금근로자 대비 기간제의 비중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함.

<표 14> 사업체 규모별 1년 미만 근속 임금근로자의 기간제 여부별 구성

(단위 : 천명)

		2003.1/4	2004.1/4	2005.1/4	2006.1/4	2007.1/4	2008.1/4
임금근로자	1-99	4,646	4,950 (304.1)	4,821 -(129.7)	4,992 (171.3)	5,120 (128.3)	4,923 -(197.8)
	100-299	285	336 (51.8)	318 -(18.0)	343 (24.8)	363 (20.0)	309 -(54.5)
	300+	220	246 (25.4)	252 (6.7)	259 (6.9)	221 -(38.6)	216 -(4.3)
기간제	1-99	1,179	1,223 (44.0)	1,143 -(80.3)	1,248 (105.7)	1,145 -(103.4)	839 -(306.3)
	100-299	59	83 (23.4)	103 (20.7)	99 -(3.8)	101 (1.4)	75 -(25.7)
	300+	50	62 (12.0)	86 (24.0)	78 -(7.8)	67 -(11.4)	56 -(10.6)

다. 비기간제의 고용형태 전환

□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

- 2007년 3월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형태를 보면,
- 동일한 고용형태에 머무르는 비중은 16.4%에 불과한 반면 52.9%가 정규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주로 정규 상용직으로 변화함
 -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표 15>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1년 후 고용형태

(단위 : %)

	비중
정규직	(52.9)
(정규 상용직)	(46.2)
(정규 임시직)	(5.8)
(정규 일용직)	(0.9)
비정규직	(38.7)
한시적	(29.3)
(기간제)	(12.0)
(계약 반복 갱신)	(16.4)
(계속 근무 기대불가)	(0.9)
시간제	(3.6)
비전형	(16.9)
(파견)	(3.1)
(용역)	(7.1)
(특수형태근로)	(5.3)
(가정내)	(0.9)
(일일)	(0.9)
비임금근로자	(2.7)
비취업	(5.8)

□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

- 2008년 3월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1년전 고용 형태를 보면,
- 동일한 고용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비중이 29.4%이며,
 - 1년전 정규직이었던 비중이 21.6%인 반면, 비정규직은 49.8%, 비임금근로 7.1%, 비취업이 21.6%임.
 - 하향 이동한 비중이 20% 내외인 반면, 노동시장 진입 또는 불안정 고용에 정착해 있는 비중이 나머жим.

<표 16>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1년 전 고용형태

(단위 : %)

	비중
정규직	(21.6)
(정규 상용직)	(4.1)
(정규 임시직)	(16.0)
(정규 일용직)	(1.5)
비정규직	(49.8)
한시적	(37.2)
(기간제)	(7.1)
(계약 반복 갱신)	(0.7)
(계속 근무 기대불가)	(29.4)
시간제	(10.0)
비전형	(14.5)
(파견)	(0.7)
(용역)	(2.6)
(특수형태근로)	(3.3)
(가정내)	(1.5)
(일일)	(7.4)
비임금근로자	(7.1)
비취업	(21.6)

6. 근로조건

가. 임금

□ 월평균 임금

-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1~3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은 127.2만 원으로 작년 3월에 비해 0.1% 감소한 반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10.4만 원으로 6.0%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7년 64.2%에 비해 2008년 60.4%로 그 격차가 더 커짐.
- 그러나 기간제 근로(6.6%),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6.2%), 파견근로(11.7%), 용역근로(12.8%), 특수근로(19.2%), 가정내 근로(22.6%)의 임금상승률은 정규직의 증가율을 상회

<표 1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

	2007. 3	2008. 3
임금근로자	172.4	181.1
정규직	198.5 (100.0)	210.4 (100.0)
정규 상용직	238.6 (120.2)	247.1 (117.4)
정규 임시직	121.1 (61.0)	125.8 (59.8)
정규 일용직	88.2 (44.4)	95.3 (45.3)
비정규직	127.3 (64.2)	127.2 (60.4)
한시적 근로	144.2 (72.6)	144.1 (68.5)
기간제	142.9 (72.0)	152.4 (72.4)
계약 반복갱신	192.5 (97.0)	195.6 (93.0)
계속근무 기대불가	96.0 (48.4)	102.0 (48.5)
시간제 근로	54.2 (27.3)	55.8 (26.5)
비전형근로	108.7 (54.8)	119.1 (56.6)
파견	132.5 (66.8)	148.1 (70.4)
용역	101.3 (51.0)	114.3 (54.3)
특수근로형태	136.1 (68.6)	162.3 (77.1)
가정내	59.6 (30.0)	73.1 (34.7)
일일	89.3 (45.0)	90.0 (42.8)

- 정규직과 비교한 상대 임금수준을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작년 3월 (97.0%) 보다 0.4%p 감소한 93.0% 수준을 기록함.
 - 기간제 근로(72.4%, 3.2%p), 파견근로(70.4%, 8.3%p), 용역근로(54.3%, 7.2%p), 특수근로(77.1%, 16.6%p), 가정내 근로(34.7%, 8.9%p)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증가한 반면,
 - 시간제근로(26.5%, -0.4%p), 일일근로(42.8%, -2.1%p)에서는 감소함.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월평균 임금 격차의 확대는 모든 규모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큰 폭으로 진행됨.
 -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은 2.1%를 기록하였으나 정규직 6.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임금 수준도 2007년 65.8%에 비해 2008년 63.2%로 임금격차가 확대
 - 100~299인 사업체에서는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5.3%인 반면, 비정규직은 -3.3%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임금도 감소하였고, 임금수준도 2007년 74.2%에서 2008년 68.1%로 낮아짐.
 -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하락이 가장 커 -4.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4.3%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에따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크게 낮아져 70.4% 수준을 보임.

<표 18>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3월 기준, 정규직=100)

(단위 : %)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근로	가정내	일일		
2007	1- 99	65.8	73.2	72.3	99.5	54.5	30.3	60.7	73.3	56.6	76.0	33.9	50.8
	100-299	74.2	77.1	77.0	87.5	45.0	32.0	60.0	66.3	50.3	72.2	30.2	40.4
	300-	76.8	79.2	76.1	94.0	29.5	22.0	51.6	52.0	46.5	60.3	23.8	66.7
	전체	64.2	72.6	72.0	97.0	48.4	27.3	54.8	66.8	51.0	68.6	30.0	45.0
2008	1- 99	63.2	70.5	74.4	91.4	55.1	29.7	62.7	78.4	60.4	85.4	35.3	48.4
	100-299	68.1	70.1	71.2	91.7	35.9	25.5	64.6	62.1	54.6	97.7	51.9	30.8
	300-	70.4	73.7	73.3	96.0	30.8	20.5	49.8	57.7	44.4	53.3	45.4	25.2
	전체	60.4	68.5	72.4	93.0	48.5	26.5	56.6	70.4	54.3	77.1	34.7	42.8

□ 시간당 임금

-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3월에 비해 -0.8% 감소하여 정규직의 임금 증가율 7.9%를 하회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2007년 73.2%에 비해 2008년 67.3%로 하락
 - 정규직에 비해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한 비정규 근로형태는 특수근로(14.0%), 가정내 근로(13.0%), 용역 근로(12.0%), 파견근로(8.5%)이고, 기간제 근로(6.7%), 계약 반복갱신에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한시적 근로(3.2%)에서 소폭 증가함.
 - 반면, 시간제 근로(-6.7%),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0.6%)는 전년대비 임금이 감소함.

<표 19>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1~3월 평균)

(단위 : 천원, %)

	2007. 3	2008. 3
임금근로자	9.1	9.6
정규직	10.1 (100.0)	10.8 (100.0)
정규 상용직	12.4 (123.1)	13.0 (120.1)
정규 임시직	5.5 (55.2)	5.8 (53.2)
정규 일용직	4.1 (41.2)	4.5 (41.4)
비정규직	7.4 (73.2)	7.3 (67.3)
한시적 근로	7.8 (77.7)	7.8 (71.9)
기간제	7.9 (78.2)	8.4 (77.4)
계약 반복갱신	9.9 (98.0)	10.2 (93.7)
계속근무 기대불가	5.2 (51.8)	5.2 (47.7)
시간제 근로	7.3 (72.9)	6.8 (63.1)
비전형근로	6.1 (60.4)	6.5 (60.4)
파견	6.9 (68.5)	7.5 (68.9)
용역	4.9 (48.5)	5.5 (50.4)
특수근로형태	8.0 (80.0)	9.2 (84.5)
가정내	4.5 (44.6)	5.1 (46.7)
일일	5.4 (53.4)	5.4 (50.2)

○ 시간당 임금에서도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은 전년 3월 대비 모든 규모에서 하락하여 임금격차가 확대됨

<표 20>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수준 추이(3월 기준, 정규직=100)

(단위 : %)

		비정 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근로	가정내	일일		
2007	1- 99	77.3	79.2	79.1	101.5	60.3	80.5	69.0	77.2	55.2	91.6	51.6	61.8
	100-299	82.5	83.7	85.7	89.3	42.0	110.9	61.1	65.6	46.3	76.6	48.7	53.0
	300-	80.2	82.3	80.8	91.5	25.9	74.9	51.6	51.6	45.2	62.0	24.7	59.2
	전체	73.2	77.7	78.2	98.0	51.8	72.9	60.4	68.5	48.5	80.0	44.6	53.4
2008	1- 99	72.6	74.9	80.5	94.8	55.5	70.9	69.0	78.1	57.4	96.7	51.9	58.4
	100-299	72.9	73.9	76.2	85.0	35.7	76.5	65.4	62.5	52.2	101.9	48.6	44.4
	300-	73.8	76.4	76.8	92.9	35.4	63.7	49.1	57.6	41.3	54.0	43.1	26.5
	전체	67.3	71.9	77.4	93.7	47.7	63.1	60.4	68.9	50.4	84.5	46.7	50.2

나.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 사회보험 가입

○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서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할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년 3월에 비해 3대 보험 가입률 모두 감소

- 국민연금 가입률은 -1.6%p, 의료보험 가입률은 -1.7%p, 고용보험 가입률은 -1.7%p, 감소하여 40%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
-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조건인 계약반복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가정내 근로 등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

<표 21>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기업복지 수혜율(3월 기준)

(단위 :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임금근로자	62.6	63.5	63.9	64.8	55.6	55.6
정규직	76.0	77.6	76.6	78.2	65.4	65.6
정규 상용직	98.8	98.2	99.3	98.3	83.2	81.4
정규 임시직	32.5	30.6	33.4	32.5	31.6	30.2
정규 일용직	9.1	8.4	8.2	9.4	8.0	7.4
비정규직	39.3	37.4	41.8	40.2	38.8	37.1
한시적 근로	55.8	54.8	58.9	58.4	54.9	53.9
기간제	57.4	63.9	61.2	67.9	56.5	63.0
계약 반복갱신	83.8	79.1	85.4	79.0	81.8	76.3
계속근무 기대불가	15.4	18.2	16.2	21.9	16.2	18.3
시간제 근로	2.3	6.4	3.3	7.9	2.4	6.0
비전형근로	22.0	24.2	26.0	28.4	22.3	25.7
파견	60.6	73.5	61.6	77.1	62.1	74.7
용역	56.1	58.5	70.9	74.0	57.2	63.5
특수근로형태	7.5	8.0	7.8	6.4	6.8	7.7
가정내	3.3	16.3	3.3	17.2	2.7	16.4
일일	0.9	0.7	1.0	1.3	1.2	1.9

<표 22>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추이(3월 기준)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반복갱신
국민연금	2007	1- 99	54.5	32.7	79.2
		100-299	88.5	72.2	92.2
		300-	95.4	83.1	98.6
	2008	1- 99	55.5	31.6	72.7
		100-299	90.5	72.9	93.3
		300-	94.8	79.8	100.0
건강보험	2007	1- 99	56.0	35.4	81.3
		100-299	89.4	73.9	92.7
		300-	95.8	84.5	98.6
	2008	1- 99	57.1	34.5	72.6
		100-299	91.0	73.9	93.3
		300-	95.2	81.7	100.0
고용보험	2007	1- 99	48.9	32.5	77.4
		100-299	78.2	71.6	90.6
		300-	82.0	78.9	95.0
	2008	1- 99	49.6	31.7	70.6
		100-299	77.3	72.5	88.6
		300-	78.3	74.9	94.9

□ 기업복지 수혜율

○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남.
-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 중 퇴직금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상여금은 -3.9%p, 시간외수당은 -4.2%p, 유급휴가는 -1.5%p 감소
- 계속 근무가 기대 불가능한 한시적 근로자와 파견근로, 특수근로, 가정내 근로에서 기업복지 수혜율이 증가

<표 23>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3월 기준)

(단위 : %)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임금근로자	55.9	60.0	55.5	55.8	43.2	42.6	48.0	51.0
정규직	68.9	74.3	69.5	71.2	54.3	54.9	59.9	64.6
정규 상용직	99.1	99.2	97.9	96.6	78.2	75.6	85.8	87.9
정규 임시직	9.1	16.2	13.7	11.3	6.7	5.3	9.0	9.9
정규 일용직	2.3	2.4	4.5	4.1	6.5	4.2	0.9	0.7
비정규직	33.7	33.7	31.4	27.5	24.3	20.0	27.3	25.8
한시적 근로	48.4	48.7	44.9	40.5	34.4	29.1	39.4	38.5
기간제	51.1	58.7	46.3	47.8	35.2	34.9	41.9	46.4
계약 반복갱신	74.3	75.2	72.8	75.5	57.2	48.5	58.7	65.7
계속근무 기대불가	4.3	9.0	5.4	6.4	4.3	4.7	3.4	5.1
시간제 근로	1.4	4.9	3.1	4.8	2.2	2.7	2.3	2.7
비전형근로	18.9	25.2	15.4	17.0	12.2	13.5	12.8	16.1
파견	50.3	72.0	42.4	53.5	37.6	44.3	39.4	54.1
용역	52.8	63.5	39.7	39.2	33.0	30.9	33.2	38.2
특수근로형태	3.9	6.5	4.7	5.0	1.6	2.1	3.5	3.9
가정내	1.1	17.0	1.4	16.3	0.2	13.7	1.3	14.5
일일	0.2	1.0	0.9	0.8	1.2	1.5	0.1	0.1

다.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율

○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인 24.5%임

- 2007년 8월 조사부터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설문이 변경됨에 따라 2007년 3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없음.
-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경험은 정규직의 28.4%에 비해 낮은 17.5%를 기록
- 고용형태별로 보면 특수근로형태에서 교육·훈련 경험 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표 24> 근로형태별 교육훈련 참여율

(단위 : %)

	2008. 3
임금근로자	24.5
정규직	28.4
비정규직	17.5
한시직	19.0
기간제	22.1
계약 반복 갱신	26.3
계속 근무 기대 불가	7.0
시간제	7.9
비전형	18.3
파견	29.8
용역	14.6
특수근로형태	44.7
가정내	4.2
일일	1.5

라. 일자리 선택과 동기

□ 선택 동기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와 사유

○ 비정규직 중 자발적 취업은 58.0%임.

- 일자리 선택 동기 관련 설문은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형태에 대한 문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소 변경됨에 따라 2007년 3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없음.
- 한시적 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비정규직 선택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선택 사유는 ‘근로조건 만족’이 많았음.
 - 특수고용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서는 ‘근로조건에 만족’,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높게 나옴.
 -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와 ‘학업·학원·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발적인 비정규직은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자발적 비정규직 비중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자발적 비정규직 비중이 76.7%에 이룸.

-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한시적 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자의 자발적 비중이 97.4%에 이룸
- 반면, 한시적 근로자 중 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의 자발적 선택은 10%를 상회하는 낮은 수준임.

<표 25> 고용형태별 일자리 선택 동기(2008년 3월)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고용	가정내	일일		
자발적 사유	74.1	42.0	49.3	58.0	77.5	13.3	40.5	30.8	61.2	45.4	35.5	33.4	9.1
근로조건 만족	(41.7)	(39.7)	(45.3)	(46.0)	(45.7)	(34.3)	(21.7)	(40.6)	(47.7)	(53.9)	(20.2)	(54.9)	(26.1)
안정된 일자리	(50.3)	(27.9)	(35.5)	(35.9)	(43.7)	(14.0)	(3.6)	(21.9)	(33.9)	(33.3)	(6.8)	(19.1)	(5.2)
경력쌓아 직장 이동	(4.7)	(6.6)	(7.8)	(8.3)	(3.9)	(8.2)	(3.8)	(4.3)	(9.1)	(5.4)	(1.8)	(1.0)	(1.8)
육아·가사 병행	(0.3)	(6.9)	(3.3)	(2.0)	(3.3)	(20.7)	(26.1)	(6.0)	(1.5)	(0.7)	(8.7)	(15.7)	(20.8)
학업·학원·직업훈련 병행	(0.2)	(6.5)	(2.8)	(2.7)	0.0	(8.5)	(26.4)	(1.9)	(1.5)	(0.7)	(1.5)	(2.2)	(9.5)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어	(1.7)	(7.1)	(2.1)	(1.9)	(1.6)	(6.0)	(5.9)	(18.8)	(2.8)	(2.1)	(50.1)	(2.4)	(24.5)
근무시간 조절 가능	(0.6)	(4.0)	(1.9)	(1.5)	(1.0)	(7.7)	(11.2)	(5.5)	(2.1)	(2.5)	(10.7)	(3.7)	(10.4)
기타	(0.5)	(1.2)	(1.4)	(1.5)	(0.8)	(0.6)	(1.4)	(1.0)	(1.5)	(1.3)	(0.1)	(1.0)	(1.6)
비자발적 사유	25.9	58.0	50.7	42.0	22.5	86.7	59.5	69.2	38.8	54.6	64.5	66.6	90.9
당장 수입 필요	(60.8)	(65.7)	(65.5)	(62.6)	(57.6)	(70.5)	(56.4)	(69.7)	(69.7)	(76.3)	(48.7)	(58.8)	(79.2)
원하는 일자리 없어서	(16.6)	(12.6)	(13.4)	(14.4)	(18.0)	(11.6)	(9.9)	(11.7)	(16.1)	(14.1)	(12.4)	(5.3)	(9.7)
경력맞는 일자리 없어서	(5.0)	(3.3)	(3.9)	(4.2)	(3.7)	(3.6)	(2.8)	(2.7)	(4.0)	(2.0)	(3.8)	(4.4)	(2.4)
경력쌓아 직장이동	(10.1)	(4.1)	(6.0)	(7.1)	(6.0)	(4.3)	(4.1)	(1.9)	(6.9)	(3.1)	(2.1)	0.0	(1.0)
육아·가사 병행	(2.5)	(3.8)	(3.1)	(3.5)	(5.9)	(2.4)	(9.4)	(3.6)	(1.8)	(1.0)	(6.2)	(23.2)	(1.9)
학업·학원·직업훈련 병행	(1.3)	(3.1)	(3.1)	(3.1)	(1.9)	(3.1)	(9.6)	(0.9)	(1.0)	(0.8)	(0.4)	0.0	(1.2)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어	(2.3)	(4.9)	(3.4)	(3.6)	(4.2)	(2.9)	(1.5)	(7.1)	(0.6)	(2.0)	(22.0)	(4.1)	(2.4)
근무시간 조절 가능	(1.0)	(2.2)	(1.1)	(1.0)	0.0	(1.5)	(5.6)	(2.1)	0.0	(0.4)	(4.4)	(3.1)	(1.8)
기타	(0.4)	(0.4)	(0.5)	(0.5)	(2.7)	(0.3)	(0.7)	(0.3)	0.0	(0.2)	0.0	(1.0)	(0.4)

주 : ()는 고용형태별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별 구성비임

<표 26> 사업체규모별·근로형태별 자발적 선택 동기의 비중(3월 기준)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근로	가정내	일일		
2008	1- 99	66.9	37.5	43.4	52.3	72.3	13.1	40.0	29.0	59.5	43.3	35.5	26.7	9.0
	100-299	91.6	68.2	70.7	74.2	83.7	16.6	56.2	59.7	63.9	71.3	39.6	89.7	23.7
	300-	97.0	76.7	78.3	79.7	97.4	16.2	37.4	62.4	87.7	59.1	28.1	91.4	0.0
	전체	74.1	42.0	49.3	58.0	77.5	13.3	40.5	30.8	61.2	45.4	35.5	33.4	9.1

마. 비정규직과 주5일제

- 주40시간(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중은 전년 3월 대비 정규직이 6.7%p 증가한 48.0%, 비정규직은 1.3%p 증가한 31.3%를 기록함.

<표 27> 근로형태별 주5일제 실시 비중 추이

(단위 : %)

	2007.3	2008.3
임금근로자	37.1	42.1
정규직	41.3	48.0
비정규직	30.0	31.3
한시적	36.8	40.4
기간제	39.3	47.7
계약 반복 갱신	48.4	51.6
계속 근무 기대 불가	10.1	13.9
시간제	19.8	14.0
비전형	19.1	24.6
파견	37.5	47.6
용역	20.3	30.7
특수근로형태	36.1	48.0
가정내	5.1	2.4
일일	1.1	1.2

바.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소폭 감소하여 2008년 3월 현재 4.2%를 기록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조 가입률의 격차는 주로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 때문이며,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정규직이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있는 경우는 2007년 3월 28.0%에서 2008년 3월 30.0%로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3월 15.5%에서 2008년 3월 15.4%로 감소함.
- 사업장에 노조가 있으면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 노조 가입률은 비정규직이 63.3%로 전년 3월 대비 1.8% 증가하였고 정규직이 69.8%로 1.5% 증가
- 비정규직의 가입성향이 정규직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조 가입성향 자체가 비정규직이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28>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

(단위 : %)

	2007.3				2008.3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가입대상 아님	미가입	가입		가입대상 아님	미가입	가입
임금근로자	76.6	6.5	5.5	11.3	75.2	7.3	5.4	12.1
정규직	72.0	5.8	7.1	15.2	70.0	6.5	7.1	16.4
비정규직	84.5	7.9	2.9	4.7	84.6	8.8	2.4	4.2
한시적	79.2	9.8	4.2	6.8	78.0	12.2	3.6	6.2
기간제	78.0	11.3	4.6	6.1	74.5	14.7	4.0	6.8
계약 반복 갱신	71.9	7.9	5.7	14.5	63.3	10.5	9.2	17.0
계속 근무 기대 불가	94.4	3.5	0.2	1.9	93.7	4.7	0.4	1.3
시간제	93.5	6.0	0.3	0.2	90.7	8.4	0.5	0.3
비전형	91.5	5.2	1.2	2.1	91.6	4.7	1.2	2.6
파견	81.8	10.1	3.4	4.8	82.2	7.5	4.3	6.1
용역	86.6	5.1	3.1	5.2	87.0	5.7	1.8	5.5
특수고용	90.0	8.2	0.6	1.2	89.8	6.7	1.1	2.4
가정내	98.0	2.0	0.0	0.0	98.5	1.5	0.0	0.0
일일	98.1	1.9	0.0	0.0	97.0	2.4	0.4	0.2

7. 요약과 시사점

- 최근 임금 일자리 성과의 부진이 비정규직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기간제 고용은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기존 기간제의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신규 채용의 감소에 기인함
 - 임시직의 감소 또한 정규 임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 임시직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라고 볼 수 없음.
 - 최근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고, 특히 100인 미만 기업과 일부 100~299인 기업에서 두드러진 것은 내수 부진 및 경기 하강 우려에 따라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데 주로 기인함.
 -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으로 고용형태간 대체 또는 전환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는 감소하였지만, 절반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고용형태로 전환하였으며
 - 계속 근무 기대가 어려운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주로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따른 결과로 보임.
 - 즉, 비정규 고용 구성의 악화는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및 생산비의 증가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주저할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시에도 근로조건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일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었지만, 평균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는 근로조건이 나쁜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는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 사업장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복지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등을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II.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1. 분석의 개요

-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는 비정규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08년 8월 조사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이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어, 2007.7.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된 비정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됨.
 - 차별시정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 부문에서, 2008년 7월부터 10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됨.
-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기간의 제한 및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고용 규모, 고용 구성,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할 것임.
 - 2009년 7월부터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고용을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하게 되는 사용기간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선제적으로 해고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로 나누어 고용변동을 살펴 봄. 즉, 비정규직법이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용변동이 주로 신규 채용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함

- 차별시정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체 규모별(5~99인, 100~299인, 300인 이상)로 비정규직 규모 및 구성의 변화를 분석함.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이미 시행된 대규모 사업체와 중규모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변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기존의 비정규직에서 고용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웃하는 두 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개인별로 결합함으로써 근로자가 경험하는 1년간 노동이동을 추적하여 분석함. 특히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기존의 비정규직이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전환하였는지, 아니면 더 나은 고용형태로 상향 이동하였는지를 분석함.
- 통계청에서는 가구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년월 및 인적 특성 정보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함.
 - 비교를 위하여 2005.8~2006.8, 2006.8~2007.8, 2007.8~2008.8 패널자료를 구성함.
 - 가구식별번호를 사용하여 구성한 연간 패널자료의 표본 유지율이 50% 내외인 데 비해 가구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연간 패널자료의 표본 유지율이 26.7~39.3%에 그치므로,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다만, 2007.3~2008.3 패널자료는 표본 유지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비슷한 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

2.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조사 이래 최대 규모인 479천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규 상용직이 급증하였음.
- 반대로 비정규직은 8월 기준 변동폭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258천명 감소함.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 8월에 비해 2.1%p 하락한 33.8%를 기록함.
-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증가, 임시 및 일용직의 감소가 함께 진행됨.

○ 비정규직 감소는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함.

- 한시적 근로자는 258천명 감소하여 최대의 감소폭 기록함
 - 2004년 8월 정점에 이르렀던 기간제는 전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함(-166천명).
 -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조건을 보이는 '근로계약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자'는 큰 폭의 감소(-181천명)로 반전함
 - 반면 근로조건이 낮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는 89천명 증가함.
- 시간제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27천명을 기록함.
- 비전형 근로자는 감소로 반전됨.
 - 가정내, 특수형태근로, 파견(-35천명), 일일 근로가 감소하였으며, 용역 근로(48천명) 증가함

○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근로조건은 하락함.

- 기간제를 포함한 주요 비정규 고용형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금 수혜율은 개선되었지만, 임금수준은 개선되지 못함.

<표 2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규모>							
임금근로자	14,032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정규직	10,191	9,542	9,190	9,486	9,894	10,180	10,658
(정규 상용직)	6,050	6,184	6,088	6,413	6,639	6,931	7,498
(정규 임시직)	3,417	3,100	2,844	2,803	2,926	2,936	2,806
(정규 일용직)	724	259	258	269	329	313	354
비정규직	3,841	4,606	5,394	5,482	5,457	5,703	5,445
한시직	2,063	3,013	3,597	3,614	3,626	3,546	3,288
(기간제)	1,536	2,403	2,491	2,728	2,722	2,531	2,365
(계약 반복)	281	248	580	302	465	555	374
(단기 기대)	247	362	526	585	439	460	549
시간제	808	929	1,072	1,044	1,135	1,201	1,229
비전형	1,742	1,678	1,948	1,907	1,933	2,208	2,137
(파견)	94	98	117	118	131	174	139
(용역)	332	346	413	431	498	593	641
(특수형태근로)	772	600	711	633	617	635	595
(가정내)	235	166	171	141	175	125	65
(일일)	412	589	666	718	667	845	818
<증감>							
임금근로자		116	436	384	383	531	221
정규직		-649	-352	295	409	285	479
(정규 상용직)		133	-96	325	226	291	567
(정규 임시직)		-317	-256	-41	123	10	-130
(정규 일용직)		-465	0	11	59	-16	41
비정규직		765	788	88	-26	246	-258
한시직		950	584	18	12	-80	-258
(기간제)		867	88	236	-6	-190	-166
(계약 반복)		-33	332	-278	164	90	-181
(단기 기대)		116	163	59	-146	20	89
시간제		121	143	-28	91	66	27
비전형		-64	270	-41	26	275	-71
(파견)		4	19	1	13	44	-35
(용역)		14	67	18	68	94	48
(특수형태근로)		-172	111	-78	-16	18	-40
(가정내)		-69	5	-30	34	-50	-60
(일일)		177	77	52	-51	179	-27

3. 고용형태별 규모 및 구성의 변화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변화

-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는 대부분의 사업체 규모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두드러짐
 - 비정규직 감소의 39.7%, 기간제 감소의 44.2%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발생함.
 - 한편 비정규직 감소의 26.4%, 기간제 감소의 35.3%, 계약 반복갱신자 감소의 60.9%가 5~99인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함.
- 임금일자리 증가폭의 둔화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100~299인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임금근로자 증가로 반전됨.
 -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감소분이 정규직 증가분을 상회하여 임금일자리가 감소함. 특히 기간제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일일근로 및 가정내 근로가 감소함.
 - 5~99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의 감소 추세가 임금 일자리 증가폭의 둔화를 가져옴. 특히 계약의 반복갱신자와 기간제의 감소가 두드러짐
 -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정규직의 증가가 두드러짐.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갱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감소를 정규직 증가가 상회하여 임금 일자리의 증가를 압도함.
- 요약하자면, 첫째, 임금 고용성과의 부진은 주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함. 둘째, 비정규직 감소의 40% 내외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셋째,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정규직 증가가 비정규직 감소를 상회함으로써 임금일자리가 증가하였으며, 고용구성의 개선이 나타남.

<표 30>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7.8					2008.8				
	전체	1-4	5-99	100-299	300-	전체	1-4	5-99	100-299	300-
<규모>										
임금근로자	15,882	3,172	9,342	1,535	1,833	16,103	3,139	9,518	1,594	1,853
정규직	10,180	1,676	5,936	1,092	1,476	10,658	1,745	6,181	1,201	1,532
(정규 상용직)	6,931	380	4,117	1,004	1,429	7,498	423	4,469	1,111	1,495
(정규 임시직)	2,936	1,144	1,668	81	43	2,806	1,152	1,547	77	31
(정규 일용직)	313	151	152	7	3	354	170	165	13	6
비정규직	5,703	1,496	3,405	444	358	5,445	1,394	3,337	393	321
한시직	3,546	679	2,159	383	325	3,288	652	2,007	327	301
(기간제)	2,531	425	1,570	285	251	2,365	351	1,512	261	241
(계약 반복)	555	67	339	79	70	374	50	229	49	47
(단기 기대)	460	188	250	18	3	549	252	267	17	13
시간제	1,201	574	560	38	30	1,229	546	612	35	35
비전형	2,208	678	1,400	89	42	2,137	592	1,435	85	25
(과견)	174	41	108	15	10	139	30	90	15	4
(용역)	593	104	439	38	13	641	132	465	38	6
(특수형태근로)	635	137	456	29	13	595	97	455	31	12
(가정내)	125	95	28	1	2	65	51	13	0	2
(일일)	845	389	445	8	4	818	338	477	2	1
<증감>										
임금근로자	531	88	475	-25	-7	221	-33	176	58	19
정규직	285	28	289	-37	5	479	70	244	109	56
(정규 상용직)	291	1	273	1	16	567	43	352	107	66
(정규 임시직)	10	31	19	-30	-10	-130	7	-121	-3	-13
(정규 일용직)	-16	-3	-3	-7	-2	41	19	13	6	3
비정규직	246	60	186	12	-11	-258	-102	-68	-51	-37
한시직	-80	-100	-1	30	-9	-258	-27	-152	-56	-24
(기간제)	-190	-121	-76	9	-2	-166	-73	-59	-24	-10
(계약 반복)	90	19	53	18	0	-181	-17	-110	-30	-24
(단기 기대)	20	2	23	2	-7	89	64	17	-1	10
시간제	66	47	21	1	-3	27	-27	52	-3	5
비전형	275	84	210	-16	-2	-71	-86	35	-3	-17
(과견)	44	12	32	-5	4	-35	-11	-18	0	-6
(용역)	94	17	83	0	-5	48	29	26	0	-7
(특수형태근로)	18	0	28	-7	-3	-40	-39	-2	2	-1
(가정내)	-50	-49	0	-2	1	-60	-44	-15	-1	0
(일일)	179	101	78	-1	0	-27	-50	32	-6	-3

□ 근속년수별 비정규직 변화

- 최근 임금고용 성과의 둔화는 1년 이내 신규 취업 규모의 감소와 1년 이상 근속자 규모의 증가 둔화로 나눌 수 있음.
- 근속 1년 미만 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발생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감소폭이 더 큼.
 - 특히 기간제, 비전형, 정규 임시직의 신규 채용 감소가 두드러짐.
 - 기간제의 신규 채용 감소는 전년에 이어 지속됨.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시직의 감소가 최근 두드러지는데, 정규 임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 임시직이 증가함. 따라서 임시직 감소가 비정규직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용역을 제외한 비전형근로의 신규 채용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
- 근속 1년 이상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 상용직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감소함.
 - 근속 1년 이상의 계약 반복갱신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근속 1년 이상의 정규 임시직이 감소하여 경기 악화의 영향이 나타남.
 - 근속 1년 이상의 기간제(-55천명)가 감소함. 근속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 감소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임.
- 요약하자면, 첫째, 지난 3월의 부가조사결과와는 달리 임금고용 성과의 부진에는 신규 채용 감소 이외에 재직근로자 규모의 증가 둔화도 작용함.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신규 채용이 감소하여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감소뿐만 아니라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셋째, 근속 1년 이상의 계약 반복갱신자와 기간제가 감소함.

<표 31> 근속계층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7.8			2008.8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1년 미만	1년 이상
<규모>						
임금근로자	15,882	6,099	9,783	16,103	6,014	10,090
정규직	10,180	2,883	7,296	10,658	2,857	7,801
(정규 상용직)	6,931	1,136	5,795	7,498	1,152	6,347
(정규 임시직)	2,936	1,488	1,448	2,806	1,426	1,381
(정규 일용직)	313	259	54	354	280	74
비정규직	5,703	3,216	2,487	5,445	3,157	2,288
한시직	3,546	1,721	1,825	3,288	1,658	1,630
(기간제)	2,531	1,291	1,240	2,365	1,180	1,185
(계약 반복)	555	123	432	374	116	258
(단기 기대)	460	307	152	549	362	187
시간제	1,201	912	290	1,229	925	304
비전형	2,208	1,418	791	2,137	1,338	799
(과견)	174	82	92	139	59	80
(용역)	593	285	308	641	314	327
(특수형태근로)	635	286	349	595	233	362
(가정내)	125	92	33	65	48	17
(일일)	845	822	23	818	793	25
<증감>						
임금근로자	531	-21	552	221	-85	307
정규직	285	-55	340	479	-26	505
(정규 상용직)	291	-26	317	567	16	552
(정규 임시직)	10	-38	47	-130	-63	-67
(정규 일용직)	-16	9	-24	41	20	21
비정규직	246	34	212	-258	-59	-199
한시직	-80	-230	149	-258	-63	-195
(기간제)	-190	-249	59	-166	-111	-55
(계약 반복)	90	7	83	-181	-7	-174
(단기 기대)	20	13	8	89	55	34
시간제	66	68	-2	27	13	14
비전형	275	176	100	-71	-80	8
(과견)	44	15	29	-35	-24	-12
(용역)	94	28	66	48	29	19
(특수형태근로)	18	-3	21	-40	-54	14
(가정내)	-50	-27	-24	-60	-45	-15
(일일)	179	175	4	-27	-29	2

□ 근속년수별·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의 변화

- 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의 감소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가 임금근로자 신규 채용의 감소가 가장 크고(-61천명), 5~99인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감소(48천명)가 뒤를 이음.
 - 비정규직 신규 채용의 감소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이 소폭 증가함.
 - 기간제에 대한 신규 채용의 감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57천명), 5인 이상 사업장(-59천명)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의 신규 채용이 소폭 증가함.

-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됨.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감소가 두드러짐.
 - 정규 상용직을 중심으로 정규직이 큰 폭으로 증가함. 또한 정규상용직의 증가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주로 발생함.
 -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의 감소는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두드러짐.
 - 계약 반복갱신자 감소는 5~99인의 사업장에서 두드러짐.
 - 반면 중기업과 대기업에서는 기간제와 계약 반복갱신자가 감소함.

- 요약하면, 첫째, 경기 부진에 따라 신규 채용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신규 채용의 감소가 두드러짐. 둘째, 기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감소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음. 셋째, 5~99인 사업체에서 근속 1년 이상의 계약 반복갱신자와 정규 임시직 감소가 발생함. 넷째, 중규모과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 상용직의 증가와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갱신자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소한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갱신자의 노동이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32> 사업체규모별 1년 미만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7.8					2008.8				
	전체	1-4	5-99	100-299	300-	전체	1-4	5-99	100-299	300-
<규모>										
임금근로자	6,099	1,911	3,617	341	229	6,014	1,850	3,569	363	231
정규직	2,883	790	1,768	189	137	2,857	815	1,703	212	128
(정규 상용직)	1,136	90	796	139	111	1,152	89	797	162	104
(정규 임시직)	1,488	572	850	44	22	1,426	588	779	40	19
(정규 일용직)	259	127	122	6	3	280	137	127	11	5
비정규직	3,216	1,122	1,849	152	92	3,157	1,036	1,867	151	104
한시직	1,721	477	1,040	128	77	1,658	452	991	121	94
(기간제)	1,291	324	797	103	67	1,180	267	738	94	81
(계약 반복)	123	24	77	13	8	116	17	78	14	7
(단기 기대)	307	129	165	12	2	362	168	175	13	6
시간제	912	446	419	25	22	925	414	466	23	22
비전형	1,418	532	835	34	17	1,338	465	836	28	10
(과건)	82	21	54	5	2	59	16	39	2	2
(용역)	285	51	214	15	5	314	84	217	12	1
(특수형태근로)	286	88	184	8	6	233	52	163	11	6
(가정내)	92	70	22	0	0	48	40	8	0	0
(일일)	822	382	430	7	4	793	326	465	2	1
<증감>										
임금근로자	-21	14	54	-71	-18	-85	-61	-48	21	2
정규직	-55	-18	7	-42	-2	-26	25	-65	23	-9
(정규 상용직)	-26	-10	1	-20	3	16	-1	1	23	-8
(정규 임시직)	-38	-18	3	-18	-5	-63	16	-71	-4	-3
(정규 일용직)	9	10	3	-4	0	20	10	5	4	1
비정규직	34	32	48	-30	-16	-59	-86	17	-2	11
한시직	-230	-109	-91	-13	-17	-63	-25	-48	-7	17
(기간제)	-249	-120	-105	-14	-10	-111	-57	-59	-9	14
(계약 반복)	7	4	1	1	0	-7	-7	0	1	-1
(단기 기대)	13	7	13	0	-7	55	39	10	1	4
시간제	68	37	28	0	3	13	-32	47	-2	0
비전형	176	72	122	-17	-2	-80	-67	1	-7	-6
(과건)	15	5	16	-6	0	-24	-5	-16	-3	0
(용역)	28	-1	35	-2	-4	29	33	3	-3	-4
(특수형태근로)	-3	-5	8	-6	1	-54	-36	-21	3	0
(가정내)	-27	-30	4	-1	0	-45	-30	-14	0	0
(일일)	175	104	71	-1	0	-29	-56	35	-6	-3

<표 33> 사업체규모별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7.8					2008.8				
	전체	1-4	5-99	100-299	300-	전체	1-4	5-99	100-299	300-
<규모>										
임금근로자	9,783	1,260	5,724	1,194	1,604	10,090	1,289	5,949	1,231	1,621
정규직	7,296	886	4,169	902	1,339	7,801	931	4,478	989	1,404
(정규 상용직)	5,795	290	3,321	865	1,318	6,347	334	3,672	949	1,391
(정규 임시직)	1,448	572	818	37	21	1,381	564	768	38	12
(정규 일용직)	54	24	29	0	0	74	33	38	2	1
비정규직	2,487	374	1,556	292	265	2,288	358	1,471	242	217
한시직	1,825	202	1,120	255	248	1,630	200	1,016	206	207
(기간제)	1,240	101	773	182	185	1,185	84	773	167	161
(계약 반복)	432	42	262	66	62	258	32	151	35	39
(단기 기대)	152	59	85	6	1	187	84	92	4	7
시간제	290	128	141	13	9	304	132	147	12	13
비전형	791	146	566	54	25	799	127	599	58	15
(과건)	92	20	54	10	8	80	14	51	13	2
(용역)	308	53	225	23	7	327	49	248	26	5
(특수형태근로)	349	48	272	21	8	362	46	291	19	6
(가정내)	33	25	6	1	2	17	11	5	0	2
(일일)	23	7	15	1	0	25	13	12	0	0
<증감>										
임금근로자	552	74	420	47	11	307	28	224	37	17
정규직	340	46	282	5	7	505	44	310	86	65
(정규 상용직)	317	10	273	21	13	552	44	351	84	73
(정규 임시직)	47	49	15	-13	-5	-67	-9	-50	1	-10
(정규 일용직)	-24	-13	-6	-4	-2	21	9	8	2	1
비정규직	212	28	138	42	5	-199	-16	-85	-49	-48
한시직	149	9	90	43	7	-195	-2	-104	-48	-41
(기간제)	59	-1	29	23	8	-55	-16	0	-15	-24
(계약 반복)	83	15	51	17	0	-174	-10	-111	-31	-22
(단기 기대)	8	-4	10	2	0	34	24	7	-2	5
시간제	-2	10	-7	2	-6	14	4	6	0	5
비전형	100	12	87	0	0	8	-19	34	3	-10
(과건)	29	8	16	1	4	-12	-6	-3	3	-6
(용역)	66	18	48	1	-1	19	-4	23	3	-2
(특수형태근로)	21	5	21	-1	-3	14	-3	19	-1	-1
(가정내)	-24	-19	-4	-2	1	-15	-14	-1	-1	0
(일일)	4	-3	7	1	0	2	6	-3	-1	0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전환

□ 패널 자료의 구성

○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개인별로 결합함으로써 패널자료 구성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약 33천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고 있음. 동 조사는 횡단조사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표본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사된 개인들을 매칭할 경우 패널자료를 구성할 수 있음. 동 조사는 2005년부터 표본가구의 1/36을 매달 교체하는 연동 표본(rotating sampling)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에서 누락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할 수 있음

- 이웃하는 두 해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개인별로 결합함으로써 패널자료를 구성함. 비교를 위하여 2005.8~2006.8, 2006.8~2007.8, 2007.8~2008.8 패널자료를 구성함.

· 2005.8~2006.8 패널자료는 2005년 8월에 조사된 70,786명의 39.3%인 27,791명을 추적할 수 있었음.

· 2006.8~2007.8 패널자료는 2006년 8월에 조사된 70,552명의 38.8%인 27,400명을 추적할 수 있었음.

· 2007.8~2008.8 패널자료는 2007년 8월에 조사된 68,027명의 26.7%인 18,161명을 추적할 수 있었음.

○ 지난 1년간 규모가 크게 감소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반복갱신자의 1년 후 고용형태 전환을 분석함. 이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고용형태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근로조건이 더 낮은 고용형태로 전환하였는지를 살펴 봄.

- 고용형태간 전환에는 법제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므로, 전환 추이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함.

- 2007.8~2008.8 통계의 비교시점으로 2005.8~2006.8 기간을 선택함. 동 기간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이며,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기간제 근로의 1년 후 고용형태

- 비정규직법(기간제한, 차별시정) 시행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8~2006.8 기간과 2007.8~2008.8 기간을 비교함.

- 2007년 8월의 기간제 근로자가 1년 후에도 동일한 고용형태에 머무르는 비중은 57.4%로, 2005.8~2006.8 기간의 60.9%에 비해 감소함
 - 2007.8~2008.8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13.2%로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8~2006.8 기간의 12.4%에 비해 소폭 증가함.
 - 2007.8~2008.8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비전형 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중은 17.1%로서, 2005.8~2006.8 기간 동안의 13.0%에 비해 증가함. 특히 용역·파견 등의 간접 고용이 증가함.
 - 기간제 근로자가 실업과 비경활 등의 비취업 상태로 이동하는 비중은 16.8%로서, 2005.8~2006.8 기간 동안의 15.6%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요약하면, 첫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전환은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혼재되어 있음

<표 34> 기간제 근로자의 1년 후 고용형태 구성비

(단위 : %)

	2005.8 ~ 2006.8	2006.8 ~ 2007.8	2007.8 ~ 2008.8
정규직	12.4	12.0	13.2
(정규 상용직)	6.7	6.0	8.0
(정규 임시직)	4.6	4.6	4.3
(정규 일용직)	1.1	1.4	0.9
비정규직	67.7	70.4	66.2
한시적	63.4	60.9	60.3
(기간제)	60.9	58.2	57.4
(계약 반복 갱신)	1.4	1.1	1.8
(계속 근무 기대불가)	1.1	1.7	1.1
시간제	7.3	9.8	7.5
비전형	13.0	20.7	17.1
(파견)	1.3	1.3	2.1
(용역)	7.0	10.5	9.3
(특수형태근로)	2.1	2.6	2.1
(가정내)	1.1	0.9	0.5
(일일)	2.3	6.2	3.6
비임금근로자	4.4	3.3	3.8
실업	2.2	1.8	2.9
비경활	13.3	12.4	13.9

□ 계약 반복갱신자의 1년 후 고용형태

- ‘근로계약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자’가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중은 63.4%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높아진 것은 아님.
 - 비전형 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중은 8.9%로서,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에 소폭 증가하였음.
 - 비취업으로 전환하는 비중은 5.6%로서, 비정규직 법 시행 이전에 비해 감소함.

- 요약하면, 규모가 크게 감소한 계약 반복갱신자의 60% 내외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계약 반복갱신자의 고용형태에서 상향 이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없음.

<표 35> 계약 반복갱신자의 1년 후 고용형태 구성비

(단위 : %)

	2005.8 ~ 2006.8	2006.8 ~ 2007.8	2007.8 ~ 2008.8
정규직	68.7	57.3	63.4
(정규 상용직)	44.4	42.4	53.6
(정규 임시직)	23.2	14.4	8.9
(정규 일용직)	1.0	0.6	0.9
비정규직	15.2	35.6	26.0
한시적	13.6	29.4	19.6
(기간제)	3.5	8.2	12.8
(계약 반복 갱신)	8.1	20.1	6.0
(계속 근무 기대불가)	2.0	1.1	0.9
시간제	0.0	3.4	2.1
비전형	1.5	8.5	8.9
(파견)	0.0	2.3	1.3
(용역)	0.5	4.8	5.5
(특수형태근로)	1.0	1.1	2.1
(가정내)	0.0	0.0	0.0
(일일)	0.0	0.6	0.0
비임금근로자	2.5	2.3	5.1
실업	4.0	1.4	1.3
비경활	9.6	3.4	4.3

5. 고용형태별 근로조건의 변화

□ 월 평균 임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2007년 63.5%에 비해 2008년 60.9%로 그 격차가 증가

-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은 2007년 8월에 비해 1.6% 증가하여 정규직의 임금 증가율 5.9%보다 낮음.
- 지난 해 크게 개선되었던 기간제 근로의 상대 임금 수준 또한 소폭 하락하여, 정규직 대비 70.0%를 기록함.
- 정규직 대비 90%를 상회하여 정규직에 근접한 임금수준을 보인 계약반복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하여(-9.9%p) 87.1%의 수준을 보임.
- 비전형근로자 중 파견, 특수근로, 일일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소폭 상승한 반면, 용역과 가정 내 근로자는 감소를 경험함.

〈표 36〉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 천원, %)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임금근로자	1542.3	1593.3	1655.8	1745.5	1846.2
정규직	1771.4 (100.0)	1845.7 (100.0)	1908.2 (100.0)	2008.5 (100.0)	2127.3 (100.0)
정규상용직	2117.6 (119.5)	2199.0 (119.1)	2269.8 (118.9)	2396.6 (119.3)	2506.9 (117.8)
정규임시직	1114.0 (62.9)	1135.3 (61.5)	1198.7 (62.8)	1213.9 (60.4)	1260.7 (59.3)
정규일용직	852.8 (48.1)	827.7 (44.8)	921.4 (48.3)	867.9 (43.2)	956.0 (44.9)
비정규직	1151.8 (65.0)	1156.4 (62.7)	1198.2 (62.8)	1276.0 (63.5)	1295.9 (60.9)
한시적	1231.7 (69.5)	1240.3 (67.2)	1313.0 (68.8)	1440.3 (71.7)	1457.8 (68.5)
기간제	1187.4 (67.0)	1258.2 (68.2)	1292.6 (67.7)	1418.8 (70.6)	1489.4 (70.0)
계약 반복 갱신	1704.3 (96.2)	1692.3 (91.7)	1774.1 (93.0)	1949.0 (97.0)	1853.6 (87.1)
계속 근무 기대 불가	920.0 (51.9)	924.0 (50.1)	951.0 (49.8)	944.7 (47.0)	1052.0 (49.5)
시간제	539.0 (30.4)	522.3 (28.3)	550.6 (28.9)	560.9 (27.9)	573.8 (27.0)
비전형	1067.5 (60.3)	1080.6 (58.5)	1045.8 (54.8)	1111.9 (55.4)	1197.0 (56.3)
파견	1271.5 (71.8)	1316.0 (71.3)	1260.8 (66.1)	1341.3 (66.8)	1473.2 (69.3)
용역	922.4 (52.1)	948.1 (51.4)	932.9 (48.9)	1023.5 (51.0)	1083.3 (50.9)
특수근로형태	1390.5 (78.5)	1422.4 (77.1)	1321.9 (69.3)	1421.8 (70.8)	1553.4 (73.0)
가정내	563.7 (31.8)	566.8 (30.7)	596.4 (31.3)	568.4 (28.3)	486.5 (22.9)
일일	836.6 (47.2)	859.5 (46.6)	872.9 (45.7)	891.8 (44.4)	983.4 (46.2)

□ 시간당 임금

○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도 하락하였으며,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하락함.

-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8월에 비해 3.5% 증가하여 정규직의 임금증가율 7.9%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2007년 70.9%에 비해 2008년 68.0%로 하락
- 한시적 근로자 중 지난 해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개선된 기간제 근로의 상대 임금 수준은 소폭 하락하였고, 계약 반복갱신자의 상대적 시간당 임금 수준은 큰 폭으로 하락함

<표 37> 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 = 100)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상용직	122.3	122.2	121.9	122.1	120.5
정규임시직	57.1	54.8	56.3	54.2	52.7
정규일용직	44.4	40.8	44.6	38.9	40.8
비정규직	73.6	70.5	71.0	70.9	68.0
한시적	75.9	72.4	74.3	76.1	72.7
기간제	75.6	74.5	74.6	76.3	75.1
계약 반복 갱신	96.3	89.1	94.0	98.1	88.4
계속 근무 기대 불가	54.7	54.1	51.3	48.0	51.6
시간제	80.2	76.7	73.1	66.6	64.8
비전형	66.0	63.2	60.1	60.1	59.4
파견	78.0	76.1	66.3	70.8	71.3
용역	50.0	48.4	46.1	48.4	49.1
특수근로형태	86.1	83.2	81.4	79.9	79.7
가정내	43.1	47.8	42.9	34.9	36.4
일일	55.2	53.7	51.5	52.0	51.2

□ 사회보험 가입

- 지역 가입자를 제외하고서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장 규모에서 감소함.
 -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하였지만
 - 계약 반복갱신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소폭 감소함.

- 사회보험은 전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비정규직 중에 적용 제외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더 높을 것임.
 -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1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80시간 미만 파트타임이며,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파트타임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표 38>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59.5	61.4	62.6	63.2	64.3	61.3	61.9	63.2	64.4	65.6	52.1	53.1	54.6	55.3	56.8
정규직	72.5	75.7	76.1	76.3	77.3	73.8	75.9	76.1	76.7	78.0	61.5	63.8	64.7	64.3	65.8
정규상용직	96.5	98.0	98.1	98.7	98.1	97.2	98.3	98.3	99.3	98.5	79.7	81.3	82.5	81.8	81.7
정규임시직	26.9	31.1	33.3	30.5	30.5	29.8	31.0	33.0	30.9	32.1	27.4	29.0	30.6	28.9	30.5
정규일용직	6.4	10.8	13.2	8.9	6.4	7.0	8.5	9.4	6.5	7.1	7.6	8.6	9.1	7.5	8.5
비정규직	37.5	36.6	38.2	40.0	39.0	40.1	37.7	40.0	42.5	41.5	36.1	34.5	36.3	39.2	39.2
한시적	47.8	47.5	51.4	57.2	56.4	50.5	48.7	53.2	60.0	59.8	45.5	45.2	49.0	55.5	56.0
기간제	48.3	52.5	51.7	59.3	62.6	50.9	54.0	53.8	62.7	66.5	45.8	50.0	49.7	57.6	62.3
계약 반복 갱신	76.2	63.3	82.6	83.5	78.6	79.0	63.4	84.0	84.6	79.6	72.9	59.7	77.2	81.2	77.3
계속 근무 기대 불가	13.8	16.2	16.6	13.5	14.2	17.4	16.6	16.8	15.8	17.2	14.0	15.1	15.5	12.7	14.4
시간제	2.4	2.1	3.2	3.3	6.4	3.7	2.3	3.8	4.0	6.1	3.6	2.2	3.2	3.7	6.3
비전형	25.7	23.6	22.0	23.0	23.6	29.7	25.8	25.4	27.7	28.1	25.2	22.0	20.8	23.9	25.8
파견	62.8	60.0	66.5	66.2	70.5	66.0	61.0	66.3	67.4	71.9	63.7	59.6	65.1	67.9	72.2
용역	53.7	54.9	53.7	55.5	56.3	68.5	65.8	67.4	73.1	71.6	52.8	55.0	52.5	59.6	60.9
특수근로형태	26.1	21.2	10.0	9.1	6.9	28.0	20.8	9.7	8.7	6.4	24.1	16.8	7.7	7.9	7.5
가정내	13.7	1.4	2.1	1.3	1.6	14.8	0.6	1.3	1.3	0.9	13.8	1.4	1.3	1.3	1.6
일일	0.5	1.1	0.7	0.5	0.9	0.3	0.8	1.0	0.8	0.9	1.6	0.9	0.7	0.7	2.7

□ 기업복지 수혜율

-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혜 비중은 다소 높아졌지만, 다른 기업복지 수혜율은 감소함.
- 법·제도상 적용 제외자가 비정규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률은 다소 높아질 것임. 퇴직금 등은 1년 미만 근속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적용제외, 유급휴가 등도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제 근로자에는 적용이 제외됨.

<표 39>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

(단위 : %)

	퇴직금					상여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54.1	54.1	54.6	57.5	61.4	51.6	52.1	53.3	55.9	56.6
정규직	67.4	68.6	67.9	70.3	74.5	65.8	67.4	67.5	69.8	71.2
정규상용직	99.0	98.1	97.9	99.3	99.4	96.2	96.4	95.7	97.3	96.5
정규임시직	5.8	7.6	7.5	9.2	17.0	6.5	7.5	11.1	12.0	11.9
정규일용직	0.1	2.5	1.0	1.0	2.9	0.4	0.8	1.1	3.6	4.4
비정규직	31.3	28.8	30.3	34.8	35.6	27.5	25.5	27.7	31.1	27.9
한시직	40.1	38.3	41.7	50.1	51.7	35.2	34.2	38.4	44.8	41.1
기간제	41.2	43.8	43.0	52.9	57.9	35.0	38.9	38.5	46.0	45.3
계약 반복 갱신	70.7	58.4	70.5	75.7	76.3	66.5	54.3	69.2	72.4	66.7
계속 근무 기대 불가	1.1	2.0	3.1	3.9	8.1	1.2	1.8	5.3	5.0	5.6
시간제	2.0	1.8	1.6	1.9	3.7	1.8	1.8	2.0	3.1	3.6
비전형	21.5	16.8	16.2	20.6	24.3	17.8	13.4	12.6	15.6	14.9
파견	54.5	51.0	50.9	58.6	66.1	46.0	48.2	40.6	48.3	48.4
용역	47.9	44.3	47.2	55.4	60.5	35.9	30.5	34.1	38.0	36.1
특수근로형태	19.2	10.8	1.6	3.4	6.3	18.0	10.5	2.3	4.7	3.6
가정내	12.6	1.0	1.0	0.4	1.6	11.0	1.5	1.7	0.4	0.7
일일	0.2	0.1	0.1	0.3	0.4	0.0	0.1	0.5	0.8	0.0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43.4	43.6	42.4	43.3	42.4	45.8	45.0	43.7	49.8	52.8
정규직	55.8	56.6	53.9	54.2	53.5	58.2	58.0	55.0	61.7	65.4
정규상용직	81.2	80.6	76.9	76.9	73.8	83.7	82.2	77.3	86.6	88.6
정규임시직	6.2	6.7	7.1	5.9	5.6	8.8	7.8	10.2	9.4	11.6
정규일용직	3.8	3.1	3.9	4.4	4.6	2.9	2.0	2.2	0.8	1.9
비정규직	22.2	21.1	21.5	23.8	20.7	24.6	22.7	23.1	28.7	28.0
한시직	28.3	27.8	29.6	34.3	30.2	31.8	30.7	31.9	41.9	41.5
기간제	27.7	31.0	29.4	35.1	33.6	31.4	34.5	32.8	44.7	46.1
계약 반복 갱신	54.2	45.8	53.7	55.9	47.2	57.6	49.5	51.7	61.2	65.6
계속 근무 기대 불가	2.7	3.7	5.4	3.9	3.6	5.1	2.8	4.8	3.2	5.4
시간제	1.8	2.5	2.4	2.3	2.2	1.6	1.4	2.1	2.3	2.4
비전형	14.0	11.3	9.6	12.3	11.2	14.3	11.0	10.8	14.2	15.5
파견	34.6	37.2	35.9	42.2	43.1	43.4	40.2	38.9	45.3	49.9
용역	26.6	27.9	25.5	30.2	24.8	25.4	25.0	28.8	35.6	37.5
특수근로형태	13.9	7.1	0.9	1.7	1.5	15.0	8.6	2.1	3.5	4.0
가정내	9.0	0.9	1.0	0.0	0.7	11.2	1.0	0.4	0.4	1.6
일일	2.1	1.7	1.1	1.3	1.5	0.1	0.1	0.0	0.1	0.0

□ 직업훈련 참여율

○ 지난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8월 26.8%로 전년 8월에 비해 소폭 증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정규직의 30.4%에 비해 낮은 19.8%를 기록
- 고용형태별로 보면, 특수근로형태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49.5%를 기록한 반면, 계약 반복 갱신자의 참여율은 4.2%p 감소한 25.6%를 나타냄.

<표 40> 근로형태별 교육훈련 참여율

(단위 : %)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28.0	24.9	26.8
정규직	31.2	28.4	30.4
정규상용직	41.6	38.2	40.2
정규임시직	10.4	8.0	7.7
정규일용직	5.2	3.3	3.3
비정규직	22.2	18.6	19.8
한시적	23.7	21.3	21.2
기간제	23.8	22.5	23.8
계약 반복 갱신	37.9	29.8	25.6
계속 근무 기대 불가	7.6	4.5	7.1
시간제	11.3	8.6	8.4
비전형	21.9	18.1	20.6
파견	39.2	27.7	30.7
용역	14.5	16.3	14.3
특수근로형태	46.0	37.9	49.5
가정내	8.1	1.9	1.1
일일	2.4	2.1	2.5

□ 일자리 선택과 동기

○ 비정규직 중 비자발적 취업은 59.8%임.

- 일자리 선택 동기 관련 설문이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형태에 대한 문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소 변경됨에 따라 2007년 8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없음.
- 2008년 3월부터 자발·비자발 선택동기 설문에서 일자리 형태에 관한 것임을 강조 하기 위하여 문항에 ‘일자리 형태는 정규직 근로 혹은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와 같은 근로형태를 말함’이라는 단서를 추가적으로 명시함.
-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선택 동기는 정규직 72.6%, 비정규직 40.2%로 나타남.
- 한시적 근로자 중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비정규직 선택 비중이 70.8%로 높게 나타나며, 기간제 근로자는 55.6%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의 자발적 선택 비중은 8.7%에 불과함.
-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선택 사유는 ‘근로조건 만족’이 많았음.
- 특수고용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서는 ‘근로조건에 만족’,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높게 나옴.
- 시간제 근로자는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와 ‘학업·학원·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음.

<표 41> 고용형태별 일자리 선택 동기(2008년 8월)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 근무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고용	가정내	일일		
자발적 사유	72.6	40.2	49.5	55.6	70.8	8.7	32.3	26.9	55.7	43.8	26.7	18.1	6.6
근로조건 만족	(41.5)	(41.6)	(45.4)	(46.4)	(43.5)	(27.4)	(25.5)	(40.7)	(36.2)	(55.5)	(23.7)	(33.1)	(23.2)
안정된 일자리	(50.6)	(29.1)	(35.0)	(34.6)	(42.3)	(6.0)	(3.1)	(23.0)	(36.5)	(33.2)	(6.9)	0.0	0.0
경력쌓아 직장 이동	(4.4)	(8.1)	(9.2)	(9.7)	(7.4)	(5.7)	(5.8)	(5.0)	(14.8)	(4.8)	(1.5)	0.0	(2.7)
육아·가사 병행	(0.2)	(5.3)	(2.4)	(1.5)	(1.3)	(35.1)	(24.2)	(6.6)	(0.6)	(1.7)	(9.1)	(61.8)	(25.9)
학업·학원·직업훈련 병행	(0.4)	(5.3)	(2.6)	(2.7)	(1.0)	(9.3)	(23.5)	(2.4)	(6.0)	(0.6)	(0.9)	(2.9)	(10.9)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어	(1.7)	(5.8)	(2.3)	(2.0)	(2.5)	(9.0)	(3.8)	(16.6)	(1.0)	(1.9)	(47.5)	0.0	(26.4)
근무시간 조절 가능	(0.6)	(3.8)	(2.1)	(2.0)	(2.2)	(7.4)	(11.8)	(4.7)	(2.9)	(2.0)	(10.1)	0.0	(8.0)
기타	(0.5)	(1.0)	(0.9)	(1.2)	0.0	0.0	(2.4)	(0.8)	(2.1)	(0.3)	(0.2)	(2.1)	(3.1)
비자발적 사유	27.4	59.8	50.5	44.4	29.2	91.3	67.7	73.1	44.3	56.2	73.3	81.9	93.4
당장 수입 필요	(60.6)	(63.7)	(63.0)	(61.3)	(51.8)	(69.0)	(53.6)	(69.8)	(72.5)	(75.5)	(45.8)	(52.0)	(82.0)
원하는 일자리 없어서	(16.4)	(12.4)	(14.2)	(14.2)	(17.7)	(13.5)	(9.9)	(10.6)	(11.6)	(14.2)	(13.1)	(7.1)	(7.9)
경력맞는 일자리 없어서	(4.1)	(3.2)	(3.7)	(3.9)	(5.4)	(2.9)	(2.9)	(2.4)	(0.7)	(2.7)	(4.0)	(2.4)	(1.7)
경력쌓아 직장이동	(10.1)	(4.4)	(6.8)	(7.3)	(9.8)	(5.1)	(3.8)	(2.0)	(6.5)	(2.4)	(3.3)	(1.4)	(0.6)
육아·가사 병행	(2.2)	(4.1)	(3.1)	(3.0)	(4.5)	(2.8)	(10.2)	(3.3)	(1.8)	(1.2)	(6.5)	(22.6)	(1.8)
학업·학원·직업훈련 병행	(2.4)	(4.4)	(3.8)	(4.9)	(0.8)	(2.2)	(11.9)	(1.5)	(0.6)	(1.6)	(0.8)	(1.6)	(1.8)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어	(2.7)	(5.1)	(3.2)	(2.9)	(6.2)	(3.0)	(2.4)	(7.7)	(2.8)	(1.3)	(21.5)	(7.4)	(2.4)
근무시간 조절 가능	(0.9)	(2.2)	(1.6)	(1.7)	(2.5)	(1.4)	(4.5)	(2.4)	(1.0)	(0.6)	(4.7)	(5.5)	(1.7)
기타	(0.6)	(0.5)	(0.6)	(0.7)	(1.5)	(0.2)	(0.8)	(0.3)	(2.6)	(0.4)	(0.2)	0.0	(0.1)

주 : ()는 고용형태별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별 구성비임

□ 주5일제 근무

- 주 40시간(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중은 정규직이 51.4%, 비정규직이 36.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근로형태별로는 계약 반복갱신자의 주 5일제 비중은 정규직을 상회하며 전년에 비해 10.2%p 증가한 59.8%를 기록하였고, 파견, 특수근로형태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42> 근로형태별 주5일제 실시 비중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30.2	34.9	39.8	46.2
정규직	34.6	38.3	43.5	51.4
정규상용직	47.1	51.5	57.7	66.2
정규임시직	8.9	12.2	14.3	17.0
정규일용직	4.9	4.4	3.2	10.5
비정규직	22.6	28.8	33.1	36.2
한시직	26.4	33.1	40.8	45.5
기간제	30.0	34.3	43.8	49.9
계약 반복 갱신	29.9	44.9	49.6	59.8
계속 근무 기대 불가	7.9	13.2	13.5	17.0
시간제	12.1	20.6	22.6	18.1
비전형	16.9	20.1	23.2	28.1
파견	37.5	39.3	47.7	57.9
용역	17.8	18.3	25.4	31.2
특수근로형태	32.4	38.8	40.8	52.3
가정내	1.2	3.1	2.8	4.8
일일	0.0	1.0	2.2	1.3

□ 노조 가입률

○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2008년 8월 4.4%를 기록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조 가입률의 격차는 주로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 때문이며, 비정규직 중 유노조 사업장에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가입인 비정규직은 소폭 감소함.
- 정규직이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있는 경우는 2007년 8월 29.3%에서 2008년 8월 30.7%로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8월 16.7%에서 2008년 8월 16.4%로 감소함.
- 고용형태별로 보면, 계약반복갱신자의 2007년 8월 노조가입률은 정규직에 가까웠으나, 2008년 8월 3.5%p 감소하여 11.0%를 기록함

<표 43>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

(단위 : %)

	2006				2007				2008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가입 대상 아님	미가입	가입		가입 대상 아님	미가입	가입		가입 대상 아님	미가입	가입
임금근로자	77.0	6.6	5.1	11.3	75.2	7.1	5.7	12.1	74.2	7.6	5.5	12.7
정규직	72.2	6.1	6.6	15.1	70.7	6.1	7.2	16.0	69.3	6.6	7.1	17.0
정규상용직	61.9	7.2	9.2	21.7	59.8	7.3	10.3	22.6	58.8	7.8	9.8	23.6
정규임시직	93.3	3.6	1.2	1.9	93.7	3.6	0.7	2.0	94.5	3.3	0.7	1.5
정규일용직	94.4	3.8	0.6	1.1	95.3	3.7	0.4	0.6	92.4	6.1	1.1	0.4
비정규직	85.7	7.5	2.4	4.3	83.3	8.7	2.9	5.1	83.6	9.7	2.3	4.4
한시적	81.7	9.0	3.4	5.9	77.2	11.2	4.3	7.3	77.0	13.1	3.5	6.4
기간제	81.9	9.6	3.5	5.0	75.9	13.0	4.3	6.8	73.8	15.4	3.9	6.9
계약 반복 갱신	69.1	9.6	5.9	15.4	70.9	7.7	6.9	14.5	76.0	8.2	4.8	11.0
계속근무 기대불가	94.0	4.2	0.2	1.6	92.5	5.5	0.6	1.3	91.9	6.2	0.7	1.2
시간제	93.9	5.5	0.3	0.4	91.9	7.4	0.5	0.3	88.4	10.6	0.6	0.3
비전형	92.7	4.5	0.8	1.9	91.2	5.3	1.2	2.3	91.9	4.8	0.9	2.4
파견	85.1	6.7	2.4	5.7	83.2	7.8	4.0	5.0	80.8	9.4	2.7	7.1
용역	90.5	3.0	1.7	4.9	86.2	5.9	2.4	5.5	89.7	4.9	1.5	4.0
특수근로형태	90.1	8.5	0.5	0.8	89.8	8.1	0.7	1.5	90.7	6.5	0.9	1.9
가정내	97.8	2.0	0.0	0.2	99.5	0.5	0.0	0.0	98.4	1.6	0.0	0.0
일일	98.1	1.7	0.2	0.1	97.9	2.0	0.0	0.0	96.8	2.7	0.0	0.5

6. 요약과 시사점

□ 임금 일자리 부진은 주로 신규 채용 감소의 형태로 나타남

○ 임금 고용성과의 부진은 주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였으며,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임금 일자리가 증가함.

○ 신규 채용 감소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발생함. 기간제 신규 채용의 감소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의 신규 채용이 소폭 증가함.

- 다만, 중규모와 대규모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갱신자가 감소함

○ 임금 일자리 부진에는 경기적인 요인과 제도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므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비정규법 시행 이후 고용 구성의 변화가 진행됨

○ 기간제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하여 고용구조가 개선됨.

○ 최근 규모가 크게 감소한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갱신자가 근로조건이 더 낮은 고용형태로 전환한 것은 아님.

○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함.

□ 차별시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간 근로조건 격차는 지속·확대되어 옴

○ 주요 비정규 고용형태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상대적 근로조건은 다소 하락함.

- 근로조건 격차의 확대는 기간제 및 계약의 반복갱신자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는 구성 효과에 주로 기인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그다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가구조사의 특성상 임금이나 근로조건 정보의 신뢰도가 낮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사업체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하여야 함. 추후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근로형태간 임금격차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부 표

(각 년도 8월 기준)

<부표 1> 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9,542.2	9,190.3	9,485.7	9,894.4	10,179.6	10,658.4	67.4	63.0	63.4	64.5	64.1	66.2
성	남	5,996.3	5,756.2	5,946.6	6,204.0	6,328.3	6,667.3	72.4	67.8	68.5	69.6	68.5	71.2
	여	3,545.9	3,434.1	3,539.1	3,690.5	3,851.3	3,991.2	60.4	56.3	56.3	57.3	57.9	59.2
연령	15-29	2,797.3	2,653.7	2,604.6	2,606.2	2,589.8	2,519.0	68.3	65.0	65.0	67.0	66.5	67.1
	30-39	3,183.7	3,017.5	3,145.1	3,269.5	3,254.4	3,468.6	73.7	67.9	69.6	70.2	70.2	73.3
	40-49	2,336.6	2,297.0	2,395.0	2,563.0	2,702.7	2,882.0	68.9	64.1	63.7	65.9	65.9	68.4
	50-59	989.7	978.9	1,069.3	1,181.0	1,291.5	1,442.3	60.1	56.9	57.2	58.1	57.4	60.4
	60세 이상	235.0	243.2	271.7	274.7	341.2	346.5	34.1	32.2	33.4	31.0	34.1	34.3
학력	중졸이하	1,344.5	1,206.5	1,156.7	1,190.1	1,154.3	1,199.9	48.8	44.4	43.2	44.5	43.3	45.5
	고졸이하	4,166.1	3,991.1	4,088.8	4,177.0	4,164.7	4,172.9	66.5	62.4	61.8	63.5	62.5	63.2
	전문대졸	1,226.3	1,243.9	1,358.6	1,395.6	1,546.5	1,693.8	76.1	71.2	72.9	70.9	71.9	75.3
	대졸이상	2,805.4	2,748.9	2,981.7	3,131.8	3,314.1	3,591.8	79.7	73.9	75.3	75.9	75.2	77.8
산업	농림업	26.9	26.1	27.0	25.2	40.1	41.0	22.4	21.2	20.5	21.8	30.3	31.6
	어업	10.1	9.5	5.1	4.2	8.7	10.9	50.1	45.3	30.4	33.8	50.7	56.0
	광업	12.2	9.0	12.3	13.8	13.7	19.8	92.8	75.1	84.0	87.8	80.7	89.1
	제조업	2867.8	2752.4	2791.0	2757.1	2743.2	2,886.5	82.7	76.6	79.3	79.7	79.3	83.3
	전기가스수도업	67.2	52.7	55.1	63.6	67.8	80.6	88.2	76.9	80.8	85.0	88.1	90.8
	건설업	480.5	479.6	490.5	569.7	587.1	638.4	36.5	36.8	36.9	42.0	42.1	45.4
	도소매업	1206.2	1163.2	1197.8	1264.7	1291.7	1,260.0	67.6	63.9	64.7	67.3	66.5	66.6
	음식숙박업	617.5	610.1	575.8	662.2	718.1	709.7	60.6	57.4	51.6	60.2	61.1	62.1
	운수업	485.8	456.9	481.9	501.6	516.7	524.6	81.7	72.9	74.4	75.9	75.7	79.3
	통신업	158.4	156.0	179.0	194.3	178.7	161.9	75.4	71.2	74.0	75.9	77.6	76.7
	금융보험업	417.5	384.6	370.3	355.8	369.1	431.0	60.0	56.0	53.6	48.5	49.4	55.4
	부동산및임대업	163.4	148.4	187.9	179.1	182.3	181.6	63.4	56.2	59.6	61.1	61.3	63.2
	사업서비스업	618.5	588.4	641.7	691.8	758.5	770.8	52.2	45.4	46.5	45.8	43.6	44.4
	공공행정	608.1	587.7	610.2	621.6	603.7	650.5	80.4	77.5	78.2	76.2	75.5	76.0
	교육서비스업	808.0	747.3	781.3	839.5	876.4	934.8	68.8	62.8	63.1	63.7	65.7	66.6
	보건및복지업	397.3	405.8	429.5	474.0	502.0	573.6	79.6	73.3	73.3	74.8	73.7	73.5
오락문화업	139.9	143.0	173.2	184.4	179.2	210.4	57.5	57.3	56.9	55.8	57.6	58.8	
기타개인서비스업	408.5	429.8	427.8	454.1	476.1	499.4	74.3	70.6	72.4	71.4	71.2	70.7	
가사서비스업	33.8	22.9	25.4	23.2	51.9	57.3	23.7	21.7	20.9	17.9	32.5	40.8	
직업	고위직	200.5	194.9	224.2	221.4	260.0	283.0	82.8	82.4	85.9	83.4	82.4	86.7
	전문가	1,166.5	1,095.4	1,175.9	1,260.0	1,362.6	1,497.2	81.6	75.3	75.3	76.3	76.8	77.8
	준전문가	1,163.4	1,156.3	1,193.8	1,350.8	1,436.6	1,391.4	72.3	68.2	70.9	72.6	71.6	73.8
	사무종사자	2,387.5	2,249.7	2,343.8	2,300.2	2,328.2	2,620.5	81.8	75.6	77.1	75.8	75.7	78.8
	서비스종사자	893.5	879.2	898.0	939.1	966.7	1,048.2	60.3	58.3	55.4	59.5	60.8	63.7
	판매종사자	547.2	515.5	514.4	546.7	530.6	524.3	52.5	49.6	49.0	49.7	47.3	46.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2.3	18.9	17.7	18.3	26.7	30.0	46.1	33.8	29.6	36.9	38.3	54.6
	기능원	993.2	952.6	983.6	996.7	992.8	995.6	59.5	55.9	57.5	57.8	58.8	59.8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74.1	1,350.6	1,386.4	1,425.2	1,375.4	1,377.2	83.7	76.7	79.1	80.0	78.0	80.5
단순노무종사자	794.1	777.2	748.0	836.1	900.0	891.1	38.4	36.1	33.6	36.3	36.4	36.4	
규모	1-4	1,515.5	1,437.2	1,474.4	1,647.4	1,675.8	1,745.3	53.4	51.2	49.6	53.4	52.8	55.6
	5-9	1,424.3	1,404.0	1,477.5	1,582.6	1,666.7	1,698.5	61.5	57.4	59.5	61.5	61.8	60.9
	10-29	2,053.1	1,940.7	1,993.1	2,032.7	2,183.5	2,285.0	66.3	61.6	62.5	62.2	61.8	63.6
	30-99	1,954.0	1,913.3	1,960.5	2,032.4	2,086.3	2,197.3	71.3	66.5	66.7	67.2	67.0	70.1
	100-299	1,080.8	1,051.2	1,056.1	1,128.2	1,091.5	1,200.8	78.2	70.6	71.2	72.3	71.1	75.3
	300+	1,514.5	1,443.8	1,524.3	1,471.2	1,475.8	1,531.6	85.3	79.6	80.3	80.0	80.5	82.7
종사 상 지위	상용직	6,183.7	6,087.9	6,413.3	6,639.4	6,990.7	7,498.2	85.5	79.1	80.9	80.5	79.1	82.3
	임시직	3,099.9	2,844.2	2,803.1	2,926.5	2,936.0	2,806.4	63.6	59.1	57.5	58.3	58.2	56.5
	일용직	258.7	258.3	269.3	328.6	312.8	353.8	12.7	12.5	12.4	15.7	15.1	17.5
근속 년수	1년미만	2,784.5	2,616.7	2,630.4	2,938.2	2,883.3	2,857.0	48.0	45.5	44.7	48.0	47.3	47.5
	1-2년미만	1,328.2	1,389.3	1,320.3	1,372.4	1,505.9	1,427.6	70.5	62.5	64.7	64.9	64.9	65.1
	2-3년미만	733.2	800.3	909.4	838.6	881.6	1,001.0	73.2	67.1	67.2	68.7	66.6	71.5
	3년 이상	4,696.3	4,384.1	4,625.7	4,745.2	4,908.8	5,372.8	86.1	80.9	81.2	80.5	80.0	82.7

<부표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4,606.4	5,394.0	5,482.5	5,456.5	5,702.6	5,445.0	32.6	37.0	36.6	35.5	35.9	33.8
성	남	2,286.4	2,732.3	2,735.5	2,704.7	2,906.8	2,699.1	27.6	32.2	31.5	30.4	31.5	28.8
	여	2,320.0	2,661.7	2,747.0	2,751.9	2,795.8	2,746.0	39.6	43.7	43.7	42.7	42.1	40.8
연령	15-29	1,301.0	1,426.3	1,405.5	1,284.8	1,301.8	1,236.8	31.7	35.0	35.0	33.0	33.5	32.9
	30-39	1,136.5	1,428.7	1,370.7	1,385.2	1,382.7	1,264.3	26.3	32.1	30.4	29.8	29.8	26.7
	40-49	1,056.8	1,283.9	1,363.6	1,325.4	1,397.0	1,333.7	31.1	35.9	36.3	34.1	34.1	31.6
	50-59	657.6	742.8	800.1	850.6	960.4	945.9	39.9	43.1	42.8	41.9	42.6	39.6
	60세 이상	454.5	512.4	542.7	610.6	660.7	664.4	65.9	67.8	66.6	69.0	65.9	65.7
학력	중졸이하	1,411.9	1,510.0	1,519.4	1,487.0	1,511.2	1,438.3	51.2	55.6	56.8	55.5	56.7	54.5
	고졸이하	2,096.5	2,409.6	2,495.5	2,404.7	2,494.6	2,428.8	33.5	37.6	38.2	36.5	37.5	36.8
	전문대졸	385.2	504.2	505.7	572.0	603.5	554.6	23.9	28.8	27.1	29.1	28.1	24.7
	대졸이상	712.8	970.3	961.9	992.9	1,093.3	1,023.4	20.3	26.1	24.7	24.1	24.8	22.2
산업	농림업	92.9	97.0	104.7	90.4	92.4	89.0	77.6	78.8	79.5	78.2	69.7	68.4
	어업	10.1	11.4	11.6	8.3	8.5	8.6	49.9	54.6	69.6	66.2	49.3	44.0
	광업	0.9	3.0	2.4	1.9	3.3	2.4	7.2	25.0	16.1	12.2	19.3	10.9
	제조업	601.1	842.2	727.7	703.5	715.3	579.4	17.3	23.4	20.7	20.3	20.7	16.7
	전기가스수도업	9.0	15.9	13.1	11.2	9.2	8.2	11.8	23.1	19.2	15.0	11.9	9.2
	건설업	837.3	822.4	837.9	785.9	807.2	766.9	63.5	63.2	63.1	58.0	57.9	54.6
	도소매업	578.4	656.1	653.0	613.9	650.7	633.0	32.4	36.1	35.3	32.7	33.5	33.4
	음식숙박업	401.4	452.4	539.8	438.0	456.6	432.9	39.4	42.6	48.4	39.8	38.9	37.9
	운수업	108.8	169.9	165.4	159.4	165.6	137.0	18.3	27.1	25.6	24.1	24.3	20.7
	통신업	51.6	63.0	62.8	61.6	51.5	49.2	24.6	28.8	26.0	24.1	22.4	23.3
	금융보험업	277.9	302.2	321.1	378.6	378.8	346.5	40.0	44.0	46.4	51.5	50.6	44.6
	부동산및임대업	94.2	115.8	127.4	114.0	115.2	105.6	36.6	43.8	40.4	38.9	38.7	36.8
	사업서비스업	567.0	707.2	738.4	817.8	980.2	965.1	47.8	54.6	53.5	54.2	56.4	55.6
	공공행정	148.1	170.6	169.9	193.8	196.1	206.0	19.6	22.5	21.8	23.8	24.5	24.0
	교육서비스업	366.5	442.6	457.8	478.8	457.3	469.1	31.2	37.2	36.9	36.3	34.3	33.4
	보건및복지업	102.1	147.6	156.1	159.8	178.8	207.1	20.4	26.7	26.7	25.2	26.3	26.5
	오락문화업	103.3	106.4	131.4	145.8	131.7	147.4	42.5	42.7	43.1	44.2	42.4	41.2
기타개인서비스업	141.5	179.2	163.0	182.2	192.7	206.8	25.7	29.4	27.6	28.6	28.8	29.3	
가사서비스업	109.1	82.4	96.1	106.7	107.9	83.1	76.3	78.3	79.1	82.1	67.5	59.2	
직업	고위직	41.7	41.7	36.8	44.2	55.6	43.3	17.2	17.6	14.1	16.6	17.6	13.3
	전문가	262.2	359.6	386.2	391.2	411.9	427.4	18.4	24.7	24.7	23.7	23.2	22.2
	준전문가	445.2	540.2	489.2	509.9	570.9	495.2	27.7	31.8	29.1	27.4	28.4	26.2
	사무종사자	531.3	725.2	694.9	735.7	748.3	704.3	18.2	24.4	22.9	24.2	24.3	21.2
	서비스종사자	587.6	628.6	722.9	638.5	624.2	596.7	39.7	41.7	44.6	40.5	39.2	36.3
	판매종사자	494.5	524.6	535.4	552.6	591.3	595.3	47.5	50.4	51.0	50.3	52.7	53.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6.1	37.0	42.0	31.2	42.9	25.0	53.9	66.2	70.4	63.1	61.7	45.4
	기능원	675.7	751.8	726.8	728.0	696.8	668.8	40.5	44.1	42.5	42.2	41.2	40.2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67.0	409.6	367.0	357.0	387.0	333.8	16.3	23.3	20.9	20.0	22.0	19.5
단순노무종사자	1,275.1	1,375.6	1,481.5	1,468.4	1,573.7	1,555.3	61.6	63.9	66.4	63.7	63.6	63.6	
규모	1-4	1,322.1	1,371.6	1,499.5	1,436.4	1,496.0	1,393.7	46.6	48.8	50.4	46.6	47.2	44.4
	5-9	893.5	1,043.4	1,006.2	992.3	1,031.5	1,092.3	38.5	42.6	40.5	38.5	38.2	39.1
	10-29	1,041.8	1,209.5	1,193.3	1,234.8	1,347.5	1,308.3	33.7	38.4	37.5	37.8	38.2	36.4
	30-99	787.0	962.3	980.9	992.3	1,026.1	936.7	28.7	33.5	33.3	32.8	33.0	29.9
	100-299	301.0	437.5	427.8	432.1	443.9	393.0	21.8	29.4	28.8	27.7	28.9	24.7
	300+	261.0	369.8	374.8	368.7	357.6	321.0	14.7	20.4	19.7	20.0	19.5	17.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52.3	1,612.3	1,512.4	1,603.3	1,832.3	1,608.6	14.5	20.9	19.1	19.5	20.9	17.7
	임시직	1,771.8	1,969.0	2,075.8	2,091.7	2,108.2	2,163.6	36.4	40.9	42.5	41.7	41.8	43.5
	일용직	1,782.3	1,812.8	1,894.2	1,761.6	1,762.2	1,672.8	87.3	87.5	87.6	84.3	84.9	82.5
근속 년수	1년미만	3,020.7	3,135.1	3,249.2	3,181.7	3,215.8	3,156.9	52.0	54.5	55.3	52.0	52.7	52.5
	1-2년미만	555.9	834.5	721.2	742.5	814.6	765.2	29.5	37.5	35.3	35.1	35.1	34.9
	2-3년미만	269.0	391.6	444.5	381.3	441.8	399.1	26.8	32.9	32.8	31.3	33.4	28.5
	3년 이상	760.7	1,032.8	1,067.6	1,151.1	1,230.4	1,123.8	13.9	19.1	18.8	19.5	20.0	17.3

<부표 3>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013.3	3,597.0	3,614.5	3,626.4	3,546.3	3,288.0	65.4	66.7	65.9	66.5	62.2	60.4
성	남	1,582.3	1,915.9	1,864.0	1,914.3	1,921.7	1,700.8	69.2	70.1	68.1	70.8	66.1	63.0
	여	1,431.1	1,681.1	1,750.5	1,712.0	1,624.6	1,587.2	61.7	63.2	63.7	62.2	58.1	57.8
연령	15-29	955.5	1,068.2	1,056.8	988.9	939.3	863.6	73.4	74.9	75.2	77.0	72.1	69.8
	30-39	722.2	942.8	902.5	945.2	924.5	813.3	63.6	66.0	65.8	68.2	66.9	64.3
	40-49	646.1	802.8	841.6	800.4	776.4	718.1	61.1	62.5	61.7	60.4	55.6	53.8
	50-59	410.0	475.8	482.6	521.1	516.9	507.4	62.4	64.1	60.3	61.3	53.8	53.6
	60세 이상	279.5	307.3	331.1	370.8	389.3	385.6	61.5	60.0	61.0	60.7	58.9	58.0
학력	중졸이하	857.1	910.3	885.8	872.7	783.8	762.8	60.7	60.3	58.3	58.7	51.9	53.0
	고졸이하	1,352.5	1,562.2	1,611.3	1,533.6	1,442.7	1,334.4	64.5	64.8	64.6	63.8	57.8	54.9
	전문대졸	277.7	380.7	384.6	442.3	472.1	424.8	72.1	75.5	76.0	77.3	78.2	76.6
	대졸이상	526.1	743.8	732.9	777.8	847.7	766.0	73.8	76.7	76.2	78.3	77.5	74.8
산업	농림업	56.0	56.9	57.2	50.5	38.3	41.9	60.3	58.6	54.6	55.8	41.4	47.1
	어업	8.3	9.2	7.3	5.6	6.8	5.8	82.3	80.8	62.9	68.0	80.0	67.6
	광업	0.9	3.0	2.4	0.6	1.9	1.6	100.0	100.0	100.0	31.4	57.4	64.2
	제조업	462.3	644.0	590.2	579.7	570.4	455.2	76.9	76.5	81.1	82.4	79.7	78.6
	전기·가스·수도업	8.5	14.3	12.8	11.2	9.2	5.7	94.3	90.0	98.3	100.0	100.0	69.4
	건설업	508.7	488.9	458.7	434.7	354.3	307.4	60.8	59.5	54.7	55.3	43.9	40.1
	도소매업	311.0	390.5	388.8	382.9	357.8	321.3	53.8	59.5	59.5	62.4	55.0	50.8
	음식·숙박업	285.8	301.4	373.5	283.2	259.0	252.9	71.2	66.6	69.2	64.7	56.7	58.4
	운수업	74.6	107.5	117.9	127.1	120.7	108.1	68.6	63.3	71.3	79.7	72.9	78.9
	통신업	36.2	42.1	48.0	42.0	39.0	27.0	70.2	66.8	76.5	68.1	75.6	54.8
	금융·보험업	132.2	140.7	134.7	165.9	155.9	121.5	47.6	46.5	42.0	43.8	41.2	35.1
	부동산·임대업	65.2	80.8	96.4	82.9	80.0	72.4	69.2	69.8	75.6	72.7	69.4	68.5
	사업서비스업	366.3	485.7	471.2	543.7	655.2	636.7	64.6	68.7	63.8	66.5	66.8	66.0
	공공행정	130.7	143.6	141.7	172.4	165.6	181.9	88.2	84.2	83.4	89.0	84.4	88.3
	교육서비스업	247.7	316.8	326.2	323.6	304.1	319.3	67.6	71.6	71.3	67.6	66.5	68.1
	보건·복지업	88.6	132.7	138.0	140.1	156.3	177.8	86.8	89.9	88.4	87.7	87.4	85.8
	오락·문화업	80.4	85.9	94.1	109.3	92.4	96.5	77.8	80.7	71.6	75.0	70.2	65.5
	기타개인서비스업	90.0	108.3	104.7	118.9	126.9	120.0	63.6	60.4	64.3	65.2	65.9	58.0
	가사서비스업	55.6	38.5	47.6	47.2	49.0	33.6	51.0	46.8	49.5	44.2	45.4	40.4
직업	고위직	37.7	39.1	34.9	42.2	52.8	40.9	90.4	93.7	94.9	95.4	95.0	94.5
	전문가	224.0	312.9	332.8	343.2	352.0	371.9	85.4	87.0	86.2	87.7	85.5	87.0
	준전문가	272.3	361.3	328.5	350.4	399.9	338.1	61.2	66.9	67.1	68.7	70.0	68.3
	사무종사자	475.1	619.0	598.2	658.1	645.8	609.0	89.4	85.4	86.1	89.5	86.3	86.5
	서비스종사자	391.8	413.7	489.2	424.3	384.4	348.5	66.7	65.8	67.7	66.4	61.6	58.4
	판매종사자	192.4	217.3	209.1	207.2	203.7	174.3	38.9	41.4	39.1	37.5	34.4	29.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8.3	25.2	26.2	22.4	25.0	18.6	70.0	68.1	62.3	72.0	58.3	74.4
	기능원	452.4	477.5	450.3	460.2	375.6	322.3	67.0	63.5	62.0	63.2	53.9	48.2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8.5	306.4	273.2	284.6	284.8	245.3	74.3	74.8	74.5	79.7	73.6	73.5
	단순노무종사자	750.9	824.6	872.1	833.7	822.4	819.1	58.9	59.9	58.9	56.8	52.3	52.7
규모	1-4	782.0	776.6	871.1	778.9	679.2	652.5	59.2	56.6	58.1	54.2	45.4	46.8
	5-9	559.2	663.0	605.2	633.6	573.8	587.0	62.6	63.5	60.1	63.9	55.6	53.7
	10-29	677.2	793.9	775.9	823.2	862.3	802.8	65.0	65.6	65.0	66.7	64.0	61.4
	30-99	529.8	685.9	685.1	703.2	723.0	617.4	67.3	71.3	69.8	70.9	70.5	65.9
	100-299	238.1	350.0	353.4	353.2	383.0	327.2	79.1	80.0	82.6	81.7	86.3	83.3
	300+	227.0	327.6	324.0	334.4	325.0	301.1	87.0	88.6	86.4	90.7	90.9	93.8
종사상 지위	상용직	903.4	1,392.6	1,344.8	1,483.8	1,667.2	1,452.9	85.8	86.4	88.9	92.6	91.0	90.3
	임시직	1,071.5	1,242.7	1,272.1	1,237.5	1,219.5	1,266.6	60.5	63.1	61.3	59.2	57.8	58.5
	일용직	1,038.5	961.7	997.7	905.0	659.6	568.5	58.3	53.1	52.7	51.4	37.4	34.0
근속 년수	1년미만	1,912.3	1,967.2	2,010.1	1,950.8	1,721.3	1,658.0	63.3	62.7	61.9	61.3	53.5	52.5
	1-2년미만	395.4	592.2	522.2	526.1	586.0	529.3	71.1	71.0	72.4	70.9	71.9	69.2
	2-3년미만	186.3	296.3	323.3	284.1	314.7	285.5	69.2	75.7	72.7	74.5	71.2	71.5
	3년 이상	519.4	741.2	758.9	865.4	924.3	815.1	68.3	71.8	71.1	75.2	75.1	72.5

<부표 4> 기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2,402.8	2,491.2	2,727.6	2,721.6	2,531.3	2,365.4	52.2	46.2	49.8	49.9	44.4	43.4
성	남	1,298.5	1,347.7	1,483.5	1,466.1	1,408.3	1,272.7	56.8	49.3	54.2	54.2	48.4	47.2
	여	1,104.4	1,143.6	1,244.1	1,255.5	1,122.9	1,092.6	47.6	43.0	45.3	45.6	40.2	39.8
연령	15-29	802.4	790.6	872.8	781.4	731.2	663.0	61.7	55.4	62.1	60.8	56.2	53.6
	30-39	552.6	606.5	667.3	674.5	638.0	583.9	48.6	42.5	48.7	48.7	46.1	46.2
	40-49	489.0	524.7	577.1	575.0	503.2	475.9	46.3	40.9	42.3	43.4	36.0	35.7
	50-59	328.8	336.0	361.9	390.1	363.1	347.2	50.0	45.2	45.2	45.9	37.8	36.7
	60세 이상	230.1	233.3	248.5	300.5	295.7	295.4	50.6	45.5	45.8	49.2	44.8	44.5
학력	중졸이하	671.0	635.1	611.5	652.5	564.0	524.0	47.5	42.1	40.2	43.9	37.3	36.4
	고졸이하	1,080.3	1,077.7	1,197.0	1,158.8	996.6	912.3	51.5	44.7	48.0	48.2	40.0	37.6
	전문대졸	215.2	257.1	308.0	322.6	343.3	326.4	55.9	51.0	60.9	56.4	56.9	58.8
	대졸이상	436.4	521.4	611.1	587.6	627.3	602.7	61.2	53.7	63.5	59.2	57.4	58.9
산업	농림업	50.4	48.7	48.5	45.0	33.6	32.8	54.3	50.3	46.3	49.7	36.4	36.8
	어업	6.9	8.0	5.7	5.1	4.0	1.3	68.9	70.3	49.4	60.8	47.4	14.6
	광업	0.7	1.5	1.1	0.3	0.0	1.3	75.5	50.7	47.0	14.1	0.0	52.3
	제조업	338.4	385.2	410.8	380.5	358.1	291.6	56.3	45.7	56.5	54.1	50.1	50.3
	전기가스수도업	7.7	9.1	10.4	9.6	5.6	4.7	85.0	57.2	79.5	85.7	60.9	57.5
	건설업	454.5	404.7	394.1	363.9	286.8	235.8	54.3	49.2	47.0	46.3	35.5	30.7
	도소매업	228.9	225.4	243.9	261.0	208.4	197.1	39.6	34.4	37.3	42.5	32.0	31.1
	음식숙박업	196.7	166.0	213.7	189.6	133.4	106.4	49.0	36.7	39.6	43.3	29.2	24.6
	운수업	52.0	64.5	87.6	87.3	74.8	83.3	47.8	38.0	52.9	54.8	45.1	60.8
	통신업	33.2	34.5	40.4	33.1	30.5	20.3	64.3	54.8	64.4	53.7	59.3	41.3
	금융보험업	106.4	102.2	116.4	126.4	117.0	98.1	38.3	33.8	36.3	33.4	30.9	28.3
	부동산및임대업	56.1	47.6	69.0	59.9	52.0	50.8	59.6	41.1	54.2	52.5	45.1	48.1
	사업서비스업	298.9	373.2	400.3	444.2	532.7	534.4	52.7	52.8	54.2	54.3	54.3	55.4
	공공행정	115.3	119.5	122.4	150.9	136.1	141.9	77.8	70.1	72.1	77.9	69.4	68.9
	교육서비스업	211.3	244.5	281.0	263.6	252.7	264.5	57.6	55.2	61.4	55.1	55.3	56.4
	보건및복지업	72.1	96.0	113.4	98.6	120.2	137.4	70.6	65.0	72.7	61.7	67.2	66.3
	오락문화업	66.8	65.7	70.3	87.3	66.4	76.7	64.7	61.7	53.5	59.9	50.4	52.0
기타개인서비스업	64.8	70.0	73.0	83.9	86.3	72.4	45.8	39.0	44.8	46.0	44.7	35.0	
가사서비스업	38.4	21.2	24.3	29.5	29.2	13.0	35.2	25.7	25.2	27.7	27.1	15.6	
직업	고위직	27.6	26.5	29.6	35.5	36.2	32.2	66.3	63.4	80.5	80.4	65.1	74.4
	전문가	187.4	227.8	285.5	266.6	271.4	298.8	71.5	63.3	73.9	68.2	65.9	69.9
	준전문가	210.7	252.7	260.3	257.5	297.2	251.7	47.3	46.8	53.2	50.5	52.1	50.8
	사무종사자	386.4	435.4	492.7	503.5	490.6	466.4	72.7	60.0	70.9	68.4	65.6	66.2
	서비스종사자	275.7	255.2	296.7	295.4	234.7	194.3	46.9	40.6	41.0	46.3	37.6	32.6
	판매종사자	131.1	122.3	128.0	135.5	106.1	104.9	26.5	23.3	23.9	24.5	17.9	17.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5	20.3	22.9	19.4	19.2	14.8	59.2	54.8	54.4	62.1	44.6	59.3
	기능원	380.2	359.5	364.9	355.0	265.5	225.8	56.3	47.8	50.2	48.8	38.1	33.8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7.3	178.2	191.5	181.8	182.0	173.7	55.2	43.5	52.2	50.9	47.0	52.0
단순노무종사자	641.0	613.4	655.6	671.5	628.6	602.8	50.3	44.6	44.3	45.7	39.9	38.8	
규모	1-4	580.4	493.8	550.9	545.5	424.5	351.2	43.9	36.0	36.7	38.0	28.4	25.2
	5-9	447.6	452.2	426.7	473.9	382.0	392.8	50.1	43.3	42.4	47.8	37.0	36.0
	10-29	547.0	565.8	617.5	626.2	642.3	628.8	52.5	46.8	51.7	50.7	47.7	48.1
	30-99	433.3	503.9	567.6	546.2	546.0	490.1	55.1	52.4	57.9	55.0	53.2	52.3
	100-299	196.8	245.6	296.7	276.5	285.4	261.0	65.4	56.1	69.3	64.0	64.3	66.4
	300+	197.6	230.0	268.3	253.2	251.1	241.4	75.7	62.2	71.6	68.7	70.2	75.2
종사상 지위	상용직	756.7	993.5	1,178.4	1,168.2	1,268.0	1,200.7	71.9	61.6	77.9	72.9	69.2	74.6
	임시직	699.1	684.8	725.0	750.2	750.8	765.0	39.5	34.8	34.9	35.9	35.6	35.4
	일용직	947.0	812.9	824.2	803.1	512.5	399.7	53.1	44.8	43.5	45.6	29.1	23.9
근속 년수	1년미만	1,611.7	1,453.9	1,536.8	1,540.0	1,291.1	1,180.1	53.4	46.4	47.3	48.4	40.1	37.4
	1-2년미만	291.4	385.5	374.7	382.5	399.8	377.4	52.4	46.2	52.0	51.5	49.1	49.3
	2-3년미만	134.5	193.2	246.4	211.6	208.5	209.3	50.0	49.3	55.4	55.5	47.2	52.4
	3년 이상	365.2	458.6	569.6	587.5	631.9	598.6	48.0	44.4	53.4	51.0	51.4	53.3

<부표 5> 계약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248.2	580.1	301.9	465.4	555.2	373.8	5.4	10.8	5.5	8.5	9.7	6.9
성	남	148.8	369.3	171.1	271.5	333.0	202.2	6.5	13.5	6.3	10.0	11.5	7.5
	여	99.4	210.8	130.7	193.9	222.2	171.6	4.3	7.9	4.8	7.0	7.9	6.2
연령	15-29	75.2	164.1	64.6	124.5	127.4	105.6	5.8	11.5	4.6	9.7	9.8	8.5
	30-39	67.7	204.2	95.0	155.1	203.0	120.3	6.0	14.3	6.9	11.2	14.7	9.5
	40-49	67.4	136.5	94.2	100.2	133.9	78.8	6.4	10.6	6.9	7.6	9.6	5.9
	50-59	22.3	53.3	35.6	57.5	60.8	48.4	3.4	7.2	4.4	6.8	6.3	5.1
	60세 이상	15.6	22.0	12.6	28.2	30.2	20.8	3.4	4.3	2.3	4.6	4.6	3.1
학력	중졸이하	45.0	78.7	59.7	68.4	56.4	43.7	3.2	5.2	3.9	4.6	3.7	3.0
	고졸이하	102.0	237.5	135.0	160.9	211.4	146.8	4.9	9.9	5.4	6.7	8.5	6.0
	전문대졸	37.6	88.1	32.6	79.8	96.3	61.1	9.8	17.5	6.5	14.0	16.0	11.0
	대졸이상	63.6	175.7	74.6	156.4	191.2	122.3	8.9	18.1	7.8	15.7	17.5	11.9
산업	농림업	1.0	2.6	3.4	0.7	1.0	1.2	1.0	2.7	3.2	0.7	1.1	1.3
	어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1.5	0.6	0.3	0.9	0.0	0.0	49.3	24.6	17.3	28.6	0.0
	제조업	58.0	166.1	80.8	110.5	141.7	88.5	9.6	19.7	11.1	15.7	19.8	15.3
	전기가스수도업	0.4	3.8	2.2	1.6	3.6	0.7	4.2	24.0	17.0	14.3	39.1	8.0
	건설업	18.6	33.7	13.8	27.0	33.9	20.3	2.2	4.1	1.6	3.4	4.2	2.6
	도소매업	30.7	77.9	44.3	53.3	82.7	48.2	5.3	11.9	6.8	8.7	12.7	7.6
	음식숙박업	13.1	22.1	39.2	16.2	18.7	12.7	3.3	4.9	7.3	3.7	4.1	2.9
	운수업	10.8	30.5	13.4	27.7	29.1	13.9	9.9	18.0	8.1	17.3	17.6	10.1
	통신업	1.0	4.4	4.4	6.4	4.9	3.0	1.9	6.9	7.0	10.4	9.4	6.0
	금융보험업	17.3	33.0	10.7	31.4	32.3	11.2	6.2	10.9	3.3	8.3	8.5	3.2
	부동산및임대업	3.9	11.6	6.3	11.1	13.2	5.2	4.2	10.0	4.9	9.8	11.5	4.9
	사업서비스업	41.7	79.8	23.2	66.4	85.5	67.0	7.4	11.3	3.1	8.1	8.7	6.9
	공공행정	7.7	10.1	3.8	12.0	11.8	19.8	5.2	5.9	2.2	6.2	6.0	9.6
	교육서비스업	15.7	43.6	16.9	40.0	37.3	28.7	4.3	9.9	3.7	8.4	8.2	6.1
	보건및복지업	10.4	27.0	13.2	36.0	24.3	29.2	10.2	18.3	8.5	22.5	13.6	14.1
	오락문화업	5.0	12.3	10.2	6.7	12.9	5.6	4.9	11.6	7.8	4.6	9.8	3.8
	기타개인서비스업	9.9	15.9	11.7	15.6	20.9	16.4	7.0	8.9	7.2	8.6	10.8	7.9
가사서비스업	2.3	1.7	2.0	0.0	0.4	2.4	2.1	2.1	2.1	0.0	0.4	2.9	
직업	고위직	6.9	9.8	4.8	6.6	15.3	7.7	16.6	23.5	13.1	15.0	27.6	17.9
	전문가	27.3	71.8	29.2	64.1	75.2	59.8	10.4	20.0	7.6	16.4	18.2	14.0
	준전문가	38.4	84.2	33.6	62.6	88.6	48.5	8.6	15.6	6.9	12.3	15.5	9.8
	사무종사자	53.3	131.5	52.2	112.8	118.5	100.5	10.0	18.1	7.5	15.3	15.8	14.3
	서비스종사자	19.2	34.4	50.9	25.3	27.7	24.9	3.3	5.5	7.0	4.0	4.4	4.2
	판매종사자	17.6	37.9	19.9	28.0	41.3	15.6	3.6	7.2	3.7	5.1	7.0	2.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	1.4	0.8	0.9	0.6	0.4	0.0	3.7	1.9	3.0	1.5	1.6
	기능원	23.4	46.7	19.2	44.7	52.8	33.1	3.5	6.2	2.6	6.1	7.6	4.9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1	92.6	42.3	61.6	66.9	32.6	10.1	22.6	11.5	17.3	17.3	9.8
단순노무종사자	35.2	69.9	49.1	53.7	63.3	50.7	2.8	5.1	3.3	4.0	4.3	3.3	
규모	1-4	35.4	50.8	58.1	47.5	66.6	49.5	2.7	3.7	3.9	3.3	4.4	3.6
	5-9	37.5	82.0	53.4	66.0	79.7	66.4	4.2	7.9	5.3	6.7	7.7	6.1
	10-29	62.6	132.9	53.4	96.5	123.8	78.3	6.0	11.0	4.5	7.8	9.2	6.0
	30-99	60.3	134.2	54.5	124.0	135.5	83.9	7.7	13.9	5.6	12.5	13.2	9.0
	100-299	29.8	92.6	37.8	60.7	79.2	49.0	9.9	21.2	8.8	14.0	17.8	12.5
	300+	22.5	87.5	44.6	70.7	70.5	46.6	8.6	23.7	11.9	19.2	19.7	14.5
종사상 지위	상용직	145.7	398.1	165.2	313.9	395.8	249.3	13.8	24.7	10.9	19.6	21.6	15.5
	임시직	86.9	169.1	118.1	144.0	137.4	110.2	4.9	8.6	5.7	6.9	6.5	5.1
	일용직	15.7	12.9	18.6	7.5	21.9	14.4	0.9	0.7	1.0	0.4	1.2	0.9
근속 년수	1년미만	66.4	168.5	79.8	116.3	122.8	115.8	2.2	5.4	2.5	3.7	3.8	3.7
	1-2년미만	42.9	107.0	49.5	68.3	102.8	57.9	7.7	12.8	6.9	9.2	12.6	7.6
	2-3년미만	28.2	73.5	37.4	45.5	73.9	47.7	10.5	18.8	8.4	11.9	16.7	11.9
	3년 이상	110.7	231.1	135.2	235.3	255.7	152.5	14.6	22.4	12.7	20.4	20.8	13.6

<부표 6>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62.3	525.7	585.1	439.4	459.9	548.8	7.9	9.7	10.7	8.1	8.1	10.1
성	남	135.0	199.0	209.4	176.7	180.4	225.9	5.9	7.3	7.7	6.5	6.2	8.4
	여	227.3	326.7	375.7	262.7	279.5	322.9	9.8	12.3	13.7	9.5	10.0	11.8
연령	15-29	77.9	113.6	119.4	83.0	80.7	95.1	6.0	8.0	8.5	6.5	6.2	7.7
	30-39	101.9	132.1	140.2	115.6	83.5	109.1	9.0	9.2	10.2	8.3	6.0	8.6
	40-49	89.8	141.6	170.3	125.2	139.3	163.5	8.5	11.0	12.5	9.4	10.0	12.3
	50-59	58.9	86.5	85.1	73.6	92.9	111.8	9.0	11.6	10.6	8.6	9.7	11.8
	60세 이상	33.8	51.9	70.0	42.1	63.4	69.3	7.4	10.1	12.9	6.9	9.6	10.4
학력	중졸이하	141.1	196.5	214.7	151.8	163.4	195.2	10.0	13.0	14.1	10.2	10.8	13.6
	고졸이하	170.3	247.0	279.3	213.9	234.7	275.2	8.1	10.2	11.2	8.9	9.4	11.3
	전문대졸	24.9	35.5	43.9	39.8	32.5	37.4	6.5	7.0	8.7	7.0	5.4	6.7
	대졸이상	26.1	46.7	47.2	33.9	29.2	41.0	3.7	4.8	4.9	3.4	2.7	4.0
산업	농림업	4.6	5.5	5.3	4.9	3.7	8.0	5.0	5.7	5.1	5.4	4.0	8.9
	어업	1.3	1.2	1.6	0.6	2.8	4.6	13.3	10.4	13.6	7.1	32.6	53.1
	광업	0.2	0.0	0.7	0.0	1.0	0.3	24.5	0.0	28.4	0.0	28.9	11.9
	제조업	65.9	92.7	98.6	88.8	70.6	75.0	11.0	11.0	13.6	12.6	9.9	12.9
	전기가스수도업	0.5	1.4	0.2	0.0	0.0	0.3	5.1	8.8	1.8	0.0	0.0	4.0
	건설업	35.5	50.5	50.8	43.8	33.6	51.3	4.2	6.1	6.1	5.6	4.2	6.7
	도소매업	51.4	87.1	100.7	63.5	66.8	76.0	8.9	13.3	15.4	11.2	10.3	12.0
	음식숙박업	76.1	113.3	120.7	77.5	106.9	133.8	18.9	25.0	22.4	17.7	23.4	30.9
	운수업	11.8	12.5	16.9	12.1	16.8	10.9	10.9	7.3	10.2	7.6	10.1	8.0
	통신업	2.1	3.2	3.2	2.5	3.6	3.7	4.1	5.1	5.0	4.1	6.9	7.4
	금융보험업	8.5	5.5	7.6	8.1	6.6	12.3	3.1	1.8	2.4	2.1	1.7	3.5
	부동산및임대업	5.2	21.6	21.1	11.9	14.8	16.4	5.5	18.7	16.5	10.4	12.9	15.5
	사업서비스업	25.7	32.7	47.7	33.2	36.9	35.3	4.5	4.6	6.5	4.1	3.8	3.7
	공공행정	7.7	14.0	15.4	9.6	17.8	20.3	5.2	8.2	9.1	4.9	9.1	9.8
	교육서비스업	20.7	28.7	28.3	20.1	14.1	26.1	5.6	6.5	6.2	4.2	3.1	5.6
	보건및복지업	6.1	9.8	11.4	5.6	11.9	11.2	5.9	6.6	7.3	3.5	6.6	5.4
	오락문화업	8.6	7.9	13.6	15.3	13.1	14.2	8.3	7.4	10.4	10.5	9.9	9.7
	기타개인서비스업	15.4	22.5	20.1	19.4	19.8	31.1	10.9	12.5	12.3	10.7	10.3	15.0
가사서비스업	15.0	15.7	21.4	17.7	19.4	18.2	13.7	19.0	22.2	16.6	17.9	21.9	
직업	고위직	3.2	2.9	0.5	0.0	1.3	1.0	7.6	6.8	1.3	0.0	2.3	2.3
	전문가	9.3	13.4	18.1	12.5	5.5	13.2	3.6	3.7	4.7	3.2	1.3	3.1
	준전문가	23.3	24.5	34.6	30.3	14.1	38.0	5.2	4.5	7.1	5.9	2.5	7.7
	사무종사자	35.5	52.1	53.3	41.8	36.8	42.1	6.7	7.2	7.7	5.7	4.9	6.0
	서비스종사자	97.0	124.1	141.6	103.6	122.0	129.3	16.5	19.7	19.6	16.2	19.5	21.7
	판매종사자	43.7	57.0	61.3	43.7	56.3	53.8	8.8	10.9	11.4	7.9	9.5	9.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8	3.5	2.5	2.2	5.2	3.4	10.8	9.6	6.0	7.0	12.2	13.5
	기능원	48.9	71.2	66.2	60.6	57.3	63.3	7.2	9.5	9.1	8.3	8.2	9.5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0	35.6	39.5	41.2	35.9	39.0	9.0	8.7	10.8	11.5	9.3	11.7
단순노무종사자	74.7	141.3	167.5	103.6	125.6	165.7	5.9	10.3	11.3	7.1	8.0	10.7	
규모	1-4	166.2	232.0	262.1	185.8	188.1	251.7	12.6	16.9	17.5	12.9	12.6	18.1
	5-9	74.1	128.8	125.0	93.7	112.2	127.7	8.3	12.3	12.4	9.4	10.9	11.7
	10-29	67.5	95.2	105.0	100.4	96.2	95.7	6.5	7.9	8.8	8.1	7.1	7.3
	30-99	36.2	47.8	63.0	33.0	41.5	43.3	4.6	5.0	6.4	3.3	4.0	4.6
	100-299	11.5	11.8	18.8	16.0	18.4	17.2	3.8	2.7	4.4	3.7	4.1	4.4
	300+	6.8	10.1	11.1	10.4	3.5	13.1	2.6	2.7	3.0	2.8	1.0	4.1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	1.0	1.1	1.8	3.4	2.9	0.1	0.1	0.1	0.1	0.2	0.2
	임시직	285.5	388.8	429.0	343.3	331.3	391.4	16.1	19.7	20.7	16.4	15.7	18.1
	일용직	75.8	135.9	154.9	94.3	125.2	154.5	4.3	7.5	8.2	5.4	7.1	9.2
근속 년수	1년미만	234.1	344.7	393.5	294.5	307.4	362.1	7.8	11.0	12.1	9.3	9.6	11.5
	1-2년미만	61.1	99.8	98.1	75.4	83.4	94.1	11.0	12.0	13.6	10.1	10.2	12.3
	2-3년미만	23.6	29.7	39.5	26.9	32.3	28.6	8.8	7.6	8.9	7.1	7.3	7.2
	3년 이상	43.5	51.5	54.1	42.7	36.7	64.1	5.7	5.0	5.1	3.7	3.0	5.7

<부표 7> 시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928.9	1,072.0	1,044.2	1,135.1	1,201.4	1,228.7	20.2	19.9	19.0	20.8	21.1	22.6
성	남	239.8	278.3	308.6	345.4	358.8	372.0	10.5	10.2	11.3	12.8	12.3	13.8
	여	689.1	793.6	735.6	789.7	842.6	856.7	29.7	29.8	26.8	28.7	30.1	31.2
연령	15-29	302.2	299.7	319.9	307.1	346.8	329.3	23.2	21.0	22.8	23.9	26.6	26.6
	30-39	239.1	266.4	237.5	267.3	236.1	236.5	21.0	18.6	17.3	19.3	17.1	18.7
	40-49	183.5	243.0	222.1	245.0	248.5	265.1	17.4	18.9	16.3	18.5	17.8	19.9
	50-59	103.7	133.3	131.9	139.8	171.7	178.2	15.8	17.9	16.5	16.4	17.9	18.8
	60세 이상	100.5	129.6	132.8	176.0	198.3	219.5	22.1	25.3	24.5	28.8	30.0	33.0
학력	중졸이하	282.1	331.5	325.0	355.3	377.8	392.2	20.0	22.0	21.4	23.9	25.0	27.3
	고졸이하	454.1	514.4	504.2	523.5	571.1	596.5	21.7	21.3	20.2	21.8	22.9	24.6
	전문대졸	57.9	57.0	58.5	76.0	76.6	55.7	15.0	11.3	11.6	13.3	12.7	10.1
	대졸이상	134.8	169.2	156.6	180.2	175.9	184.2	18.9	17.4	16.3	18.2	16.1	18.0
산업	농림업	21.1	22.6	29.4	24.3	24.6	26.3	22.7	23.3	28.0	26.9	26.7	29.5
	어업	1.0	1.8	2.8	0.8	1.6	1.8	9.8	15.9	23.9	9.8	18.9	20.8
	광업	0.0	0.0	0.5	0.5	0.5	0.0	0.0	0.0	19.5	25.7	15.5	0.0
	제조업	107.0	111.3	95.8	96.3	88.9	86.5	17.8	13.2	13.2	13.7	12.4	14.9
	전기가스수도업	1.3	2.1	1.1	0.3	0.6	1.0	14.8	13.3	8.2	2.5	6.6	11.8
	건설업	73.8	94.6	79.8	93.1	82.0	71.8	8.8	11.5	9.5	11.8	10.2	9.4
	도소매업	165.2	178.0	162.3	178.2	194.1	200.2	28.6	27.1	24.9	29.0	29.8	31.6
	음식숙박업	144.2	177.1	194.5	182.7	209.0	195.1	35.9	39.1	36.0	41.7	45.8	45.1
	운수업	12.5	16.4	17.2	16.5	20.9	15.3	11.4	9.6	10.4	10.3	12.6	11.2
	통신업	10.9	13.3	5.2	7.4	5.8	10.3	21.1	21.1	8.3	12.0	11.3	20.8
	금융보험업	12.0	18.1	14.1	22.9	14.3	12.0	4.3	6.0	4.4	6.0	3.8	3.5
	부동산및임대업	14.2	20.1	19.8	20.1	22.2	21.1	15.1	17.4	15.5	17.6	19.3	19.9
	사업서비스업	31.7	45.9	50.9	49.0	60.2	72.3	5.6	6.5	6.9	6.0	6.1	7.5
	공공행정	45.7	62.7	56.1	86.3	94.0	93.2	30.9	36.8	33.0	44.5	47.9	45.3
	교육서비스업	159.2	167.2	165.0	186.9	173.8	190.7	43.4	37.8	36.0	39.0	38.0	40.6
	보건및복지업	15.4	18.5	22.3	31.5	48.6	51.4	15.1	12.6	14.3	19.7	27.2	24.8
	오락문화업	29.8	25.0	44.2	45.0	43.0	55.3	28.8	23.5	33.7	30.8	32.6	37.5
	기타개인서비스업	42.3	51.6	37.2	55.2	53.6	72.1	29.9	28.8	22.8	30.3	27.8	34.9
가사서비스업	41.5	45.1	46.1	38.3	63.3	52.4	38.1	54.8	48.0	35.9	58.7	63.0	
직업	고용직	0.5	0.6	0.7	0.8	1.7	2.0	1.2	1.4	1.9	1.9	3.0	4.6
	전문가	63.9	77.3	74.3	78.2	75.2	94.0	24.4	21.5	19.2	20.0	18.3	22.0
	준전문가	105.1	113.1	109.8	128.9	128.5	137.7	23.6	20.9	22.4	25.3	22.5	27.8
	사무종사자	75.1	104.2	96.9	113.6	119.6	121.6	14.1	14.4	13.9	15.4	16.0	17.3
	서비스종사자	186.0	214.0	219.3	209.7	249.7	242.8	31.6	34.0	30.3	32.8	40.0	40.7
	판매종사자	111.5	107.1	91.0	116.2	117.9	106.2	22.5	20.4	17.0	21.0	19.9	17.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5	4.6	11.4	8.1	8.1	2.9	9.4	12.3	27.2	25.9	18.9	11.7
	기능원	52.2	77.9	61.2	78.0	58.1	58.7	7.7	10.4	8.4	10.7	8.3	8.8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6	24.4	28.5	34.1	29.6	35.0	10.3	5.9	7.8	9.6	7.6	10.5
단순노무종사자	304.6	348.8	351.2	367.6	412.9	427.7	23.9	25.4	23.7	25.0	26.2	27.5	
규모	1-4	428.1	492.6	495.6	526.3	573.5	546.5	32.4	35.9	33.1	36.6	38.3	39.2
	5-9	192.0	219.5	209.6	224.8	244.4	262.9	21.5	21.0	20.8	22.7	23.7	24.1
	10-29	152.3	189.9	182.7	207.5	200.7	234.2	14.6	15.7	15.3	16.8	14.9	17.9
	30-99	91.5	100.1	94.6	106.9	114.8	115.2	11.6	10.4	9.6	10.8	11.2	12.3
	100-299	33.3	33.6	27.9	36.3	37.7	34.8	11.1	7.7	6.5	8.4	8.5	8.9
	300+	31.7	36.2	33.8	33.4	30.3	35.2	12.1	9.8	9.0	9.0	8.5	11.0
종사상 지위	상용직	9.6	19.1	16.4	16.6	17.9	22.0	0.9	1.2	1.1	1.0	1.0	1.4
	임시직	391.7	453.5	431.7	532.7	581.6	578.0	22.1	23.0	20.8	25.5	27.6	26.7
	일용직	527.6	599.3	596.1	585.8	601.9	628.7	29.6	33.1	31.5	33.3	34.2	37.6
근속 년수	1년미만	748.6	801.1	811.5	843.3	911.6	924.6	24.8	25.6	25.0	26.5	28.3	29.3
	1-2년미만	80.7	136.9	107.3	134.5	137.6	147.6	14.5	16.4	14.9	18.1	16.9	19.3
	2-3년미만	28.3	51.0	47.2	54.7	60.7	52.5	10.5	13.0	10.6	14.3	13.7	13.2
	3년 이상	71.2	83.0	78.2	102.7	91.6	104.0	9.4	8.0	7.3	8.9	7.4	9.3

<부표 8> 비전형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677.9	1,948.3	1,907.3	1,933.2	2,208.4	2,137.0	36.4	36.1	34.8	35.4	38.7	39.2
성	남	827.3	970.5	966.5	917.7	1,141.4	1,118.6	36.2	35.5	35.3	33.9	39.3	41.4
	여	850.7	977.8	940.8	1,015.4	1,067.1	1,018.5	36.7	36.7	34.2	36.9	38.2	37.1
연령	15-29	296.1	337.4	282.6	222.8	267.1	237.9	22.8	23.7	20.1	17.3	20.5	19.2
	30-39	425.1	494.4	465.7	432.9	453.9	439.1	37.4	34.6	34.0	31.3	32.8	34.7
	40-49	437.1	516.0	533.6	558.3	632.9	603.9	41.4	40.2	39.1	42.1	45.3	45.3
	50-59	295.8	330.9	363.8	412.9	498.8	502.4	45.0	44.6	45.5	48.5	51.9	53.1
	60세 이상	223.8	269.4	261.6	306.3	355.8	353.8	49.2	52.6	48.2	50.2	53.8	53.3
학력	중졸이하	641.4	697.9	691.7	723.6	809.0	731.9	45.4	46.2	45.5	48.7	53.5	50.9
	고졸이하	747.3	887.1	877.0	890.1	1,040.9	1,031.8	35.6	36.8	35.1	37.0	41.7	42.5
	전문대졸	115.2	136.6	127.5	132.9	140.6	142.6	29.9	27.1	25.2	23.2	23.3	25.7
	대졸이상	174.0	226.7	211.0	186.6	218.0	230.7	24.4	23.4	21.9	18.8	19.9	22.5
산업	농림업	34.9	40.4	44.3	40.0	52.3	44.9	37.6	41.7	42.3	44.2	56.6	50.5
	어업	2.2	3.6	4.4	2.8	1.7	2.9	22.1	31.3	38.3	34.0	20.0	33.3
	광업	0.0	0.0	0.0	0.8	1.4	0.9	0.0	0.0	0.0	42.9	42.6	35.8
	제조업	168.4	216.5	141.7	136.7	154.1	113.7	28.0	25.7	19.5	19.4	21.5	19.6
	전기가스수도업	0.0	2.8	1.4	0.0	0.6	2.2	0.0	17.5	10.5	0.0	6.6	26.2
	건설업	340.8	347.6	389.2	355.9	458.1	465.3	40.7	42.3	46.5	45.3	56.7	60.7
	도소매업	232.4	235.8	232.1	204.7	231.0	233.5	40.2	35.9	35.5	33.3	35.5	36.9
	음식숙박업	68.1	88.6	98.4	84.0	97.8	60.8	17.0	19.6	18.2	19.2	21.4	14.0
	운수업	45.2	66.2	44.6	30.1	44.1	25.8	41.6	38.9	27.0	18.8	26.6	18.8
	통신업	17.3	21.9	19.1	21.9	19.8	23.7	33.5	34.7	30.5	35.5	38.4	48.2
	금융보험업	161.4	179.7	199.1	223.8	233.3	233.2	58.1	59.5	62.0	59.1	61.6	67.3
	부동산및임대업	32.2	33.1	28.8	32.7	31.0	29.8	34.1	28.6	22.6	28.7	26.9	28.2
	사업서비스업	386.9	468.7	485.3	550.5	675.5	692.5	68.2	66.3	65.7	67.3	68.9	71.8
	공공행정	9.3	20.7	12.9	13.0	13.7	10.9	6.3	12.1	7.6	6.7	7.0	5.3
	교육서비스업	57.3	87.8	72.1	88.7	75.7	71.9	15.6	19.8	15.7	18.5	16.6	15.3
	보건및복지업	6.6	7.8	8.9	9.8	7.7	7.2	6.4	5.3	5.7	6.1	4.3	3.5
	오락문화업	14.3	20.4	22.3	20.9	15.7	22.8	13.8	19.2	16.9	14.4	11.9	15.4
기타개인서비스업	36.0	59.5	46.1	45.9	46.2	62.6	25.4	33.2	28.3	25.2	24.0	30.3	
가사서비스업	63.7	46.2	55.3	71.1	49.0	32.6	58.4	56.1	57.5	66.6	45.4	39.2	
직업	고위직	6.1	5.7	4.6	4.5	4.9	3.2	14.7	13.5	12.4	10.2	8.8	7.4
	전문가	16.7	25.7	27.5	20.0	25.9	31.8	6.4	7.2	7.1	5.1	6.3	7.4
	준전문가	153.8	176.9	140.5	130.7	144.0	110.7	34.5	32.7	28.7	25.6	25.2	22.3
	사무종사자	55.3	101.9	78.4	53.2	77.8	68.9	10.4	14.0	11.3	7.2	10.4	9.8
	서비스종사자	165.8	167.6	170.3	161.0	154.3	131.5	28.2	26.7	23.6	25.2	24.7	22.0
	판매종사자	283.8	316.5	323.4	344.7	380.6	406.3	57.4	60.3	60.4	62.4	64.4	68.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3	13.2	15.7	10.2	17.6	6.7	35.6	35.8	37.4	32.7	41.0	27.0
	기능원	255.0	305.3	300.4	300.3	349.9	365.5	37.7	40.6	41.3	41.3	50.2	54.6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1.4	133.1	110.6	95.2	123.4	118.0	34.2	32.5	30.1	26.7	31.9	35.3
단순노무종사자	640.7	702.4	736.0	813.4	930.0	894.6	50.2	51.1	49.7	55.4	59.1	57.5	
규모	1-4	520.5	548.9	553.7	593.4	677.8	591.6	39.4	40.0	36.9	41.3	45.3	42.4
	5-9	305.2	382.2	385.2	354.5	441.8	468.1	34.2	36.6	38.3	35.7	42.8	42.9
	10-29	407.8	479.8	453.4	479.8	571.3	591.8	39.1	39.7	38.0	38.9	42.4	45.2
	30-99	312.7	366.3	357.0	356.4	387.0	375.1	39.7	38.1	36.4	35.9	37.7	40.0
	100-299	90.2	116.3	103.4	105.0	88.8	85.4	29.9	26.6	24.2	24.3	20.0	21.7
	300+	41.6	54.7	54.6	44.1	41.7	25.0	15.9	14.8	14.6	12.0	11.7	7.8
종사상 지위	상용직	248.4	372.8	288.4	286.5	390.4	370.4	23.6	23.1	19.1	17.9	21.3	23.0
	임시직	663.6	717.1	747.2	789.5	807.5	829.1	37.5	36.4	36.0	37.7	38.3	38.3
	일용직	766.0	858.4	871.7	857.2	1,010.5	937.6	43.0	47.4	46.0	48.7	57.3	56.1
근속 년수	1년미만	1,138.6	1,210.1	1,201.0	1,242.1	1,417.6	1,338.1	37.7	38.6	37.0	39.0	44.1	42.4
	1-2년미만	180.1	269.4	216.3	242.2	254.2	265.2	32.4	32.3	30.0	32.6	31.2	34.7
	2-3년미만	93.0	120.2	142.6	108.2	149.0	137.0	34.6	30.7	32.1	28.4	33.7	34.3
	3년 이상	266.3	348.6	347.4	340.6	387.5	396.8	35.0	33.8	32.5	29.6	31.5	35.3

<부표 9> 파견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97.9	116.8	117.7	130.7	174.3	139.1	2.1	2.2	2.1	2.4	3.1	2.6
성	남	41.0	53.2	42.9	65.2	82.8	63.8	1.8	1.9	1.6	2.4	2.8	2.4
	여	56.9	63.6	74.8	65.5	91.5	75.3	2.5	2.4	2.7	2.4	3.3	2.7
연령	15-29	33.3	38.0	39.6	34.2	56.0	33.9	2.6	2.7	2.8	2.7	4.3	2.7
	30-39	28.6	30.3	37.0	29.9	42.9	36.1	2.5	2.1	2.7	2.2	3.1	2.9
	40-49	22.8	31.7	22.9	29.9	45.7	39.5	2.2	2.5	1.7	2.3	3.3	3.0
	50-59	4.5	10.1	11.8	24.5	19.1	20.2	0.7	1.4	1.5	2.9	2.0	2.1
	60세 이상	8.8	6.8	6.4	12.2	10.6	9.4	1.9	1.3	1.2	2.0	1.6	1.4
학력	중졸이하	17.4	23.2	19.2	30.7	30.5	21.7	1.2	1.5	1.3	2.1	2.0	1.5
	고졸이하	56.7	57.5	58.5	67.1	92.0	69.7	2.7	2.4	2.3	2.8	3.7	2.9
	전문대졸	13.7	17.4	17.9	12.2	28.4	21.5	3.5	3.5	3.5	2.1	4.7	3.9
	대졸이상	10.1	18.7	22.1	20.7	23.5	26.3	1.4	1.9	2.3	2.1	2.1	2.6
산업	농림업	0.0	0.0	0.0	0.9	0.0	0.3	0.0	0.0	0.0	1.0	0.0	0.3
	어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8.0	12.0	12.9	15.5	23.1	14.6	1.3	1.4	1.8	2.2	3.2	2.5
	전기가스수도업	0.0	0.0	0.5	0.0	0.0	0.0	0.0	0.0	3.6	0.0	0.0	0.0
	건설업	7.0	10.1	3.8	13.1	16.4	10.7	0.8	1.2	0.5	1.7	2.0	1.4
	도소매업	32.1	27.7	29.6	23.9	30.1	22.4	5.6	4.2	4.5	3.9	4.6	3.5
	음식숙박업	2.2	3.6	7.1	1.1	8.1	4.9	0.6	0.8	1.3	0.2	1.8	1.1
	운수업	3.1	1.6	0.9	2.1	1.6	2.6	2.8	0.9	0.5	1.3	0.9	1.9
	통신업	0.0	0.5	1.7	0.0	0.8	0.5	0.0	0.8	2.8	0.0	1.6	1.0
	금융보험업	1.0	2.1	1.5	1.9	1.3	2.1	0.4	0.7	0.5	0.5	0.3	0.6
	부동산및임대업	0.9	4.1	3.2	0.9	0.9	1.4	0.9	3.5	2.5	0.7	0.8	1.3
	사업서비스업	33.4	42.2	46.0	52.8	74.6	65.4	5.9	6.0	6.2	6.5	7.6	6.8
	공공행정	3.9	3.6	2.1	8.1	6.3	5.1	2.6	2.1	1.2	4.2	3.2	2.5
	교육서비스업	3.6	0.7	2.2	3.0	4.4	2.7	1.0	0.1	0.5	0.6	1.0	0.6
	보건및복지업	1.0	1.2	1.8	6.0	4.3	3.4	0.9	0.8	1.1	3.7	2.4	1.7
	오락문화업	0.0	0.8	0.8	0.0	0.0	0.0	0.0	0.8	0.6	0.0	0.0	0.0
기타개인서비스업	1.8	6.6	3.3	1.3	2.3	3.1	1.3	3.7	2.0	0.7	1.2	1.5	
가사서비스업	0.0	0.0	0.5	0.3	0.3	0.0	0.0	0.0	0.5	0.3	0.3	0.0	
직업	고위직	0.9	1.0	1.2	0.0	1.0	0.3	2.2	2.4	3.3	0.0	1.8	0.7
	전문가	4.2	3.4	13.8	7.7	10.5	16.9	1.6	1.0	3.6	2.0	2.6	3.9
	준전문가	4.6	11.0	5.8	7.7	20.3	9.1	1.0	2.0	1.2	1.5	3.6	1.8
	사무종사자	7.6	11.3	14.2	7.5	18.1	14.0	1.4	1.6	2.0	1.0	2.4	2.0
	서비스종사자	9.3	10.8	12.6	14.3	19.6	18.4	1.6	1.7	1.7	2.2	3.1	3.1
	판매종사자	37.5	32.3	35.1	31.1	39.5	28.2	7.6	6.2	6.5	5.6	6.7	4.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	0.4	0.4	0.0	0.0	0.0	0.0	1.1	1.0	0.0	0.0	0.0
	기능원	10.3	20.4	9.6	17.8	14.8	15.0	1.5	2.7	1.3	2.4	2.1	2.2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3	6.0	7.4	11.4	13.7	10.8	3.1	1.5	2.0	3.2	3.5	3.2
	단순노무종사자	15.1	20.2	17.6	33.3	36.7	26.6	1.2	1.5	1.2	2.3	2.3	1.7
규모	1-4	29.0	31.4	31.3	28.7	40.9	30.1	2.2	2.3	2.1	2.0	2.7	2.2
	5-9	11.7	19.0	19.8	17.4	24.2	22.5	1.3	1.8	2.0	1.8	2.3	2.1
	10-29	25.7	23.1	24.1	29.1	37.8	31.7	2.5	1.9	2.0	2.4	2.8	2.4
	30-99	15.0	25.7	21.6	29.4	45.9	35.4	1.9	2.7	2.2	3.0	4.5	3.8
	100-299	11.6	11.6	9.5	19.6	15.0	15.3	3.8	2.7	2.2	4.5	3.4	3.9
	300+	5.0	6.2	11.5	6.5	10.4	4.1	1.9	1.7	3.1	1.8	2.9	1.3
종사상 지위	상용직	43.8	60.5	55.2	60.9	89.7	70.8	4.2	3.8	3.6	3.8	4.9	4.4
	임시직	41.1	38.4	48.4	50.0	55.5	52.2	2.3	1.9	2.3	2.4	2.6	2.4
	일용직	13.0	18.0	14.1	19.8	29.1	16.2	0.7	1.0	0.7	1.1	1.7	1.0
근속 년수	1년미만	49.4	56.1	51.9	67.7	82.4	58.9	1.6	1.8	1.6	2.1	2.6	1.9
	1-2년미만	17.3	22.6	18.2	23.8	32.7	28.4	3.1	2.7	2.5	3.2	4.0	3.7
	2-3년미만	12.3	11.2	11.5	9.0	16.1	11.8	4.6	2.9	2.6	2.4	3.7	2.9
	3년 이상	18.9	26.9	36.2	30.3	43.1	40.1	2.5	2.6	3.4	2.6	3.5	3.6

<부표 10> 용역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45.9	412.7	430.7	498.5	592.9	641.2	7.5	7.7	7.9	9.1	10.4	11.8
성	남	203.8	238.7	247.2	269.3	340.0	369.3	8.9	8.7	9.0	10.0	11.7	13.7
	여	142.1	174.0	183.4	229.2	253.0	271.9	6.1	6.5	6.7	8.3	9.0	9.9
연령	15-29	52.9	57.0	58.3	55.2	69.0	72.1	4.1	4.0	4.1	4.3	5.3	5.8
	30-39	32.3	53.3	53.0	52.0	68.4	80.7	2.8	3.7	3.9	3.8	4.9	6.4
	40-49	62.7	66.0	79.2	96.1	106.4	103.2	5.9	5.1	5.8	7.2	7.6	7.7
	50-59	100.8	116.8	120.9	141.2	168.7	190.7	15.3	15.7	15.1	16.6	17.6	20.2
	60세 이상	97.3	119.6	119.4	154.0	180.5	194.5	21.4	23.3	22.0	25.2	27.3	29.3
학력	중졸이하	181.5	215.2	221.3	257.9	283.5	283.8	12.9	14.2	14.6	17.3	18.8	19.7
	고졸이하	129.8	158.6	167.9	204.9	247.2	282.0	6.2	6.6	6.7	8.5	9.9	11.6
	전문대졸	12.8	21.3	23.2	20.6	32.8	32.3	3.3	4.2	4.6	3.6	5.4	5.8
	대졸이상	21.8	17.7	18.3	15.1	29.5	43.1	3.1	1.8	1.9	1.5	2.7	4.2
산업	농림업	0.0	0.0	0.0	1.9	0.0	0.9	0.0	0.0	0.0	2.0	0.0	1.0
	어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0.6	2.4	3.2	2.7	3.8	4.1	0.1	0.3	0.4	0.4	0.5	0.7
	전기가스수도업	0.0	0.0	0.0	0.0	0.0	0.4	0.0	0.0	0.0	0.0	0.0	5.2
	건설업	5.5	13.2	8.4	3.6	8.7	14.2	0.7	1.6	1.0	0.5	1.1	1.9
	도소매업	0.2	0.0	1.2	0.8	2.2	1.2	0.0	0.0	0.2	0.1	0.3	0.2
	음식숙박업	1.1	3.1	2.0	4.7	4.4	5.6	0.3	0.7	0.4	1.1	1.0	1.3
	운수업	0.0	3.3	0.0	1.6	1.9	2.8	0.0	1.9	0.0	1.0	1.2	2.1
	통신업	0.0	0.9	0.0	0.0	0.4	0.7	0.0	1.4	0.0	0.0	0.7	1.5
	금융보험업	0.5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부동산및임대업	8.9	7.2	6.7	10.3	7.4	12.0	9.4	6.2	5.2	9.0	6.4	11.4
	사업서비스업	326.3	379.1	404.5	468.5	557.2	592.8	57.5	53.6	54.8	57.3	56.8	61.4
	공공행정	0.0	1.4	0.0	0.5	0.0	0.0	0.0	0.8	0.0	0.3	0.0	0.0
	교육서비스업	0.0	0.0	0.0	0.0	1.4	1.7	0.0	0.0	0.0	0.0	0.3	0.4
	보건및복지업	0.0	0.3	0.0	0.2	0.9	1.0	0.0	0.2	0.0	0.1	0.5	0.5
	오락문화업	0.0	0.3	0.0	1.0	0.0	0.3	0.0	0.3	0.0	0.7	0.0	0.2
기타개인서비스업	2.9	1.6	3.1	2.3	3.5	2.4	2.1	0.9	1.9	1.3	1.8	1.2	
가사서비스업	0.0	0.0	1.6	0.4	1.3	1.1	0.0	0.0	1.7	0.3	1.2	1.3	
직업	고위직	2.2	0.8	0.8	3.1	3.5	2.0	5.4	2.0	2.1	7.0	6.4	4.7
	전문가	1.3	0.0	1.4	1.8	1.8	6.7	0.5	0.0	0.4	0.5	0.4	1.6
	준전문가	1.4	5.9	2.3	3.3	9.3	7.9	0.3	1.1	0.5	0.6	1.6	1.6
	사무종사자	14.9	21.4	16.3	21.5	31.8	35.3	2.8	3.0	2.3	2.9	4.2	5.0
	서비스종사자	30.1	33.3	35.0	35.7	42.7	44.1	5.1	5.3	4.8	5.6	6.8	7.4
	판매종사자	8.6	11.7	10.5	9.1	14.4	14.9	1.7	2.2	2.0	1.7	2.4	2.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2	1.6	2.0	1.6	1.3	1.1	4.7	4.4	4.7	5.2	2.9	4.2
	기능원	26.5	33.0	34.3	37.2	48.8	53.3	3.9	4.4	4.7	5.1	7.0	8.0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9.6	38.2	40.6	33.5	42.0	52.9	11.1	9.3	11.1	9.4	10.9	15.8
단순노무종사자	230.2	266.8	287.5	351.7	397.4	423.1	18.1	19.4	19.4	24.0	25.2	27.2	
규모	1-4	34.5	57.8	59.5	86.2	103.6	132.2	2.6	4.2	4.0	6.0	6.9	9.5
	5-9	62.5	89.6	84.6	106.3	121.3	140.7	7.0	8.6	8.4	10.7	11.8	12.9
	10-29	109.2	114.7	128.7	147.6	194.8	207.8	10.5	9.5	10.8	12.0	14.5	15.9
	30-99	94.6	97.4	102.5	101.9	122.5	116.4	12.0	10.1	10.4	10.3	11.9	12.4
	100-299	29.3	35.6	40.2	38.3	38.0	38.2	9.7	8.1	9.4	8.9	8.6	9.7
	300+	15.9	17.6	15.2	18.2	12.7	5.9	6.1	4.8	4.1	4.9	3.5	1.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5.5	162.8	159.4	207.3	270.2	283.3	10.0	10.1	10.5	12.9	14.7	17.6
	임시직	183.4	181.9	199.2	206.8	228.3	257.0	10.4	9.2	9.6	9.9	10.8	11.9
	일용직	57.0	68.0	72.1	84.4	94.4	100.9	3.2	3.8	3.8	4.8	5.4	6.0
근속 년수	1년미만	199.3	203.7	219.5	256.2	284.5	313.9	6.6	6.5	6.8	8.1	8.8	9.9
	1-2년미만	50.2	90.8	66.5	89.3	100.7	122.8	9.0	10.9	9.2	12.0	12.4	16.0
	2-3년미만	21.6	37.0	51.2	41.9	69.3	57.0	8.0	9.4	11.5	11.0	15.7	14.3
	3년 이상	74.8	81.2	93.4	111.1	138.3	147.5	9.8	7.9	8.8	9.7	11.2	13.1

<부표 11>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600.4	711.0	633.1	617.0	635.1	595.1	13.0	13.2	11.5	11.3	11.1	10.9
성	남	229.0	308.0	239.5	185.9	214.3	181.9	10.0	11.3	8.8	6.9	7.4	6.7
	여	371.4	403.1	393.6	431.1	420.8	413.2	16.0	15.1	14.3	15.7	15.1	15.0
연령	15-29	124.8	155.5	99.2	69.1	67.6	78.9	9.6	10.9	7.1	5.4	5.2	6.4
	30-39	226.2	241.8	231.7	211.2	204.7	189.4	19.9	16.9	16.9	15.2	14.8	15.0
	40-49	166.5	204.2	198.8	206.4	226.7	218.5	15.8	15.9	14.6	15.6	16.2	16.4
	50-59	59.0	75.4	72.4	87.2	95.4	76.2	9.0	10.2	9.1	10.2	9.9	8.1
	60세 이상	23.9	34.1	30.9	43.2	40.7	32.1	5.3	6.7	5.7	7.1	6.2	4.8
학력	중졸이하	101.3	105.3	94.9	106.6	91.6	55.4	7.2	7.0	6.2	7.2	6.1	3.9
	고졸이하	300.0	367.6	318.9	303.3	345.3	331.1	14.3	15.3	12.8	12.6	13.8	13.6
	전문대졸	73.7	73.4	65.4	74.8	59.1	70.8	19.1	14.6	12.9	13.1	9.8	12.8
	대졸이상	125.5	164.7	153.9	132.4	139.1	137.7	17.6	17.0	16.0	13.3	12.7	13.5
산업	농림업	0.2	2.2	1.5	0.9	0.6	0.0	0.2	2.2	1.4	1.0	0.6	0.0
	어업	0.3	0.9	1.2	0.0	0.3	0.3	2.6	7.6	10.0	0.0	3.3	3.5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53.3	54.7	36.2	27.5	28.2	7.7	8.9	6.5	5.0	3.9	3.9	1.3
	전기가스수도업	0.0	1.2	0.7	0.0	0.6	1.7	0.0	7.5	5.1	0.0	6.6	21.0
	건설업	26.9	29.0	14.2	14.2	12.3	1.2	3.2	3.5	1.7	1.8	1.5	0.2
	도소매업	165.7	165.3	151.8	138.8	155.6	169.0	28.6	25.2	23.2	22.6	23.9	26.7
	음식숙박업	10.1	27.3	19.6	14.1	8.7	2.1	2.5	6.0	3.6	3.2	1.9	0.5
	운수업	36.2	51.7	34.9	18.7	29.3	3.6	33.3	30.4	21.1	11.7	17.7	2.7
	통신업	14.4	19.1	15.7	20.6	16.8	19.0	28.0	30.2	24.9	33.4	32.6	38.6
	금융보험업	159.9	176.8	196.6	221.1	230.5	230.3	57.5	58.5	61.2	58.4	60.9	66.5
	부동산및임대업	20.9	18.1	17.4	18.9	19.9	14.5	22.2	15.6	13.7	16.6	17.2	13.7
	사업서비스업	23.7	32.4	27.3	16.9	18.7	22.4	4.2	4.6	3.7	2.1	1.9	2.3
	공공행정	0.0	3.6	4.5	1.5	0.7	2.2	0.0	2.1	2.6	0.8	0.3	1.1
	교육서비스업	51.2	77.3	69.4	81.9	69.6	66.8	14.0	17.5	15.2	17.1	15.2	14.2
	보건및복지업	4.8	3.7	1.1	1.5	1.0	0.6	4.7	2.5	0.7	1.0	0.6	0.3
	오락문화업	9.0	8.5	11.0	10.7	6.6	15.9	8.7	8.0	8.4	7.3	5.0	10.8
기타개인서비스업	14.7	31.4	24.7	21.1	27.0	37.8	10.4	17.5	15.2	11.6	14.0	18.3	
가사서비스업	8.2	6.8	4.3	8.8	8.8	0.0	7.5	8.3	4.4	8.2	8.2	0.0	
직업	고위직	3.0	3.8	2.2	1.4	0.4	0.4	7.1	9.1	5.9	3.1	0.7	0.9
	전문가	5.4	17.0	11.8	9.2	7.1	4.5	2.0	4.7	3.1	2.3	1.7	1.1
	준전문가	144.7	150.4	129.1	112.3	108.3	91.0	32.5	27.8	26.4	22.0	19.0	18.4
	사무종사자	29.4	50.5	37.0	14.9	17.9	9.9	5.5	7.0	5.3	2.0	2.4	1.4
	서비스종사자	33.7	51.7	37.7	24.1	17.7	18.8	5.7	8.2	5.2	3.8	2.8	3.2
	판매종사자	224.7	253.2	256.6	285.5	303.5	350.5	45.4	48.3	47.9	51.7	51.3	58.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5	1.1	1.8	0.0	0.3	0.0	1.9	3.0	4.4	0.0	0.7	0.0
	기능원	39.4	34.6	22.4	22.1	13.1	5.0	5.8	4.6	3.1	3.0	1.9	0.8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4.7	70.2	47.9	29.5	49.3	32.8	16.7	17.1	13.0	8.2	12.7	9.8
단순노무종사자	75.1	78.7	86.6	118.1	117.6	82.1	5.9	5.7	5.8	8.0	7.5	5.3	
규모	1-4	135.7	123.1	104.2	136.5	136.5	97.4	10.3	9.0	6.9	9.5	9.1	7.0
	5-9	71.7	98.3	83.2	58.5	65.6	51.5	8.0	9.4	8.3	5.9	6.4	4.7
	10-29	164.9	206.5	174.7	184.7	198.6	209.3	15.8	17.1	14.6	15.0	14.7	16.0
	30-99	170.1	205.7	200.0	185.1	192.2	193.8	21.6	21.4	20.4	18.7	18.7	20.7
	100-299	41.7	57.6	46.8	36.3	28.8	30.7	13.8	13.2	10.9	8.4	6.5	7.8
	300+	16.3	19.9	24.2	16.0	13.3	12.4	6.2	5.4	6.5	4.3	3.7	3.9
종사상 지위	상용직	94.1	131.5	74.0	18.1	26.3	19.7	8.9	8.2	4.9	1.1	1.4	1.2
	임시직	402.6	471.9	463.2	478.0	503.2	514.1	22.7	24.0	22.3	22.9	23.9	23.8
	일용직	103.7	107.7	95.9	120.9	105.6	61.2	5.8	5.9	5.1	6.9	6.0	3.7
근속 년수	1년미만	294.7	311.2	253.1	289.5	286.2	232.7	9.8	9.9	7.8	9.1	8.9	7.4
	1-2년미만	96.4	116.9	109.0	104.3	104.3	98.8	17.3	14.0	15.1	14.1	12.8	12.9
	2-3년미만	51.0	60.7	68.7	49.5	55.5	61.8	19.0	15.5	15.5	13.0	12.6	15.5
	3년 이상	158.2	222.3	202.3	173.8	189.1	201.8	20.8	21.5	19.0	15.1	15.4	18.0

<부표 12> 가정내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66.1	170.8	140.8	175.2	124.9	65.0	3.6	3.2	2.6	3.2	2.2	1.2
성	남	18.3	23.5	13.9	15.2	24.4	6.9	0.8	0.9	0.5	0.6	0.8	0.3
	여	147.8	147.4	126.9	160.0	100.5	58.1	6.4	5.5	4.6	5.8	3.6	2.1
연령	15-29	15.0	22.3	11.6	15.1	8.2	8.5	1.2	1.6	0.8	1.2	0.6	0.7
	30-39	55.1	58.7	41.9	40.0	37.8	20.6	4.8	4.1	3.1	2.9	2.7	1.6
	40-49	34.5	40.2	37.5	52.2	35.8	18.2	3.3	3.1	2.7	3.9	2.6	1.4
	50-59	26.0	20.7	28.4	35.6	25.0	8.5	3.9	2.8	3.5	4.2	2.6	0.9
	60세 이상	35.6	29.0	21.5	32.3	18.1	9.0	7.8	5.7	4.0	5.3	2.7	1.4
학력	중졸이하	80.8	67.7	53.9	73.6	47.3	20.5	5.7	4.5	3.5	4.9	3.1	1.4
	고졸이하	71.5	78.0	69.4	77.5	53.4	32.4	3.4	3.2	2.8	3.2	2.1	1.3
	전문대졸	5.6	13.6	5.4	11.3	8.2	4.8	1.5	2.7	1.1	2.0	1.4	0.9
	대졸이상	8.2	11.6	12.2	12.8	16.0	7.2	1.1	1.2	1.3	1.3	1.5	0.7
산업	농림업	0.9	0.3	0.0	0.0	0.7	0.5	1.0	0.3	0.0	0.0	0.7	0.6
	어업	0.6	1.0	0.6	0.6	0.6	0.4	5.9	8.4	5.2	6.6	7.4	4.8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98.4	96.7	66.7	73.1	84.8	49.2	16.4	11.5	9.2	10.4	11.9	8.5
	전기가스수도업	0.0	1.6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건설업	0.3	1.1	2.1	1.5	4.2	0.0	0.0	0.1	0.3	0.2	0.5	0.0
	도소매업	15.0	15.5	15.7	18.1	9.1	5.8	2.6	2.4	2.4	2.9	1.4	0.9
	음식숙박업	0.9	2.8	1.4	2.2	2.8	0.7	0.2	0.6	0.3	0.5	0.6	0.2
	운수업	0.0	0.6	1.2	0.0	0.0	0.0	0.0	0.3	0.7	0.0	0.0	0.0
	통신업	1.8	0.5	0.3	0.0	1.8	1.7	3.4	0.7	0.5	0.0	3.4	3.4
	금융보험업	0.4	1.6	2.8	0.4	0.0	0.0	0.2	0.5	0.9	0.1	0.0	0.0
	부동산및임대업	0.5	0.2	0.5	0.9	3.8	0.9	0.5	0.2	0.4	0.7	3.3	0.9
	사업서비스업	3.8	5.9	2.6	5.4	7.5	2.8	0.7	0.8	0.4	0.7	0.8	0.3
	공공행정	0.5	6.4	1.2	0.5	1.4	0.0	0.3	3.8	0.7	0.2	0.7	0.0
	교육서비스업	0.0	5.3	7.8	10.6	1.4	0.4	0.0	1.2	1.7	2.2	0.3	0.1
	보건및복지업	0.0	1.7	1.0	0.0	0.4	0.0	0.0	1.1	0.6	0.0	0.2	0.0
	오락문화업	1.6	1.6	0.9	3.0	0.6	0.0	1.5	1.5	0.7	2.0	0.4	0.0
기타개인서비스업	3.2	8.1	3.3	8.5	3.6	1.6	2.2	4.5	2.0	4.7	1.9	0.8	
가사서비스업	38.3	20.0	32.8	50.8	2.2	1.1	35.1	24.3	34.1	47.6	2.1	1.3	
직업	고위직	0.0	0.0	0.4	0.0	0.0	0.0	0.0	0.0	1.1	0.0	0.0	0.0
	전문가	4.5	4.0	1.8	4.0	8.8	3.2	1.7	1.1	0.5	1.0	2.1	0.7
	준전문가	2.8	6.2	9.2	12.1	5.4	0.8	0.6	1.1	1.9	2.4	0.9	0.2
	사무종사자	4.1	15.2	4.8	3.3	3.7	4.7	0.8	2.1	0.7	0.4	0.5	0.7
	서비스종사자	39.1	15.7	17.8	33.3	4.1	2.1	6.7	2.5	2.5	5.2	0.7	0.4
	판매종사자	2.0	3.5	6.1	4.2	4.4	1.0	0.4	0.7	1.1	0.8	0.7	0.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6	0.2	0.0	0.2	0.0	0.0	2.3	0.4	0.0	0.5	0.0	0.0
	기능원	14.8	19.8	9.5	14.8	10.8	2.9	2.2	2.6	1.3	2.0	1.6	0.4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4	7.4	3.4	3.7	4.1	1.8	1.7	1.8	0.9	1.0	1.0	0.5
단순노무종사자	93.9	98.8	87.9	99.6	83.7	48.5	7.4	7.2	5.9	6.8	5.3	3.1	
규모	1-4	137.7	120.4	103.7	143.6	94.7	50.7	10.4	8.8	6.9	10.0	6.3	3.6
	5-9	5.2	8.9	8.9	7.8	13.0	7.0	0.6	0.8	0.9	0.8	1.3	0.6
	10-29	11.9	21.3	14.8	10.8	12.7	3.8	1.1	1.8	1.2	0.9	0.9	0.3
	30-99	7.5	9.4	10.9	9.2	2.1	1.9	0.9	1.0	1.1	0.9	0.2	0.2
	100-299	2.3	3.9	1.6	3.0	0.6	0.0	0.8	0.9	0.4	0.7	0.1	0.0
	300+	1.6	7.0	0.9	0.9	1.8	1.7	0.6	1.9	0.2	0.2	0.5	0.5
종사상 지위	상용직	7.4	20.7	3.1	1.7	4.3	0.0	0.7	1.3	0.2	0.1	0.2	0.0
	임시직	49.7	29.1	44.4	70.2	29.1	10.9	2.8	1.5	2.1	3.4	1.4	0.5
	일용직	109.1	121.0	93.3	103.3	91.5	54.1	6.1	6.7	4.9	5.9	5.2	3.2
근속 년수	1년미만	129.8	121.6	101.9	118.9	92.2	47.5	4.3	3.9	3.1	3.7	2.9	1.5
	1-2년미만	15.9	24.2	20.0	25.3	13.6	7.0	2.9	2.9	2.8	3.4	1.7	0.9
	2-3년미만	7.6	9.4	6.5	8.8	5.6	4.1	2.8	2.4	1.5	2.3	1.3	1.0
	3년 이상	12.8	15.7	12.5	22.2	13.4	6.4	1.7	1.5	1.2	1.9	1.1	0.6

<부표 13> 일일 근로자의 구성 추이 (8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직 대비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588.9	666.1	717.8	666.6	845.2	818.2	12.8	12.3	13.1	12.2	14.8	15.0
성	남	380.5	395.4	466.0	436.8	554.2	563.0	16.6	14.5	17.0	16.2	19.1	20.9
	여	208.4	270.7	251.8	229.7	291.0	255.3	9.0	10.2	9.2	8.3	10.4	9.3
연령	15-29	91.2	85.4	89.6	64.6	75.4	54.7	7.0	6.0	6.4	5.0	5.8	4.4
	30-39	118.1	145.5	143.8	131.0	141.1	136.2	10.4	10.2	10.5	9.5	10.2	10.8
	40-49	180.9	206.4	233.8	224.8	267.9	260.0	17.1	16.1	17.1	17.0	19.2	19.5
	50-59	124.2	126.6	157.0	155.8	230.6	240.8	18.9	17.0	19.6	18.3	24.0	25.5
	60세 이상	74.5	102.1	93.7	90.5	130.2	126.5	16.4	19.9	17.3	14.8	19.7	19.0
학력	중졸이하	314.2	338.4	351.7	327.6	427.4	397.2	22.3	22.4	23.1	22.0	28.3	27.6
	고졸이하	245.4	291.0	327.1	303.3	374.9	381.4	11.7	12.1	13.1	12.6	15.0	15.7
	전문대졸	14.3	17.5	23.2	22.7	23.6	17.1	3.7	3.5	4.6	4.0	3.9	3.1
	대졸이상	15.0	19.2	15.7	13.0	19.3	22.5	2.1	2.0	1.6	1.3	1.8	2.2
산업	농림업	34.7	38.5	43.3	36.8	51.6	43.9	37.3	39.7	41.3	40.7	55.9	49.3
	어업	1.8	1.9	3.3	2.3	1.2	2.4	17.7	17.0	28.9	27.3	14.2	27.4
	광업	0.0	0.0	0.0	0.8	1.4	0.9	0.0	0.0	0.0	42.9	42.6	35.8
	제조업	51.9	86.6	59.1	65.4	68.6	61.6	8.6	10.3	8.1	9.3	9.6	10.6
	전기가스수도업	0.0	0.0	0.2	0.0	0.0	0.4	0.0	0.0	1.8	0.0	0.0	5.2
	건설업	315.3	311.8	367.4	335.0	432.6	450.5	37.7	37.9	43.9	42.6	53.6	58.7
	도소매업	32.9	39.5	43.7	33.5	46.0	43.8	5.7	6.0	6.7	5.5	7.1	6.9
	음식숙박업	55.3	57.2	70.8	66.4	76.3	47.4	13.8	12.6	13.1	15.2	16.7	11.0
	운수업	7.4	11.7	10.0	10.9	13.8	16.8	6.8	6.9	6.0	6.8	8.3	12.2
	통신업	5.2	2.8	1.4	3.2	2.3	5.6	10.0	4.4	2.2	5.2	4.4	11.3
	금융보험업	0.0	0.9	0.5	0.8	1.5	0.8	0.0	0.3	0.1	0.2	0.4	0.2
	부동산및임대업	1.7	4.4	1.0	3.2	0.9	1.1	1.8	3.8	0.8	2.8	0.8	1.0
	사업서비스업	32.4	42.7	49.0	51.3	73.3	69.1	5.7	6.0	6.6	6.3	7.5	7.2
	공공행정	5.0	5.6	5.2	2.4	5.4	3.6	3.4	3.3	3.1	1.2	2.7	1.7
	교육서비스업	2.5	4.6	1.7	2.2	1.5	0.8	0.7	1.0	0.4	0.5	0.3	0.2
	보건및복지업	0.8	0.9	5.2	2.1	1.7	2.3	0.8	0.6	3.4	1.3	0.9	1.1
	오락문화업	5.6	10.3	12.5	7.9	9.4	9.1	5.4	9.6	9.5	5.4	7.1	6.2
기타개인서비스업	16.6	18.6	18.9	18.2	17.2	27.2	11.7	10.4	11.6	10.0	8.9	13.2	
가사서비스업	19.8	28.3	24.5	24.3	40.8	31.3	18.2	34.3	25.5	22.7	37.8	37.7	
직업	고위직	0.0	0.0	0.0	0.0	0.0	0.5	0.0	0.0	0.0	0.0	0.0	1.1
	전문가	1.4	1.3	0.5	0.5	0.6	3.4	0.5	0.4	0.1	0.1	0.1	0.8
	준전문가	1.9	5.7	1.9	1.8	8.3	3.5	0.4	1.1	0.4	0.4	1.5	0.7
	사무종사자	3.0	4.8	7.7	6.1	7.5	6.1	0.6	0.7	1.1	0.8	1.0	0.9
	서비스종사자	62.9	72.5	82.9	62.7	79.0	56.4	10.7	11.5	11.5	9.8	12.7	9.5
	판매종사자	21.1	26.4	22.7	17.5	22.6	14.5	4.3	5.0	4.2	3.2	3.8	2.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4	10.2	11.9	8.7	16.4	5.7	28.3	27.5	28.4	28.0	38.3	22.8
	기능원	182.3	218.6	238.3	229.5	283.2	310.5	27.0	29.1	32.8	31.5	40.6	46.4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0	14.5	18.8	23.5	27.2	29.2	4.9	3.5	5.1	6.6	7.0	8.7
단순노무종사자	295.9	312.1	333.1	316.3	400.4	388.6	23.2	22.7	22.5	21.5	25.4	25.0	
규모	1-4	252.4	285.6	318.0	287.6	388.8	338.4	19.1	20.8	21.2	20.0	26.0	24.3
	5-9	170.6	188.7	213.6	188.3	245.4	272.3	19.1	18.1	21.2	19.0	23.8	24.9
	10-29	120.8	140.4	134.4	132.5	161.4	165.9	11.6	11.6	11.3	10.7	12.0	12.7
	30-99	36.2	36.1	38.9	46.8	38.4	39.1	4.6	3.8	4.0	4.7	3.7	4.2
	100-299	6.1	10.1	9.7	8.2	7.7	1.6	2.0	2.3	2.3	1.9	1.7	0.4
	300+	2.8	5.2	3.3	3.1	3.5	1.0	1.1	1.4	0.9	0.8	1.0	0.3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임시직	0.0	0.9	4.4	0.0	2.5	0.3	0.0	0.0	0.2	0.0	0.1	0.0
	일용직	588.9	665.1	713.4	666.6	842.7	818.0	33.0	36.7	37.7	37.8	47.8	48.9
근속 년수	1년미만	576.1	637.2	688.6	647.8	822.5	793.1	19.1	20.3	21.2	20.4	25.6	25.1
	1-2년미만	5.8	20.5	13.8	6.7	7.3	12.7	1.1	2.5	1.9	0.9	0.9	1.7
	2-3년미만	2.0	2.2	7.3	2.1	4.0	3.6	0.7	0.6	1.6	0.5	0.9	0.9
	3년 이상	4.9	6.2	8.1	10.0	11.5	8.9	0.6	0.6	0.8	0.9	0.9	0.8

부 표

(각 년도 3월 기준)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9,958.2	10,355.9	63.3	64.8
성	남	6,138.2	6,394.3	67.4	69.2
	여	3,820.0	3,961.6	57.7	58.6
연령	15-29	2,539.6	2,487.9	66.4	66.6
	30-39	3,235.3	3,449.1	69.4	72.5
	40-49	2,675.3	2,715.8	64.8	65.3
	50-59	1,199.1	1,375.0	56.1	58.8
	60세 이상	308.9	328.1	31.5	32.7
학력	중졸이하	1,163.3	1,112.8	42.7	42.4
	고졸이하	4,150.3	4,106.9	63.0	62.0
	전문대졸	1,453.9	1,614.7	69.6	74.4
	대졸이상	3,190.8	3,521.5	73.7	77.0
산업	농림업	25.4	35.3	17.9	29.4
	어업	6.4	5.7	26.2	26.1
	광업	14.4	15.5	85.2	84.8
	제조업	2,766.7	2,807.8	78.5	80.2
	전기가스수도업	72.8	79.1	86.8	87.7
	건설업	518.8	601.9	36.8	42.6
	도소매업	1,287.1	1,291.0	65.9	65.6
	음식숙박업	662.0	640.8	61.2	59.6
	운수업	493.4	498.3	73.6	75.7
	통신업	172.0	164.5	73.0	75.9
	금융보험업	369.1	409.0	49.9	51.7
	부동산및임대업	188.1	184.4	63.0	65.7
	사업서비스업	694.6	748.4	43.1	43.6
	공공행정	605.2	658.9	77.0	78.9
	교육서비스업	861.0	912.0	65.1	67.0
	보건및복지업	496.2	571.3	75.0	75.6
	오락문화업	186.1	181.8	59.9	58.3
기타개인서비스업	493.4	496.4	70.6	70.5	
가사서비스업	36.6	40.4	25.5	28.5	
직업	고위직	235.8	273.6	80.6	86.9
	전문가	1,261.7	1,401.7	73.8	76.3
	준전문가	1,375.2	1,396.3	71.9	74.4
	사무종사자	2,314.7	2,552.4	75.1	78.7
	서비스종사자	935.9	969.8	61.3	61.1
	판매종사자	561.6	552.1	50.4	46.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3.2	25.3	29.4	36.7
	기능원	1,022.0	971.5	57.4	57.0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6.2	1,339.7	77.6	77.4
단순노무종사자	842.0	873.5	34.4	35.9	
규모	1-4	1,680.5	1,648.7	52.8	52.3
	5-9	1,620.6	1,629.6	60.3	59.4
	10-29	2,070.4	2,199.7	61.0	62.9
	30-99	2,083.6	2,203.3	67.1	69.0
	100-299	1,081.9	1,158.2	69.2	74.5
	300+	1,421.3	1,516.3	78.9	81.6
종사상 지위	상용직	6,626.7	7,301.8	78.6	82.1
	임시직	3,079.6	2,747.9	59.4	54.7
	일용직	251.9	306.2	11.9	14.8
근속년수	1년미만	2,618.6	2,469.4	45.2	44.8
	1-2년미만	1,520.0	1,564.1	63.4	64.1
	2-3년미만	901.8	991.1	66.1	67.7
	3년 이상	4,917.8	5,331.3	79.6	81.1

<부표 15>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5,772.8	5,637.5	36.7	35.2
성	남	2,968.2	2,843.1	32.6	30.8
	여	2,804.6	2,794.5	42.3	41.4
연령	15-29	1,286.7	1,245.4	33.6	33.4
	30-39	1,423.8	1,307.9	30.6	27.5
	40-49	1,451.6	1,444.8	35.2	34.7
	50-59	938.1	963.8	43.9	41.2
	60세 이상	672.5	675.6	68.5	67.3
학력	중졸이하	1,558.3	1,510.5	57.3	57.6
	고졸이하	2,440.9	2,521.9	37.0	38.0
	전문대졸	634.7	554.7	30.4	25.6
	대졸이상	1,138.9	1,050.5	26.3	23.0
산업	농림업	116.8	84.8	82.1	70.6
	어업	18.1	16.0	73.8	73.9
	광업	2.5	2.8	14.8	15.2
	제조업	758.0	693.8	21.5	19.8
	전기가스수도업	11.1	11.1	13.2	12.3
	건설업	892.8	810.6	63.2	57.4
	도소매업	667.3	675.9	34.1	34.4
	음식숙박업	419.7	433.7	38.8	40.4
	운수업	177.2	160.1	26.4	24.3
	통신업	63.6	52.3	27.0	24.1
	금융보험업	371.0	381.6	50.1	48.3
	부동산및임대업	110.7	96.1	37.0	34.3
	사업서비스업	915.4	968.5	56.9	56.4
	공공행정	181.2	175.8	23.0	21.1
	교육서비스업	462.2	449.4	34.9	33.0
	보건및복지업	165.5	184.8	25.0	24.4
	오락문화업	124.4	130.1	40.1	41.7
	기타개인서비스업	205.3	207.3	29.4	29.5
가사서비스업	106.6	101.3	74.5	71.5	
직업	고위직	56.9	41.4	19.4	13.1
	전문가	447.6	435.9	26.2	23.7
	준전문가	538.1	481.4	28.1	25.6
	사무종사자	765.8	692.3	24.9	21.3
	서비스종사자	591.8	618.0	38.7	38.9
	판매종사자	551.9	639.3	49.6	53.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5.7	43.6	70.6	63.3
	기능원	759.7	731.6	42.6	43.0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01.3	391.4	22.4	22.6
단순노무종사자	1,604.0	1,562.5	65.6	64.1	
규모	1-4	1,501.2	1,502.1	47.2	47.7
	5-9	1,065.4	1,114.4	39.7	40.6
	10-29	1,322.8	1,295.0	39.0	37.1
	30-99	1,022.2	988.4	32.9	31.0
	100-299	481.9	396.3	30.8	25.5
	300+	379.1	341.3	21.1	18.4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04.9	1,595.8	21.4	17.9
	임시직	2,108.2	2,275.4	40.6	45.3
	일용직	1,859.6	1,766.4	88.1	85.2
근속년수	1년미만	3,173.5	3,045.9	54.8	55.2
	1-2년미만	876.8	875.5	36.6	35.9
	2-3년미만	461.9	472.7	33.9	32.3
	3년 이상	1,260.6	1,243.5	20.4	18.9

<부표 16>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한시적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3,641.6	3,248.7	63.1	57.6
성	남	1,961.5	1,706.7	66.1	60.0
	여	1,680.1	1,542.0	59.9	55.2
연령	15-29	951.4	836.0	73.9	67.1
	30-39	959.1	775.5	67.4	59.3
	40-49	846.0	760.5	58.3	52.6
	50-59	514.2	517.5	54.8	53.7
	60세 이상	370.9	359.3	55.1	53.2
학력	중졸이하	832.4	763.6	53.4	50.6
	고졸이하	1,434.0	1,329.5	58.7	52.7
	전문대졸	491.0	411.7	77.4	74.2
	대졸이상	884.2	743.9	77.6	70.8
산업	농림업	45.9	23.7	39.3	27.9
	어업	13.2	10.9	72.9	67.9
	광업	0.8	2.0	32.4	72.9
	제조업	618.0	501.9	81.5	72.3
	전기가스수도업	11.1	10.3	100.0	92.8
	건설업	418.1	310.4	46.8	38.3
	도소매업	377.6	346.7	56.6	51.3
	음식숙박업	253.4	246.4	60.4	56.8
	운수업	133.5	112.4	75.4	70.2
	통신업	39.5	29.0	62.0	55.4
	금융보험업	152.6	123.1	41.1	32.3
	부동산및임대업	77.3	63.6	69.8	66.2
	사업서비스업	628.4	614.9	68.6	63.5
	공공행정	147.4	159.1	81.3	90.5
	교육서비스업	312.1	299.6	67.5	66.6
	보건및복지업	147.6	151.6	89.2	82.1
	오락문화업	89.4	84.6	71.9	65.1
	기타개인서비스업	125.1	116.7	60.9	56.3
가사서비스업	48.3	40.2	45.3	39.7	
직업	고위직	53.8	37.1	94.6	89.6
	전문가	391.3	371.9	87.4	85.3
	준전문가	395.9	310.6	73.6	64.5
	사무종사자	658.4	580.6	86.0	83.9
	서비스종사자	372.1	376.4	62.9	60.9
	판매종사자	190.2	197.4	34.5	30.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9	23.0	50.1	52.6
	기능원	413.4	334.5	54.4	45.7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97.6	263.7	74.1	67.4
단순노무종사자	841.1	753.6	52.4	48.2	
규모	1-4	716.3	664.5	47.7	44.2
	5-9	622.4	570.8	58.4	51.2
	10-29	823.9	758.0	62.3	58.5
	30-99	721.9	629.9	70.6	63.7
	100-299	404.0	320.5	83.8	80.9
	300+	353.1	305.1	93.1	89.4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57.3	1,375.4	91.8	86.2
	임시직	1,235.8	1,290.2	58.6	56.7
	일용직	748.6	583.2	40.3	33.0
근속년수	1년미만	1,725.5	1,478.8	54.4	48.6
	1-2년미만	620.8	598.9	70.8	68.4
	2-3년미만	342.3	316.1	74.1	66.9
	3년 이상	953.1	855.0	75.6	68.8

<부표 17> 기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2,614.1	2,293.2	45.3	40.7
성	남	1,460.5	1,278.1	49.2	45.0
	여	1,153.6	1,015.1	41.1	36.3
연령	15-29	735.4	617.5	57.2	49.6
	30-39	665.0	562.1	46.7	43.0
	40-49	556.5	490.7	38.3	34.0
	50-59	358.5	358.1	38.2	37.2
	60세 이상	298.7	264.9	44.4	39.2
학력	중졸이하	609.1	500.2	39.1	33.1
	고졸이하	994.2	883.6	40.7	35.0
	전문대졸	352.0	306.1	55.5	55.2
	대졸이상	658.8	603.4	57.8	57.4
산업	농림업	43.1	17.8	36.9	21.0
	어업	4.6	2.8	25.4	17.3
	광업	0.3	1.2	12.8	41.9
	제조업	388.9	304.3	51.3	43.9
	전기가스수도업	7.9	9.0	71.4	81.0
	건설업	343.5	251.3	38.5	31.0
	도소매업	222.7	193.8	33.4	28.7
	음식숙박업	127.9	97.8	30.5	22.6
	운수업	87.7	80.7	49.5	50.4
	통신업	31.5	25.3	49.5	48.4
	금융보험업	125.2	96.4	33.7	25.3
	부동산및임대업	52.4	40.9	47.3	42.6
	사업서비스업	509.0	535.3	55.6	55.3
	공공행정	122.0	113.3	67.3	64.4
	교육서비스업	253.3	251.6	54.8	56.0
	보건및복지업	112.2	125.2	67.8	67.8
	오락문화업	66.2	56.7	53.2	43.6
기타개인서비스업	87.9	71.6	42.8	34.5	
가사서비스업	25.9	16.6	24.3	16.4	
직업	고위직	39.2	30.8	69.0	74.3
	전문가	313.4	305.1	70.0	70.0
	준전문가	278.3	240.5	51.7	49.9
	사무종사자	492.2	438.5	64.3	63.3
	서비스종사자	213.9	197.0	36.1	31.9
	판매종사자	93.7	96.0	17.0	15.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0	17.7	48.6	40.5
	기능원	304.5	240.4	40.1	32.9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0.2	178.7	49.9	45.6
단순노무종사자	651.6	548.7	40.6	35.1	
규모	1-4	459.5	337.0	30.6	22.4
	5-9	429.8	361.2	40.3	32.4
	10-29	610.3	570.3	46.1	44.0
	30-99	543.6	498.3	53.2	50.4
	100-299	296.3	275.6	61.5	69.5
	300+	274.6	250.8	72.4	73.5
종사상 지위	상용직	1,277.2	1,201.3	70.8	75.3
	임시직	721.8	698.0	34.2	30.7
	일용직	615.1	394.0	33.1	22.3
근속년수	1년미만	1,307.3	1,003.1	41.2	32.9
	1-2년미만	419.1	413.5	47.8	47.2
	2-3년미만	221.5	231.8	48.0	49.0
	3년 이상	666.2	644.8	52.9	51.9

<부표 18> 계약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547.0	228.8	9.5	4.1
성	남	329.6	138.4	11.1	4.9
	여	217.4	90.4	7.7	3.2
연령	15-29	135.9	60.5	10.6	4.9
	30-39	192.8	65.2	13.5	5.0
	40-49	129.6	61.5	8.9	4.3
	50-59	67.6	30.0	7.2	3.1
	60세 이상	21.0	11.5	3.1	1.7
학력	중졸이하	55.4	24.2	3.6	1.6
	고졸이하	199.2	78.7	8.2	3.1
	전문대졸	106.0	51.5	16.7	9.3
	대졸이상	186.5	74.4	16.4	7.1
산업	농림업	0.8	0.0	0.7	0.0
	어업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제조업	150.2	53.6	19.8	7.7
	전기가스수도업	3.2	1.0	28.6	8.8
	건설업	31.5	14.3	3.5	1.8
	도소매업	78.3	28.7	11.7	4.3
	음식숙박업	15.7	3.2	3.7	0.7
	운수업	32.4	10.8	18.3	6.8
	통신업	6.7	1.0	10.5	2.0
	금융보험업	23.0	11.6	6.2	3.0
	부동산및임대업	12.1	4.7	10.9	4.9
	사업서비스업	87.3	31.9	9.5	3.3
	공공행정	13.8	29.6	7.6	16.9
	교육서비스업	36.6	14.8	7.9	3.3
	보건및복지업	27.2	12.4	16.5	6.7
	오락문화업	10.3	5.3	8.3	4.1
	기타개인서비스업	16.6	5.9	8.1	2.9
가사서비스업	0.8	0.0	0.7	0.0	
직업	고위직	13.8	4.8	24.2	11.7
	전문가	70.9	42.9	15.8	9.8
	준전문가	87.6	28.9	16.3	6.0
	사무종사자	131.3	78.8	17.1	11.4
	서비스종사자	29.0	11.9	4.9	1.9
	판매종사자	38.3	9.1	6.9	1.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	0.0	0.0	0.0
	기능원	53.0	14.4	7.0	2.0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0.6	22.4	15.1	5.7
	단순노무종사자	62.6	15.7	3.9	1.0
규모	1-4	66.9	31.1	4.5	2.1
	5-9	78.4	35.5	7.4	3.2
	10-29	111.1	49.0	8.4	3.8
	30-99	134.8	54.2	13.2	5.5
	100-299	82.0	21.9	17.0	5.5
	300+	73.8	37.2	19.5	1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379.5	159.6	21.0	10.0
	임시직	150.7	63.5	7.2	2.8
	일용직	16.7	5.7	0.9	0.3
근속년수	1년미만	116.9	37.1	3.7	1.2
	1-2년미만	106.0	33.6	12.1	3.8
	2-3년미만	77.4	38.6	16.7	8.2
	3년 이상	246.8	119.5	19.6	9.6

<부표 19>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480.5	726.7	8.3	12.9
성	남	171.4	200.2	5.8	10.2
	여	309.1	436.6	11.0	15.6
연령	15-29	80.1	158.0	6.2	12.7
	30-39	101.3	148.2	7.1	11.3
	40-49	159.9	208.3	11.0	14.4
	50-59	88.1	129.4	9.4	13.4
	60세 이상	51.2	82.8	7.6	12.3
학력	중졸이하	167.9	239.2	10.8	15.8
	고졸이하	240.6	367.3	9.9	14.6
	전문대졸	33.1	54.2	5.2	9.8
	대졸이상	38.9	66.1	3.4	6.3
산업	농림업	2.1	5.9	1.8	7.0
	어업	8.6	8.1	47.5	50.6
	광업	0.5	0.9	19.6	31.0
	제조업	78.9	144.0	10.4	20.7
	전기가스수도업	0.0	0.3	0.0	3.0
	건설업	43.2	44.9	4.8	5.5
	도소매업	76.6	124.2	11.5	18.4
	음식숙박업	109.7	145.4	26.1	33.5
	운수업	13.4	20.8	7.6	13.0
	통신업	1.3	2.7	2.0	5.1
	금융보험업	4.5	15.1	1.2	4.0
	부동산및임대업	12.9	18.0	11.6	18.8
	사업서비스업	32.1	47.7	3.5	4.9
	공공행정	11.6	16.2	6.4	9.2
	교육서비스업	22.2	33.1	4.8	7.4
	보건및복지업	8.1	14.1	4.9	7.6
	오락문화업	13.0	22.7	10.4	17.4
기타개인서비스업	20.5	39.1	10.0	18.9	
가사서비스업	21.6	23.6	20.3	23.3	
직업	고위직	0.8	1.5	1.5	3.6
	전문가	7.1	23.9	1.6	5.5
	준전문가	30.0	41.2	5.6	8.6
	사무종사자	34.9	63.3	4.6	9.1
	서비스종사자	129.3	167.6	21.8	27.1
	판매종사자	58.2	92.4	10.5	14.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8	5.3	1.5	12.1
	기능원	55.8	79.7	7.3	10.9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6.8	62.7	9.2	16.0
단순노무종사자	126.8	189.3	7.9	12.1	
규모	1-4	189.9	296.5	12.6	19.7
	5-9	114.2	174.1	10.7	15.6
	10-29	102.5	138.7	7.8	10.7
	30-99	43.5	77.4	4.3	7.8
	100-299	25.6	23.0	5.3	5.8
	300+	4.7	17.1	1.2	5.0
종사상 지위	상용직	0.5	14.5	0.0	0.9
	임시직	363.2	528.7	17.2	23.2
	일용직	116.8	183.5	6.3	10.4
근속년수	1년미만	301.3	438.6	9.5	14.4
	1-2년미만	95.7	151.8	10.9	17.3
	2-3년미만	43.4	45.7	9.4	9.7
	3년 이상	40.1	90.7	3.2	7.3

<부표 20> 시간제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1,231.5	1,300.7	21.3	23.1
성	남	400.4	391.8	13.5	13.8
	여	831.2	908.9	29.6	32.5
연령	15-29	289.1	355.8	22.5	28.6
	30-39	283.7	267.7	19.9	20.5
	40-49	295.8	279.0	20.4	19.3
	50-59	180.7	192.0	19.3	19.9
	60세 이상	182.3	206.3	27.1	30.5
학력	중졸이하	369.6	386.9	23.7	25.6
	고졸이하	583.5	655.9	23.9	26.0
	전문대졸	74.2	66.6	11.7	12.0
	대졸이상	204.2	191.3	17.9	18.2
산업	농림업	30.9	32.3	26.5	38.0
	어업	1.8	2.5	10.2	15.4
	광업	1.1	0.0	44.0	0.0
	제조업	110.8	120.9	14.6	17.4
	전기가스수도업	0.6	0.6	5.2	5.4
	건설업	128.2	96.5	14.4	11.9
	도소매업	197.4	221.7	29.6	32.8
	음식숙박업	177.3	206.0	42.2	47.5
	운수업	22.4	19.9	12.6	12.4
	통신업	9.3	9.7	14.7	18.6
	금융보험업	18.1	15.1	4.9	4.0
	부동산및임대업	20.9	26.4	18.8	27.5
	사업서비스업	65.6	79.0	7.2	8.2
	공공행정	72.2	65.9	39.8	37.5
	교육서비스업	191.0	186.6	41.3	41.5
	보건및복지업	30.5	47.0	18.4	25.4
	오락문화업	41.4	52.2	33.3	40.2
기타개인서비스업	60.3	66.8	29.4	32.2	
가사서비스업	51.6	51.7	48.4	51.1	
직업	고위직	2.7	3.4	4.8	8.1
	전문가	88.5	95.7	19.8	22.0
	준전문가	128.0	141.1	23.8	29.3
	사무종사자	125.2	123.0	16.4	17.8
	서비스종사자	203.0	243.0	34.3	39.3
	판매종사자	111.3	129.2	20.2	20.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8	6.9	12.3	15.7
	기능원	93.7	80.9	12.3	11.1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3.3	38.9	10.8	9.9
단순노무종사자	429.1	438.7	26.7	28.1	
규모	1-4	564.5	599.7	37.6	39.9
	5-9	256.6	289.4	24.1	26.0
	10-29	225.8	216.6	17.1	16.7
	30-99	108.7	114.7	10.6	11.6
	100-299	47.7	45.1	9.9	11.4
	300+	28.2	35.2	7.4	10.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5.9	35.0	0.9	2.2
	임시직	563.2	585.0	26.7	25.7
	일용직	652.5	680.7	35.1	38.5
근속년수	1년미만	903.6	917.0	28.5	30.1
	1-2년미만	157.5	183.9	18.0	21.0
	2-3년미만	64.7	69.4	14.0	14.7
	3년 이상	105.7	130.4	8.4	10.5

<부표 21> 비전형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2,244.4	2,330.4	38.9	41.3
성	남	1,177.5	1,268.3	39.7	44.6
	여	1,066.9	1,062.1	38.0	38.0
연령	15-29	267.2	256.0	20.8	20.6
	30-39	467.1	498.4	32.8	38.1
	40-49	622.9	688.4	42.9	47.6
	50-59	489.8	507.3	52.2	52.6
	60세 이상	397.4	380.2	59.1	56.3
학력	중졸이하	837.9	801.8	53.8	53.1
	고졸이하	1,022.8	1,119.1	41.9	44.4
	전문대졸	163.6	146.2	25.8	26.4
	대졸이상	220.1	263.3	19.3	25.1
산업	농림업	70.3	58.8	60.2	69.3
	어업	6.3	5.5	34.8	34.1
	광업	1.1	0.8	43.2	27.1
	제조업	151.4	169.2	20.0	24.4
	전기가스수도업	0.6	1.4	5.2	12.7
	건설업	487.1	506.0	54.6	62.4
	도소매업	240.9	250.3	36.1	37.0
	음식숙박업	82.0	71.1	19.5	16.4
	운수업	42.5	50.6	24.0	31.6
	통신업	25.3	23.8	39.8	45.5
	금융보험업	228.2	271.1	61.5	71.0
	부동산및임대업	34.2	26.5	30.9	27.6
	사업서비스업	634.6	675.7	69.3	69.8
	공공행정	13.0	7.3	7.2	4.1
	교육서비스업	73.3	69.7	15.9	15.5
	보건및복지업	9.8	8.6	5.9	4.6
	오락문화업	21.1	20.6	16.9	15.9
	기타개인서비스업	56.1	61.5	27.3	29.6
가사서비스업	65.4	52.2	61.3	51.6	
직업	고위직	6.5	3.9	11.4	9.4
	전문가	25.2	29.9	5.6	6.9
	준전문가	111.6	112.3	20.7	23.3
	사무종사자	94.2	100.0	12.3	14.4
	서비스종사자	149.6	147.0	25.3	23.8
	판매종사자	349.0	410.4	63.2	64.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9.1	21.2	52.3	48.6
	기능원	383.8	430.8	50.5	58.9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8.9	158.1	32.1	40.4
단순노무종사자	966.6	916.9	60.3	58.7	
규모	1-4	705.0	662.6	47.0	44.1
	5-9	436.8	496.3	41.0	44.5
	10-29	587.1	603.9	44.4	46.6
	30-99	374.5	435.7	36.6	44.1
	100-299	109.1	89.9	22.6	22.7
	300+	31.9	42.0	8.4	12.3
종사상 지위	상용직	348.7	436.8	19.3	27.4
	임시직	821.4	877.9	39.0	38.6
	일용직	1,074.3	1,015.7	57.8	57.5
근속년수	1년미만	1,445.2	1,391.8	45.5	45.7
	1-2년미만	290.3	286.4	33.1	32.7
	2-3년미만	126.5	177.2	27.4	37.5
	3년 이상	382.4	475.0	30.3	38.2

<부표 22> 파견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175.4	172.2	3.0	3.1
성	남	81.0	90.7	2.7	3.2
	여	94.3	81.5	3.4	2.9
연령	15-29	56.3	51.4	4.4	4.1
	30-39	40.2	43.9	2.8	3.4
	40-49	45.7	50.4	3.1	3.5
	50-59	23.8	14.4	2.5	1.5
	60세 이상	9.3	12.1	1.4	1.8
학력	중졸이하	29.4	25.9	1.9	1.7
	고졸이하	88.1	93.6	3.6	3.7
	전문대졸	34.0	28.0	5.4	5.0
	대졸이상	23.8	24.7	2.1	2.4
산업	농림업	0.4	0.3	0.4	0.3
	어업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제조업	17.9	16.7	2.4	2.4
	전기가스수도업	0.0	0.0	0.0	0.0
	건설업	15.5	9.4	1.7	1.2
	도소매업	42.4	38.8	6.4	5.7
	음식숙박업	10.2	8.4	2.4	1.9
	운수업	1.5	1.5	0.9	0.9
	통신업	0.3	0.5	0.4	0.9
	금융보험업	2.9	1.6	0.8	0.4
	부동산및임대업	0.7	0.8	0.7	0.8
	사업서비스업	68.8	80.8	7.5	8.3
	공공행정	6.1	1.6	3.4	0.9
	교육서비스업	1.9	5.1	0.4	1.1
	보건및복지업	4.5	2.1	2.7	1.1
	오락문화업	0.0	1.0	0.0	0.8
기타개인서비스업	2.0	3.5	1.0	1.7	
가사서비스업	0.3	0.0	0.3	0.0	
직업	고위직	0.4	1.1	0.7	2.7
	전문가	10.9	12.7	2.4	2.9
	준전문가	7.5	13.7	1.4	2.8
	사무종사자	22.6	18.4	2.9	2.7
	서비스종사자	17.3	15.4	2.9	2.5
	판매종사자	42.8	39.6	7.8	6.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0	0.0	0.0	0.0
	기능원	16.1	18.9	2.1	2.6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7	18.6	5.1	4.8
단순노무종사자	37.1	33.7	2.3	2.2	
규모	1-4	46.0	36.0	3.1	2.4
	5-9	23.5	23.5	2.2	2.1
	10-29	39.6	46.0	3.0	3.6
	30-99	38.9	42.8	3.8	4.3
	100-299	19.7	16.1	4.1	4.1
	300+	7.7	7.8	2.0	2.3
종사상 지위	상용직	78.7	101.7	4.4	6.4
	임시직	64.3	59.1	3.0	2.6
	일용직	32.4	11.4	1.7	0.6
근속년수	1년미만	83.8	55.8	2.6	1.8
	1-2년미만	39.6	32.0	4.5	3.7
	2-3년미만	14.9	29.6	3.2	6.3
	3년 이상	37.1	54.7	2.9	4.4

<부표 23> 용역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용역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584.1	616.9	10.1	10.9
성	남	353.9	373.6	11.9	13.1
	여	230.2	243.2	8.2	8.7
연령	15-29	69.4	69.6	5.4	5.6
	30-39	82.9	79.1	5.8	6.0
	40-49	87.8	114.5	6.0	7.9
	50-59	157.3	168.5	16.8	17.5
	60세 이상	186.6	185.2	27.7	27.4
학력	중졸이하	279.8	267.6	18.0	17.7
	고졸이하	243.8	272.7	10.0	10.8
	전문대졸	31.5	34.0	5.0	6.1
	대졸이상	29.0	42.6	2.5	4.1
산업	농림업	0.0	0.3	0.0	0.3
	어업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제조업	8.9	6.4	1.2	0.9
	전기가스수도업	0.0	0.5	0.0	4.1
	건설업	18.4	21.4	2.1	2.6
	도소매업	2.3	2.4	0.3	0.4
	음식숙박업	3.7	6.1	0.9	1.4
	운수업	2.6	9.4	1.5	5.9
	통신업	0.6	0.9	0.9	1.6
	금융보험업	0.0	1.6	0.0	0.4
	부동산및임대업	12.5	9.1	11.3	9.5
	사업서비스업	527.5	550.5	57.6	56.8
	공공행정	0.0	0.6	0.0	0.3
	교육서비스업	0.4	2.4	0.1	0.5
	보건및복지업	0.0	1.7	0.0	0.9
	오락문화업	0.4	0.0	0.3	0.0
기타개인서비스업	3.5	3.7	1.7	1.8	
가사서비스업	2.1	0.0	1.9	0.0	
직업	고위직	5.3	2.1	9.4	5.0
	전문가	0.9	5.1	0.2	1.2
	준전문가	4.8	7.6	0.9	1.6
	사무종사자	35.1	33.0	4.6	4.8
	서비스종사자	35.5	50.5	6.0	8.2
	판매종사자	10.2	17.4	1.8	2.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	1.2	2.7	2.8
	기능원	48.1	63.7	6.3	8.7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9.6	61.6	9.9	15.7
단순노무종사자	403.1	374.6	25.1	24.0	
규모	1-4	100.7	101.7	6.7	6.8
	5-9	118.6	130.7	11.1	11.7
	10-29	194.4	189.2	14.7	14.6
	30-99	116.7	145.0	11.4	14.7
	100-299	42.4	40.2	8.8	10.1
	300+	11.4	9.9	3.0	2.9
종사상 지위	상용직	248.0	278.1	13.7	17.4
	임시직	243.2	257.2	11.5	11.3
	일용직	92.9	81.5	5.0	4.6
근속년수	1년미만	285.7	271.7	9.0	8.9
	1-2년미만	104.5	116.1	11.9	13.3
	2-3년미만	49.3	68.3	10.7	14.4
	3년 이상	144.6	160.8	11.5	12.9

<부표 24> 특수근로형태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특수근로형태 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642.5	600.9	11.1	10.7
성	남	222.0	205.1	7.5	7.2
	여	420.5	395.8	15.0	14.2
연령	15-29	75.5	51.9	5.9	4.2
	30-39	202.6	196.9	14.2	15.1
	40-49	212.0	226.9	14.6	15.7
	50-59	100.5	82.3	10.7	8.5
	60세 이상	51.9	42.9	7.7	6.3
학력	중졸이하	104.7	81.2	6.7	5.4
	고졸이하	329.4	312.9	13.5	12.4
	전문대졸	66.1	55.9	10.4	10.1
	대졸이상	142.4	150.9	12.5	14.4
산업	농림업	1.7	0.0	1.5	0.0
	어업	1.0	1.2	5.3	7.4
	광업	0.0	0.0	0.0	0.0
	제조업	24.7	24.2	3.3	3.5
	전기가스수도업	0.6	0.6	5.2	5.4
	건설업	21.7	3.5	2.4	0.4
	도소매업	148.4	148.5	22.2	22.0
	음식숙박업	8.7	1.6	2.1	0.4
	운수업	23.7	18.4	13.3	11.5
	통신업	22.7	18.9	35.7	36.1
	금융보험업	223.4	262.6	60.2	68.8
	부동산및임대업	19.7	11.9	17.8	12.4
	사업서비스업	19.6	11.8	2.1	1.2
	공공행정	0.6	0.9	0.3	0.5
	교육서비스업	71.1	55.2	15.4	12.3
	보건및복지업	2.1	0.3	1.3	0.2
	오락문화업	9.0	7.9	7.2	6.1
기타개인서비스업	32.9	27.9	16.0	13.4	
가사서비스업	11.0	5.6	10.3	5.5	
직업	고위직	0.7	0.7	1.2	1.7
	전문가	8.8	4.6	2.0	1.1
	준전문가	97.8	82.0	18.2	17.0
	사무종사자	19.9	23.4	2.6	3.4
	서비스종사자	21.2	11.3	3.6	1.8
	판매종사자	285.5	325.5	51.7	50.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	0.0	3.4	0.0
	기능원	30.4	7.7	4.0	1.0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2	36.2	12.0	9.3
	단순노무종사자	128.1	109.4	8.0	7.0
규모	1-4	137.7	112.5	9.2	7.5
	5-9	67.4	62.9	6.3	5.6
	10-29	199.7	203.0	15.1	15.7
	30-99	189.4	186.6	18.5	18.9
	100-299	37.5	21.9	7.8	5.5
	300+	10.9	14.0	2.9	4.1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5	19.6	1.1	1.2
	임시직	481.9	496.6	22.9	21.8
	일용직	141.1	84.7	7.6	4.8
근속년수	1년미만	292.0	213.4	9.2	7.0
	1-2년미만	119.4	107.7	13.6	12.3
	2-3년미만	50.1	63.1	10.8	13.3
	3년 이상	181.1	216.8	14.4	17.4

<부표 25> 가정내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가정내 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154.5	151.0	2.7	2.7
성	남	15.9	41.7	0.5	1.5
	여	138.6	109.3	4.9	3.9
연령	15-29	12.8	20.2	1.0	1.6
	30-39	36.6	42.9	2.6	3.3
	40-49	39.2	38.8	2.7	2.7
	50-59	29.1	28.8	3.1	3.0
	60세 이상	36.8	20.3	5.5	3.0
학력	중졸이하	67.6	45.1	4.3	3.0
	고졸이하	68.3	71.0	2.8	2.8
	전문대졸	10.9	8.2	1.7	1.5
	대졸이상	7.8	26.7	0.7	2.5
산업	농림업	0.0	0.0	0.0	0.0
	어업	0.9	1.0	5.1	6.1
	광업	0.0	0.0	0.0	0.0
	제조업	69.7	73.3	9.2	10.6
	전기가스수도업	0.0	0.0	0.0	0.0
	건설업	0.4	2.8	0.0	0.3
	도소매업	12.7	8.9	1.9	1.3
	음식숙박업	0.5	0.6	0.1	0.1
	운수업	0.0	0.0	0.0	0.0
	통신업	1.6	3.2	2.5	6.0
	금융보험업	0.3	4.5	0.1	1.2
	부동산및임대업	0.9	4.1	0.8	4.3
	사업서비스업	5.9	8.1	0.6	0.8
	공공행정	2.2	2.1	1.2	1.2
	교육서비스업	3.1	8.5	0.7	1.9
	보건및복지업	0.5	2.7	0.3	1.5
	오락문화업	2.3	1.7	1.8	1.3
기타개인서비스업	4.2	8.9	2.0	4.3	
가사서비스업	49.4	20.5	46.4	20.2	
직업	고위직	0.0	0.0	0.0	0.0
	전문가	5.6	8.2	1.2	1.9
	준전문가	4.8	7.8	0.9	1.6
	사무종사자	7.2	16.1	0.9	2.3
	서비스종사자	20.7	14.7	3.5	2.4
	판매종사자	1.9	2.8	0.3	0.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2	0.0	0.4	0.0
	기능원	6.7	13.5	0.9	1.9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	11.2	0.5	2.9
	단순노무종사자	105.7	76.7	6.6	4.9
규모	1-4	134.0	93.4	8.9	6.2
	5-9	5.1	11.7	0.5	1.0
	10-29	8.0	20.0	0.6	1.5
	30-99	4.2	10.0	0.4	1.0
	100-299	1.6	5.3	0.3	1.3
	300+	1.6	10.5	0.4	3.1
종사상 지위	상용직	2.4	32.0	0.1	2.0
	임시직	39.3	39.7	1.9	1.7
	일용직	112.8	79.3	6.1	4.5
근속년수	1년미만	108.2	94.6	3.4	3.1
	1-2년미만	20.2	16.9	2.3	1.9
	2-3년미만	12.8	10.7	2.8	2.3
	3년 이상	13.3	28.8	1.1	2.3

<부표 26> 일일 근로자의 구성 추이 (3월 기준)

(단위 : 천명, %)

		규모		비정규근로자 중 일일근로자 비중	
		2007	2008	2007	2008
전체		914.7	940.3	15.8	16.7
성	남	590.6	619.9	19.9	21.8
	여	324.0	320.3	11.6	11.5
연령	15-29	82.7	71.5	6.4	5.7
	30-39	156.9	173.8	11.0	13.3
	40-49	289.5	292.3	19.9	20.2
	50-59	229.9	252.5	24.5	26.2
	60세 이상	155.7	150.1	23.1	22.2
학력	중졸이하	452.7	448.7	29.0	29.7
	고졸이하	394.8	437.1	16.2	17.3
	전문대졸	38.2	26.2	6.0	4.7
	대졸이상	28.9	28.3	2.5	2.7
산업	농림업	68.2	58.2	58.4	68.6
	어업	4.4	4.9	24.4	30.4
	광업	1.1	0.8	43.2	27.1
	제조업	85.1	94.6	11.2	13.6
	전기가스수도업	0.0	0.8	0.0	7.1
	건설업	454.6	484.8	50.9	59.8
	도소매업	61.0	62.0	9.1	9.2
	음식숙박업	63.3	55.6	15.1	12.8
	운수업	15.9	22.5	9.0	14.1
	통신업	2.1	1.9	3.2	3.6
	금융보험업	2.0	2.2	0.5	0.6
	부동산및임대업	3.1	1.1	2.8	1.1
	사업서비스업	71.8	69.9	7.8	7.2
	공공행정	4.2	2.1	2.3	1.2
	교육서비스업	0.5	1.6	0.1	0.3
	보건및복지업	2.7	3.1	1.6	1.7
	오락문화업	11.4	10.0	9.2	7.7
기타개인서비스업	24.8	28.7	12.1	13.8	
가사서비스업	38.5	35.6	36.1	35.1	
직업	고위직	0.0	0.0	0.0	0.0
	전문가	6.2	1.4	1.4	0.3
	준전문가	0.5	3.7	0.1	0.8
	사무종사자	11.2	10.7	1.5	1.5
	서비스종사자	68.4	65.6	11.6	10.6
	판매종사자	18.9	29.9	3.4	4.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7.0	20.0	48.5	45.7
	기능원	308.2	349.2	40.6	47.7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0.5	43.1	7.6	11.0
단순노무종사자	443.8	416.8	27.7	26.7	
규모	1-4	426.7	410.4	28.4	27.3
	5-9	247.2	289.3	23.2	26.0
	10-29	188.3	171.2	14.2	13.2
	30-99	40.1	60.3	3.9	6.1
	100-299	12.0	7.4	2.5	1.9
	300+	0.4	1.7	0.1	0.5
종사상 지위	상용직	0.5	5.6	0.0	0.3
	임시직	0.9	36.5	0.0	1.6
	일용직	913.3	898.3	49.1	50.9
근속년수	1년미만	886.6	894.8	27.9	29.4
	1-2년미만	13.0	20.5	1.5	2.3
	2-3년미만	4.2	7.0	0.9	1.5
	3년 이상	11.0	18.1	0.9	1.5